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705 1981년12월25일(금)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Friday, December 25, 1981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편집자문위원 : 윤 방 현

祝 메리 크리스마스 !

하늘에는 영광과 찬양
땅에는 평화와 축복

한국일보사 직원일동

위니펙 재봉사에 위문편지도
훈훈한 성탄 성금·선물답지
동우회, 그린 변호사등도 적극 호응

캐나다에 이민온지 6년됐다는 이상온 아주머니는 23일 본사에 들러 "1남6녀를 둔 어머니로서 자랑스런 대한의 딸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됐으면 한다"고 편지(4면게재)와 함께 성금을 전했다.

이여사는 우리가 같은겨레로서 위니펙의 아가씨를 잊을 수는 없지않느냐면서 시간만 허락하면 언제든지 뛰어가서 등을 두들기며위로해 주고 싶다고 말했다.

외국에서 고된생활을 경험했던 동우회는 원영신회장을 통해 500달러를 보낸 이외 오는 26일 동우회 연말 파티때 추가모금할 것과 박광철, 고광남씨등3명의 회원을 위문단에 동행시켜 현지실태를 파악하기로 했다.

그동안 많은 한국교민들의 이민문제를 다루 었고 최근 한국을 방문한 멘델·그린 변호사는 500달러를 보내왔고 토론토 총영사관에서도 500달러를 보내왔다.

한국일보 편집부 직원들도 성금을 모아서 위문단에게 전했다.

27일(일) 하오 7시 위니펙호텔에서 위니펙 한인회 연말잔치와 겸친 행사로실시되는 위문공연에는 4인조 권순근악단의 연주, 호세환씨의 싱어롱지도, 가수 박소영, 박수영씨의 노래등이 펼쳐진다.

위문단은 27일 아침 9시5분 CP 71기편으로 토론토공항을 출발하여 28일에는 12시반, 13시10분, 18시40분등 3편으로 나눠어 돌아온다.

23일 현재 집계된 성금, 선물등 기증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성금

이 영 현	$2,000
동 우 회	$500
총영사관	$500
멘델그린(변호사)	$500
실업인협회	$300
토론토한인천주교회	$200
무명인사	$200
대한항공	$150
외환은행	$100
신용조합	$100
블로아번영회	$100
한인합창단	$100
백이삼(연합상사)	$100
고종옥 신부	$100
토론토 무역관	$100
이 상 온	$50
한 국 관	$50
최 영 식	$50
한국일보편집부직원	$45
총 계 :	$5,245

◇기 증 품

연합상사 : 커피, 쇼탱 각 2상자
동부아카데미 : 시계, 라디오
고순복(한인회부회장) : 화장품 2상자
Super×약국(조남오) : 화장품 세트
킴스카메라(김춘탁) : 소형카메라
미도파백화점 : 여자용 오메가 시계
에코시가구점 : 의자 세트
라이온스클럽 : 커피 2 상자
빅·세븐선물센타 : 인삼차
대한항공 : 여행가방, 카렌다

이외에도 많은 분들은성금과 선물을 약속, 도착되는대로 추가명단을 발표한다.

◇크리스마스 트리용 나무를 베어오는 어린이. 크리스마스트리는 고대독일의 전통으로「소나무여」(O Tannenbaum)라는 노래와 함께 전세계에 퍼졌다. 비록 예수가 탄생한 베들레헴에는 소나무와 같은 침엽수가 없었으나…, 이제 트리가 없는 트리스마스는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 거기따라 트리용 나무의 가격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다.

교황, 인권침해 저항권인정
전체주의국가의 위장평화 경고

(바티칸)기독교인들이자유와 생명을 보호할 권리를 강조하는 교황 요한 바오로2세는 연례 평화의날 메시지에서 '전체주의국가의 위장된 평화'에 경고를 보냈다.

바티칸의 관계자들은 21일 발표된 교황 성명서는 폴랜드사태를 겨냥한 것으로 알려있다.

교황은 기본적인권을 침해하는 명령이나 법률에 "공공연히 그리고 두려움없이 저항하는 사람들의용기를 높이 찬양"한 65년에 발표된 바티칸문서를 상기했다.

그는 어떤 이념(사상)은 영원하고 완전한 평화의인간사회를 약속함으로써 거짓된 희망을 주입 시키나 이것은 불행하게도「유토피아」(현실에 없는 사회)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같은 왜곡된 희망은 전체주의국가의 평화주의로 위장된다."고 말하며 "이것은 어떤 종류의 전쟁이든지 거부하는 기독교사상에 근거 크리스천들이 피자에 대항, 적절한수단을 사용하여 그들의 생존과 자유를 보호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교황은 몇몇국가에 대해 언급하며 이들은 비정상적인 민족주의를 추구, 다른 국가들을 그들의 위성국가로 만들기에 광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캐나다 외환은행
364-2890
2 FIRST CANADIAN PLACE SUITE 1140

랑콤화장품 보너스세일
$15이상 구입시 $15 가치의 랑콤을 보너스로 드립니다.
시일 : 12월24일 선착순 25명에 한함
주소 : 620A BLOOR ST.W.
전화 : 534-7791, 534-9977
골드핑거선물센타

<크리스마스 메시지>
성탄은 이웃사랑의 계절
예수탄생은 인간자유 승낙표시

長空 김 재 준
(전 한국신학대학장)

◇장공 김재준 목사

크리스마스는 이웃사람을 생각하는 때이다.

이웃사람이란 인종이나 종교를 초월한 나이외의 "다른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네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사람의 비유로 이웃에 대해 설명하셨다.

네 이웃이 누구냐하는것이 문제가 되기보다는 네가 누구의 이웃이 되느냐 하는것이 문제이다. 원수라도 내가 사랑하면 이웃이 되는 것이다.

크리스마스란 것은 전세계성을 띄워야한다.

교파, 종파를 초월 전세계인이 진정한 친구가 되어 인사를 나누게 되는 때이다.

그리스도의 탄생은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승락의 뜻이고 그의 생일은 그전까지의 율법주의를 끝맺고 은혜의 질서가 서는 날이다.

개인의 자유는 인간존립의 기초이다.

인간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말의 자유, 생각의자유, 행동의 자유를 누릴수 있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에서 부터 시작된 것이다. 수천만 개개인의 주권을 가로채 1인이 그를 독차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인간끼리 고통과 기쁨을 나눌 줄 아는 것이 참하나님의 아들 예수그리스도의 정신이고, 그 탄생의 의미이다. 그런 의미에서 크리스마스는 참 인간의 첫 시작이다.

언론·종교기관등의 책임자들은 자기말에 언제든지 책임을 느끼고 살아야 한다. 환경, 형편, 권력의 이동, 출세욕 이런 것이 생활에 주축이 되는 그런 사람은 아무리 유능해도 믿음을 못얻는다. 사람이 한번 믿음을 잃으면 이를 회복하기 힘들게 된다.

국가도 마찬가지이다. 정의가 아니라 이익만을 추구하는 국가는 위신을 잃는다. 미국도 건국초기의 이념을 잃고 돈벌이만 생각하고있어 세계지도국으로서의 영광을 과연 얼마나 더 유지하게 될지 모르겠다.

전세계적으로 많은 불행한 사건이 터지는 원인이 바로 능률위주, 자기이익 위주의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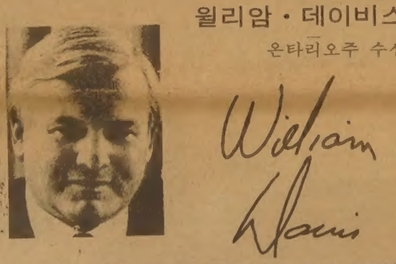
이민사회도 마찬가지이다. 토론토이민사회는 비교적 착실히 성장해왔고, 지금도 잘 해나가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보다 바람직한 이민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덕적, 정신적인 소양교육이 계속되야하겠다. 모임활동을 통해 상담역이 되고 서로도웁고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탄생의 뜻이기도 하다. 교회의 역할은 교양기관의 역할을 한다는 데서도 중요하다. 유대인들이 시나고그를 중심으로 자기민족의 얼을 이어나가는 것이 좋은 예이다. 비종교 인이라도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전제를 갖지말고 교회·종교단체의 활동을 이용한다면 자기에 유익할 것이다. 특히 이민사회에 서는 서로 자주 모여 친교를 나누고 집회활동등을 갖을 필요가 있다.

우리 한국사람들의 성탄절이 가족중심보다 교회중심으로 지켜지는 것은 이런의미에서 훨씬 뜻깊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크리스마스원래의 의미를 더욱 빛나게 하기때문이다.

(닥터즈·하스피탈 에서 위절개수술을 받고 2주간 입원했다 19일 퇴원, 현재 자택에서 회복중인 김재준박사는 집필이 어려울정도로 쇠약한 건강을 무릅쓰고 토론토교민을 위해 위와 같은 성탄메시지를 보내주셨다.)

가족함께 즐거이

윌리암·데이비스
온타리오주 수상



William Davis

묵은 해를 보내면서「한국일보」독자 여러분에게 따뜻한 마음의 정을 드립니다. 크리스마스와 설날은 우리가 가족과 함께 지난 얘기를 나누며, 새해의 설계를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복합문화사회에서 살고 있읍니다. 우리 사회의 기본정신은 만민이 평등하며 "사랑"이라는 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읍니다. 온타리오는 여러 민족과 그들의 전통적 문화가 얽혀 자유롭게 꽃피는 자비롭고 우애로운 분위기가 충만한 사회입니다. 최근 우리는 캐나다인의 특수성에 맞게 함께 일하며, 우리의 능력을 배가시킬 수 있는 고유의 헌법을 만들었읍니다. 이 법은 캐나다를 번창시키며, 미래를 약속할 수 있는 우리의 의지력과 성숙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즐거운 성탄을 맞아 여러분과 가족, 친구와 더불어 즐거운 시간을 가지길 바라며, 새해에는 독자 여러분의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단골백화점 미도파로 오십시요.
미도파백화점
(B)536-1692
(R)245-3539
454 BLOOR ST.W. TORONTO.ONT.

강찬영 변호사
RALPH LEVINE 변호사
537-3171 ~ 537-3174
484 BLOOR ST.W. (Bloor & Bathurst)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머리털이 빠져 고민하십니까?

머리털을 보존 하십시오.

STOP HAIR LOSS NOW!

● 위험신호 :
①당신이 머리를 빗을때 빠지는 머리털을 많이 보십니까?
②머리가 가렵거나 비듬이 많으십니까?
③당신의 머리털이 건조하거나 아니면 기름이 많으십니까?
④당신의 머리가 잘빠지거나 불균형 하게 자랍니까?

당신이 위의 말 어느곳에 해당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늦기전에 전문가를 만나보십시오.

※상담은 FREE입니다.
영업시간 : 매일 오전11시~오후8시
토요일 오전9시~오후3시

Peoples Hair and Scalp Specialists

Bloor & Dundas Medical Centre
2333 Dundas St. W., Suite 305
537-3104

탁명환 교수 초청 신앙강좌

본교회에서는 창립 제5주년 기념행사로 국제종교문제연구소 소장이시며 사이비 종교계의 권위자이시 탁명환 교수를 초청하여 아래와 같이 신앙강좌를 실시코자 하오니 교민여러분들의 참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제 : 바로믿고 바로알고 바로살자.
강 사 : 탁 명 환 교수(국제종교문제 연구소 소장)
장 소 : 성 도 교 회 87 ELMHURST DR.(At Islington)
전 화 : 745-7370
일 시 : 1982년 1월1일~1월3일까지 매일저녁 7시부터
후 원 : 토론토한인교역자회, (토)한인성서신학원, 미주한인장로회카나다노회 국제종교문제연구소카나다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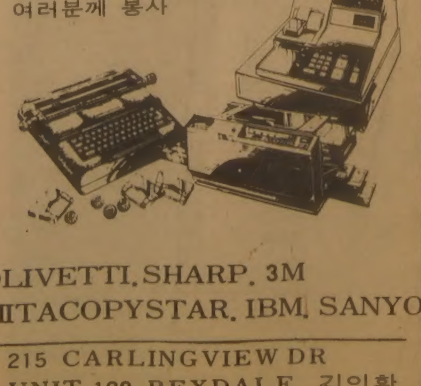
※1981년12월29일(화요일) 오전12시 서울집(식당)에서 교역자 좌담회가 있읍니다.

성도교회목사
김 용 진

SKY WAY

●각종 복사기
●각종 타자기-사무용, 가정용, 학생용
●캐쉬 레지스터
●계산기-사무용, 가정용

※신품과 중고 판매및 수리
※15년 경력으로 교민 여러분께 봉사



OLIVETTI, SHARP, 3M
MITACOPYSTAR, IBM, SANYO

215 CARLINGVIEW DR
UNIT 109 REXDALE 김인환
(B)675-1295~6 (R)671-0938

2ND CLASS MAIL NO. 5248 DEAR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East Asian Library
Rm 3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메시아는 소망, 인류의 보금자리

◇올해 미국의 인기성탄카드들。다양한 도안속에 경건한 신앙심을 담고있다。

< 프랑스의 성탄동화>

살아있는 선물

소녀 삐꼴라는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읍니다.

남프랑스의 하늘은 맑게 개어서 날씨는 따뜻하였지만, 삐꼴라네 좁은 집안은 어둑 축축하고 쓸쓸하였읍니다. 그 방에는 인형도 장난감도 없었읍니다.

어머니는 양말을 짜서 팔아 끼니를 잇고 있는데, 삐꼴라도 어머니 일을 도와 드리고 있었읍니다. 가끔 딸은 어머니를 대신하여 짠 양말을 팔러 거리로 나갔읍니다.

크리스머스가 까운 어느 날, 삐꼴라는 어머니에게 물어보았읍니다.

"올해는 쎄인트·니꼴라스(산타클로스)가 선물을 주실까? 나는 벽에 걸어둘 양말도 버선도 없는데…."

삐꼴라는 양말을 팔고 있지만 자기의 양말은 없었읍니다. 거리에 양말 팔러 나갈 적에는 언제나 나막신을 신고 갔읍니다.

"글쎄다. 올해에는 어떨지?…."

어머니는 고개를 갸웃하였읍니다.

"좋은 것 생각해 뒀어요."

어린 딸은 신이 나서 큰 소리를 쳤읍니다.

"나 말이야, 양말 대신 나막신을 뻬치카(벽난로) 옆에 놔둘래. 쎄인트·니꼴라스는 나를 잊어버리지 않고, 꼭 그 안에 선물을 넣어 주실 거야. 그렇죠, 어머니?"

"하지만 말이다. 만약에 선물을 받치 못한다 하더라도 크리스머스에 빵을 맘껏 배부르게 먹을 수 있으면 고맙게 생각해야지."

어머니는 말하면서 한숨을 쉬었읍니다. 그렇지만 삐꼴라 소녀는 인정 많은 쎄인트·니꼴라스 할아버지가 자기를 잊으시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읍니다. 틀림 없이 선물을 받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읍니다.

크리스머스·이브— 삐꼴라는 늘 신고 다니는 나막신을 깨끗하게 씻어서 뻬치카 옆에 놔두고 "어머니, 크리스머스 안녕." 하고는 잠자리에 들어갔읍니다.

어머니는 그 나막신을 한참 동안 지켜보았읍니다.

"아아,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 나막신에 아무 선물도 담겨 있지 않으면 딸애는 얼마나 실망할까?"

어머니는 온 집안을 찾아보아도 선물이 될만한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읍니다.

어머니 눈에서는 한숨과 함께 눈물이 주룩 흘렀읍니다.

이튿날(성탄날) 아침해가 방실방실 떠오르기 시작하였읍니다.

번쩍 눈뜬 삐꼴라는 이내 고개 들어 나막신을 보았읍니다. 나막신은 어젯밤의 그 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었읍니다. 벽난로 둘레도, 연통 아래도 그대로 입니다. 아무 변화도 없읍니다.

소녀는 낙심하면서 일어났읍니다. 옆에서 어머니는 고단하게 잠들어 있읍니다.

가만히 잠자리에서 빠져나온 삐꼴라는 뻬치카 가까이 가서 나막신을 들려다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읍니다.

"엄마 엄마, 이것 봐요!"

"으응……?"

눈뜬 어머니가 일어나 앉기도 전에 달려온 딸이 나막신을 내보이며

"이것, 이것 봐요. 쎄인트·니꼴라스 할아버지가 나한테 주셨어."

"무얼? 뭘 주셨다는 거냐?"

일어나 앉아서 나막신 속을 들여다 본 어머니는 깜짝 놀랐읍니다.

"저런! 참 멋진 선물이구나. 귀여운 참새의 선물."

눈오는 겨울밤, 바깥이 추워서 연통 속에 뛰어든 참새는 방안으로 날아 들어와 나막신 속에서 잠들었나 봅니다.

"쎄인트·니꼴라스는 참 친절한 할아버지야. 네, 어머니, 이렇게 귀여운 선물을 다 주시니."

나막신에서 꺼내니까 조그만 참새는 날개를 파닥이며 방안을 날아다닙니다. 삐꼴라는 기꺼운 소리 지르며, 손벽 치며 참새 뒤를 쫓아다닙니다. 그것을 보고 어머니도 웃으면서 말하였읍니다.

"홋호호, 살아있는 선물. 이렇게 좋은 선물은 다시 없을 거다."

"이거 쎄인트·니꼴라스 할아버지가 주신 선물이야. 잘 기를 테야."

참새를 붙잡은 삐꼴라는 뺨을 비비면서 좋아라고 깡충깡충 춤춥니다.

그날부터 삐꼴라와 아기새는 매일 매일 친하게 놀았읍니다. 똑같은 음식을 먹고, 함께 노래도 부르고…….

삐꼴라 소녀는 늘 마음속에

"쎄인트·니꼴라스 할아버지는 참 좋은 분이셔."

하고 생각하였읍니다.

社說

메리·크리스마스

— 성탄의 현대적 의미

"구세주 빨리 오사 어둠 없애소서"

개인적으로, 또는 인류적 관점에서 다사다난했던 81년도를 보내면서, 또한 세계의 명절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사람 저마다는 차분히 자아(自我)로 돌아가,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하겠다.

그리스도!

그는 내게 있어 누구이며, 나는 그분 앞에 어떤 존재로 있는가?를 철저히 따져보는 것이 보다 소중한 한해의 마무리요, 자기에게 충실한 자세일 것이다.

크리스마스!

풀이하면 "그리스도의미사(제사)"— 이날의 미사 기도문중에는 성탄의 참뜻이 밝혀져 있다.

성탄미사는 12월24일밤 자정(12시), 새벽(未明), 해뜬 뒤— 이렇게 세번 거행된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세가지 탄생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그의 신적(神的)탄생과 역사적 탄생, 그리고 우리 영혼 안의 탄생을….

크리스마스 이브의 첫미사는 "너는 내 아들/ 오늘 너를 낳았노라"(시편2 : 7)는 귀절로 시작된다. 영원한 신이신 그리스도가 인간성을 취하여 신인(神人)으로 우리들에게로 내려온 Incarnation— 신적탄생!

우리들은 하느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장 감명 깊은 방법으로 크리스마스 밤에 똑똑히 본다. 그때 신을 찾고, 신에게로 도달하려고 애쓰다가 실패한 인류에게 대하여 하느님 쪽에서 구원의 손길을 뻗쳐준 것이다. 사람이 된 하느님 아들은 동시에 구세주, 즉 "그분을 맞아들이고,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요한2 : 12)

둘째로, "말씀(Logos)"이 사람이 되어 인성(人性)을 취하여 인간세계에 하느님을 제시한 역사적 현실이 크리스마스이다.

무한한 존재인 신께서 스스로 유한한 지구상, 시간의 흐름 속으로 들어온 그 겸허, 그 넘치는 사랑—이 역사적 사건이 바로 크리스마스이다.

하느님의 뜻은 당신이 창조한 인간들을 각각 그처지에 따라 당신의 완전 무결한 지혜와 사랑에 참여시켜 영복을 나누려는 것이라 하겠다. 이 계획이 그리스도의 강생으로 실현된 것이다.

사람에게는 자기존재와 생명의 근원으로 돌아가려는 간절한 소망, 곧 귀소(歸巢)본능이 있다. 이 절절한 향수에 메아리하듯 하늘의 어버이마음은 성자 그리스도의 인간성을 통하여 구원의 손길을 인류에게로 뻗친다.

강생한 그리스도를 거쳐 우리들은 하느님 품에 안기고, 그 완전하고 영원한 생명에 합류될 수 있으며, 거기에 인간적 결함, 유한성(有限性)에 따른 죄와 때와 고뇌에 대한 용서와 씻음과 구원이 주어진다. 그러기에 사람이 된 하느님은 또한 인류의 구원자인 것이다.

◇

12월25일이 그리스도의 정확한 생일이라기보다 크리스마스를 이날로 정한 유래는, 로마시대 태양을 받드는 풍습이 있어서 낮이 가장 짧고, 어두운 밤이가장 긴 계절인 동지때, 이 동짓날부터 나날이 밤이 줄어들고, 낮이 길어지므로 태양의 부활을 축하하는 이교적(異教的) 축제가 민간에 널리 보급되었다고, 한다.

이것을 그리스도교화하기 위해 교회가 이날을 크리스마스로 삼은 것이라 전한다. 곧 그리스도를 영혼을 비추는 "정의로운 태양"이라고 부른 상징주의도 곁들인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스도가 한밤중에 태어났다는 설도 상징적인 것이니 고대교부(教父)의 설교에 「그리스도는 어둠이 가장 길 때, 인류가 죄악의 긴긴 어둠의 구덩이에 깊이 빠진 한밤중에 태어났으며, 그때부터 낮이 길어져 광명이 마음의 어둠을 비추게 됐다」는 글귀가 자주 발견된다.

정녕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 우리 마음속에 은총으로 탄생함을 뜻한다.

그리스도의 신적이며 역사적 탄생인 동시에 사람 저마다의 영혼 속에의 구세적 탄생— 이 3단계의 탄생이 합쳐서 비로소 인류의 성화(聖化)라는 하늘의 계획이 완성된다 하겠다.

그리스도의 성탄이 내 안에 받아들여져, 기획적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들 각자에게 큰 의미가 없다 하겠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나는 것!

신이 사람이 된 것은, 사람을 하느님의 자녀되게 하기 위함인 것이다.

신학적 견지에서 보면, 사회의 밑바닥에서 한숨쉬는 불우한 이들은 행운아들의 잘못을 대신 기워갚고 있는 가륵한 희생자인지도 모른다. 이같은 관점에서 볼 때, 행복을 만끽하는 사람은 가난과 피롬에 허덕이는 불우한 이웃에게 빚진 자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바야흐로 화해와 소망의 성탄! 그리고 빛부시게 밝아올 새해!

남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이웃의 불행을 내것으로 여겨 애써 우애의 손길을 뻗을 때 우리는 참 성탄을 맞는 것이 될 것이다.

◆산타도 미녀는 좋아—NBC—TV의 크리스머스특집 프로에 출연한 코메디안 밀튼·버얼이 산타클로스로 분장한모습. 왼쪽은 여배우 잰·스메크

구운 오렌지에 진저브레드, 플럼푸딩…

各國의 전통음식

눈내리는 스웨덴에서부터 태양이 내리쬐는 멕시코에 이르기까지, 각 나라마다 각기 다른 음식으로 크리스마스를 맞이한다.

스웨덴에서는 라이스·퍼리즈, 산타루치아·링으로, 독일에서는 알몬드로 속을 넣은 파인콘케익으로, 덴마크에서는 시나몬, 알몬드, 생강등을 넣어만든 쿠키로, 그런가하면 영국에서는 구운 오렌지, 플럼·푸딩, 푸루트케익등으로 크리스머스를 즐기고, 프랑스에서는 부드러운 스폰지케익, 미국에서는 스타핑을 넣은 구운 터키로 즐긴다.

한편 그리스에서는 동전을 넣어 빵을 구운후, 밤중에 빵을 잘라 동전이 든 빵조각을 가진 사람에겐 행운이 온다는 전설이 있다.

크리스머스 전통음식중 하나인 진저브레드를 이용, 식탁장식을 겸한 진저브레드 포리스트 만드는법을 소개한다.

바삭바삭하고 맛있는 진저브레드·트리를 몇개 만들어놓고, 그위에 설탕을 뿌려놓으면, 눈내린 멋진 삼림이 된다.

나무들은 2개의 납작한 진저브레드트리의 위, 아래를 각각 잘라 서로 엇갈려놓으면 넘어지지않고 반듯이 서게된다.

즉 만드는 법은 큰 그릇에 설탕, 버터, 마가린, 밀가루 각각 4분의3컵씩과 소다, 갈은 생강 각각 1ts, 갈은 시나몬과 너트메그 각각 2분의 1ts씩을 섞는다.

여기에 뜨거운 물 2ts에 풀은 인스턴트커피 2ts을 설탕혼합물에 섞는다.

밀가루 3.25컵을 차츰 섞어 적어도 3시간이상 차갑게 둔다.

트리는 3가지크기 즉 큰것은 27센티미터, 중간것은 18센티미터, 작은것은 10센티미터높이로 만든다. 우선 큰것은 밀가루덩어리의 반을 4분의1인치두께, 12x15인치의 넓이로 밀어 패턴을 놓고 모양대로 잘라 2개의 트리를 만든다.

중간것, 작은것도 모두 같은 방법으로 잘라놓고 325도의 오븐에서 13~15분간 끝이 황금색으로 변할때까지 구운다.

그다음에 꺼내놓고, 뜨거울때 사진대로 하나는 중간 아랫쪽을 하나는 중간 윗쪽을 잘라 서로 엇갈려 붙인다.

이 양으로는 3개의 트리가 만들어지는데, 다 만든후에는 설탕을 뿌려 눈나라를 연상케 만든다.

◆설탕가루를 뿌려 눈나라를 연상케하는 진저브레드·포리스트.

❀<크리스마스 풍습들>

세계의 명절

인류의 명절 크리스마스!

그리스도교의 교내축일을 벗어나 5대양 6대주의 인종을 초월한 세계인 전체의 최대명절인 12월25일. 그 풍습의 유래를 살펴봄도 뜻있는 일일 것이다.

(1)크리스마스란 뜻

크리스마스의 원뜻은"그리스도의 미사"(Christ es Mass), 즉 "구세주의 제사"라는 중세 가톨릭 용어에서 나온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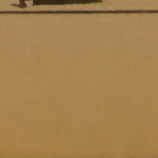
크리스마스가 12월25일로 정해진 것은 예수의 생일이 겨울 어느날인지 분명치 않아, 로마시대 연중 최대축제였던 「농신제(農神祭)」를 그대로 성탄일로 바꾸어 기념하는 것이다.

성찬, 선물교환, 촛불켜기등의 크리스마스 행사는 이 농신제의 행사를 받아들인 것이다.

(2)산타클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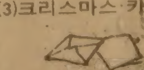
8마리의 뿔사슴이 이끄는 썰매를 달려 붉은 옷, 고깔쓴 수염이 긴 산타 할아버지가 커다란 망태에장 각, 초코렛등 어린이은 난감을 가득 싣고, 크리스마스·이브에 온 세계 어린이들 꿈길을 누벼와서는 동심의 소망을 채워 주는 선물이야기는 아름다운 풍습으로 전해오고 있다.

이 산타할아버지의 기원은 약 700년전 니꼴라오성인(소아시아 리마의 주교)에서 비롯된다. 니꼴라오 주교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막대한 유산으로 자기 교구내 가난한 이들을 도왔으며, 특히 성탄밤에 몰래 불쌍한 집들을 찾아가 들창으로 살짝 필요한 물건, 돈들을 던져넣고는 숨어버린, "오른손이 하는선한일을 왼손이 모르게"한 그리스도정신에 따른 자선



이 산타클로스 전설의 기원이며, 17세기에 이 풍습이 네델란드인에 의해 미국에 건너가 "산타클로스"라고 불리게 됐다.

(3)크리스마스·카드



성탄때마다 우편을 통한 우정교환의 풍습 크리스마스카드는 1849년에 생겼다.

영국의 헨리·콜이 화가 요셉·컨들에게 부탁하여 그리게 한 명함 크기의 석판카드를 친구에게 보낸것이 최초의 크리스마스·카드이다. 이것이 점차 보급되었고, 1870년대 이후 각국의 우편제도가 편리해지면서 세계적으로 널리 유행되기 시작했다.

그뒤 미국에 널리 퍼져 일반화 되었다.

(4)크리스마스·트리

성탄나무는 역사깊은 비화를 지니고 있다.

이 풍습은 8세기 독일에 그리스도교를 전한 선교사 보니파시오 성인이 북유럽의 지혜와 군사를 관장하는 「오딘」신에게 해마다 동짓날 무렵에 사람을 잡아 바치는 악습을 없애기위해 인류의 구원 위해 강생하신 구세주에게 바치는 물

건을 매단 전나무를 세우게한대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그후 16세기에 루터가방안에 나무를 세우고 촛불을 켰고, 18세기에는 더발전하여 갖가지 방울과 장난감을 달았다.

이 나무의 풍습은 19세기 전반에 프랑스로 전해지고, 영국에는 빅토리아 여왕시대에 전해졌으며, 19세기 후반 미국으로 건너왔다.

(5)말구유(성탄셋트)

「잔 꽃송이」의 저자로유명한 수도원 창설자 프란치스코·아씨지 성인이1223년에 첫번 크리스마스를본떠, 성탄신심(信心)을 자아내게 하기 위해 이탈리아 아씨지땅의 그렛치오성당에 베들레헴마굿간을 재현한 모형을 만든것이 크리스마스·셋트의 기원이다.

성탄분위기의 조성을 위해 오늘날은 전세계의 거의 모든 그리스도교회에서 성탄셋트를 장치하며, 백화점 쇼오·윈도우나 열성신자 가정에서도 말구유·예수아기·성모마리아·성요셉·양지기·양·3왕(동방박사들)·천사·큰별등의 모형을 배치한다.

(6)선물버선

뻬치카나 난롯가에 크리스마스때 스타킹을 걸어두는 것은 네델란드의 성탄풍습이 미국에 건너와서굳어진 것이다.

처음에는 나막신이었 다가, 훗날 스타킹(긴 양말)으로 바뀌었다.

산타클로스는 크리스마스·이브, 아이들이 잠든사이에 찾아와서 이 스타킹에 선물을 넣어준다고 한다.

(7)크리스마스 실

결핵퇴치나 불구아 구호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우체국에서 파는 크리스마스·실운동은 1904년 덴마크 서울 코펜하겐의 우체국장 아이날·홀벨씨가 아동요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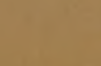
원 설립기금을 위해 창안해낸 것이 점차로 세계에 보급되었다.

(8)크리스마스 캐럴

크리스마스 애창곡 으로 대표적인 것은 「그 어리신 예수, 눌 자리없어」, 「고요한 밤, 거룩인 밤」, 「징글벨」, 「화이트 크리스마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루돌프 사슴코」, 「북치는 소년」, 「장식하세」등을 꼽을 수 있다.

명곡 「고요한 밤」은1819년 오스트리아의 신부 요셉·모어가 가사를 짓고, 프란츠·그룹배가 작곡한 것이다.

「그 어리신 예수」는 종교혁명가 마르틴·루터가 5명의 아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이브에 트리장식을하다가 아들들이 성탄노래를 지어달라고 조르자, 지어낸 노래로 전해지고 있다.



(9) 성탄요리

크리스마스에는 특별한 요리를 만들어 먹는다.

교회행사를 끝내고 돌아와 디너로 즐기는 요리에는 영국과 미국의 7면조, 미국의 크리스마스케익, 프랑스의 로스트 치킨과 장작모양의 케익인 "부스·드·노엘", 오스트리아의 양고기가 대표적으로 알려진 크리스마스 음식이다.

스웨덴서는 식구들이 모여앉아 "덩킹·송"(국물 적어먹는 노래)를 합창하며 햄이나 소시지를 먹으며, 빵조각을 끓는 남비속 국물에 적어먹는 풍습이 있다.

벨기에에서는 밥상에 사과를 따란종이로 싸든지, 큰 감자를 빨간 종이로 싸서 올려놓고, 그 위에 초를 얹으며, 밑에는 솔가지를 금실로 얽어맨다. 그리고 나무토막 반쪽을 얹어놓은 것같은 모양의 케이크를 나누어 먹는다.

왕중왕, 빛들의 빛 누리에 동튼다.

— 성탄시 —

싼타클로스

박 옥 선

바람 따라
별과 달이 휘감기는 구름 위
C. N. Tower
그 고고(孤高)한 휘파람 끝에
걸어놓고 싶은
아가의 꿈
"커단 버선."

천년(千年), 천년을 실려온,
이방인으로 태어난
에페소인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서간
"이제는 님 안에 한 지체 되고,
거저 주는 은총을 받는"
그 심오(深奧)한 계획을
차곡 차곡 담고 싶은
"커단 버선."

올해에도
싼타클로스는 와 주실까.

12월 밤의 한 제상(祭床)
손을 포개는
마음은
아스라히 흔들리는
신기루의 바람 잡는
먼 카라반의 등불.

별은 흐르고
바람은 가고
이스라엘로 향한
회귀(回歸)에 흔들리는
외로운 지(知)와 사랑은
사방에 가득 주문(呪文)을 불이는데,

올해에도
싼타클로스는 와 주실까.

휘휘로이 바람 따라
빗어 올린
성탄나무 꿈 한자리,
지금도
생생한
인자(人子)의 메아리.

비롯음의 말씀대로
"주의 성탄"
노엘 노엘,
큰 별이 흘러
온 누리 목동의 나팔소리
2000년 다듬어진 명기(名器)로
다시금
울리는데,

올해에도
싼타클로스는 와 주실까.

"메씨아"의 대곡(大曲)
억겁(億劫)의 바람을,
구원의 약속을 들추는
"아멘"의 합창은
화사한 깃을 펴도
잊었던 목소리,
잊었던 손길을 더듬는
한줌 흙으로 돌아갈
지향(志向) 잃은 "이브"의 유산이 미워지는 바람따라
저무는 날.

올해에도
싼타클로스는 와 주실까.

그림 : 장 연 탁

〈성탄꽁뜨〉

그밤의 사건

프랑쏘아 · 꼬뻬 검돌 옮김

루씨엥·드·엥은 자기의 마지막 백프랑이 도박물주(物主)의 손에 넘어 갈때 이 승부를 위해 모은 전재산을 몽땅 빼앗긴 테이블 앞을 떠나 멍한 머리와 힘겨운 걸음으로 쏘파에 털썩 파묻혀 앉아버렸다.

그는 잠시 자기의 꽃다운 청춘을 좀먹은 이 도박장을 훑어보았다. 전등불에 비친 얼굴이 눈에 사물거렸고, 댕그렁거리는 금전소리도 귀익은 소리였다.

"이제는 다 잃고 마지막이구나"생각하니 갑자기 농서랍에 있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그리도 요긴하게쓰시던)피스톨이 문득 머리에 떠올랐다. 너무도 지친 그의 신경은 그만 그를 깊은 잠속에 빠뜨려 버렸다.

—깨어서 시계를보니 겨우 반시간밖에 잠들지 못한 것이었다. 그는 밤바람이 쐬고 싶어 기지개를 켜며 일어섰다. 시계는 11시 45분이었다.

그제야 그는 이밤이 바로 크리스마스·이브(12월 24일밤)이라는 것을 알았다. 문득 어렸을때의 이날밤, 굴뚝 옆에 구두를 놓고 있는 애티나는 자기 모습이 영화필름처럼 눈앞을 스쳐갔다.

바로 그때였다. 험스름한 푸른 망또를 걸친 늙은 도박귀신 〈드롱스키〉가 그의 가까이에서 텁수룩한 흰 수염안에서 중얼거렸다.

『五프랑짜리 한잎만 빌려주시오. 이틀 내리 도박구경을 하였는데, 17 번이 한번도 안나왔소. 믿지 못하겠다구요? 그러나 나는 인젠 열두시 정각 치면 곧 이 번호가 나오리라고 믿소.』

루씨엥의 어깨가 으쓱올라갔다. 이 도박장에 내야할 세금조차 못 낸 그였다. 그는 열망에 가서 모자와 망또를 집어들고 다급히 층층대를 내려왔다. 네시간 동안 도박에 취해 그 안에 있는 동안 밖에는 눈이 펑펑 쏟아져서 길이고 집들까지 하얗게 덮여있고, 청청한 하늘에는 추위에 떠는 별들이 총총히 박혀있다.

파산당한 이 도박꾼은추위에 와들와들 떨고, 절망에 사로잡힌 그의 머릿속에는 서랍 안에 웅크리고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피스톨 생각이 간절하였다.

그러나 몇걸음 못가서 가슴아픈 광경앞에 그의 발은 멈추었다. 어느 부잣집 대문앞 벤취에 대여섯살되어 보이는 소녀가 누더기를 입고 눈속에 쓰러져 있었고, 매달린 작은 발에서 벗겨진 신은 땅바닥에 내동댕이쳐져 있었다. 루씨엥은 기계적으로 손을 주머니에 넣어 보았으나 동전 한푼 없어 사동에게 팁도 주지 못했던 것을 기억하였다. 동정심이 복받쳐 그는 하룻밤만이라도 데려다 재우려고 허리 굽히어 아이를 안아 일으키려 하였을때 신발 속에 반짝거리는 루이금화(金貨)를 발견하였다.

필경 이것은 어떤 동정심 많은 여인이 지나 가다가 메씨아의 뜻을 받들어, 이 아름다운 선물을 함으로써 어린 소녀에게 희망을 주고, 하느님의 신의를 보여주려고 한 것일 것이다.

루씨엥은 소녀를 깨워말해주려고 하였다. 그때 그의 귀에는 "17번이 안나왔소. 열두시 정각이면 이번호가 꼭 나올 것이오." 하던 노인 도박귀신 〈드롱스키〉의 목소리가 들렸다.

순간, 대대로 훌륭한 장군을 낸 명문에서 나온 이스물세살의 청년 루씨엥에게는 무서운 꾀가 떠올랐다. 그는 떨리는 손을 내밀어 신 속에 있는 돈을 집어들고는 쏜살같이 달려가 도박장문을 박차고 들어가 막 열두시를 칠때 돈을 테이블 위에 내밀며 "17번!" 하고 소리쳤다. 과연 십칠번이 맞아나왔다. 다음은 72 루이를 댔다. 그것도 맞아나왔다. 그의 앞에는 금화와 지폐가 산더미 같이 쌓였다. 큰 운이 루씨엥에게 틔였던 것이다.

몇판 안가서 초저녁에 빼앗긴 돈을 다 찾았다. 이제는 한판에 200, 300루이를 놓았다. 그는 몇년동안에 몽땅 낭비한 자기 재산을 복구하려 들었다.

그의 망또, 저고리, 바지, 주머니마다 돈으로 가득 차고 심지어는 모자, 파이프, 손수건에 까지 금전을 채웠다.

다만 그의 눈앞에서는추운 눈속에 잠든 소녀가 떠나지 않았다.

(한시를 치면 꼭 가서 데려다가 딸같이 키우고 사랑하여, 돌보아주겠다) 고 결심하였으나 15분, 30 분 45분이 지나도 이 지옥같은 도박장을 떠나지 못 했다.

도박물주(物主)가 파산하는 바람에 신이난 루씨엥은 순간 잊었던 생각이 되살아 오면서 펄쩍 뛰며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을헤치고 층대를 굴러 내려 그 대문앞 벤취까지 달음질쳤다.

"아직도 있었구나" 하고 소녀의 손을 잡으니 얼음같이 차다.

"어릴 때는 잠도 많은법이야‥"

혼잣말을 되뇌던 그는 깨지 않게 가만히 안아 녹혀주려고 자기 품안에 망또로 꼭 싸안았다. 그리고나서 소녀 가까이 자기 얼굴을 가져갔을때 소녀의 반쯤 열린 유리알같은 눈은 움직이지 않았다. 행여나 하면서도 의심에 못견디어 루씨엥은 자기입을 소녀입술 옆에 대보았다. 얼음장같은 촉감뿐—아무런 반응이 없다.

루씨엥이 소녀에게서 빼앗은 돈으로 한 재산 따기에 혹했던 동안 이 어린생명은 집없이 외로이 죽은 것이다.

그는 괴로움에 목이 메어 그만 소리지르다가 눈을 떴다. 꿈이었다.

그것은 험한 꿈이었다.

열두시 조금 전에 잠든 그를 불쌍히 여긴 사동이 도박장에 그대로 자게 두었던 것이다.

루씨엥은 시계를 전당잡힌 돈으로 목욕하고 점심을 먹고, 아프리카주둔 의용군을 지원하여 외인부대에 종군하였다.

오늘날 루씨엥은 계급이 중위이나, 얼마 되지 않은 월급을 절약하여 어려운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다.

어느날 그는 「알제」의뒷길을 지나가다가 길에 잠든 소녀의 손에 루이금화를 쥐어주는 것을 그의 전우가 보았다고 한다.

◇마굿간의 예수 탄생장면 (진영자씨작).

메리 크리스마스

◆산타와 소년—아직도 많은 어린이들은 산타할아버지에게서 선물 받기를 원한다. 쇼핑센터마다 마련된 산타코너엔 벌써부터 차례를 기다리는 어린이들의 행렬이 길다.

＝ 토론토 독자 황상규씨(전 만화가)의 만평 ＝

〈위니펙 재봉사에게 보내는 편지〉

대한의 딸들에게

우선 이번 위문단을 조직하시어 딸들을 만나 볼 수 있도록 주선해 주신 한국일보사에 감사드립니다.

물심양면으로 이번 위문단에 협조해주신 분들에게도 고마움을 느끼며 한 어머니로서 이글을 드립니다.

옛부터 여자란 몸은 약하지만 마음만은 강하다고 들었읍니다. 여러분들이재작년부터 이곳 캐나다에오신것은 지상을 통해 듣고, 또한 생활 실태등을 알고 있었읍니다.

아름다운 가정속에서 자라신 여러분들, 나는 여러분을 참으로 자랑스럽고대견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무뿌리는 민족이요, 나무대는 국가이며 잎과 꽃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행복이란 불행을 극복하는데, 그리고 시대발전에 부응, 사회참여하여 긍지를 갖고 살아가는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서 나옵니다.

주먹밥을 펼쳐놓고 서로나누어 먹으며, 밥을짓는 수선속에 정분이 두터워진다고 하나 한번도 여러분을 찾지 못한것이 미안할 따름입니다.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풍부한 잠재력과 인내만이그 가능성을 높게 해줍니다.

여러분의 끈기 그것은 내일을 살찌게 할 수 있는삶의 도가니입니다.

여러분의 실정은 우리 5만 캐나다교포가 다 잘 알고 있읍니다.

장한 딸들이여!

강인한 인내와 근면성을서로 배워 상의하고 지혜를 가꾸어 즐거운 보람을 찾아보세요.

나는 1남6녀의 58세의어머니로서 딸 둘은 출가 시켰고 나머지 딸들도 혼기에 차 있읍니다.

인생길은 누구에게나 평탄치만은 않습니다. 나의 좌우명인 푸쉬킨의 시 한 구절을 벗삼아 살아왔읍니다.

◇ 이상은 여사

「오늘에 슬픔과 괴로움은 순간에 사라지고 참고 견디고 나면 내일에 기쁨을 안겨준다」

여러분 휴가철에 이곳토론토에 오시게 되면 꼭 나를 찾아주세요. 여러분의 어머님 심정과 다를 바 없읍니다. 맛있는 김치는 항상 준비되었으니 부담없이 찾아오시면 여러분의 차디찬 두손을 꼭 쥐어 녹여드리겠어요.

저희 애들 아버지도 딸 많은 자상한 분이지요. 반겨주시며 귀여워 해 주실 것이옵니다.

여러분의 내일에 힘찬새해를 맞으시도록 주님께 기도하겠읍니다.

1981. 12. 27 토론토에서
7남매의 어머니
이 상 은올림

750 York Mills Rd. #203
Don Mills, Ont.
M3B 1W9
(416) 444-3658

한국일보 · 토론토
구독은
533 2361

새주차장 설립예정
타운번영회 파티성료

블루어·스트릿 한인업소 실업인들로 구성된 코리아타운번영회(회장 함병섭) 성탄파티가 지난 16일밤뉴서울식당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함병섭 회장

작년 파티때와 같이 이번에도 이상훈 총영사와중국계 시의원 잉·호프, 토론토시장선거 입후보자였던 토니·오도나휴 시의원과 관할 14경찰국 로버트·프레밍(수퍼인텐던트)국장이 코리아타운(제 1구역)담당책임자 잭·라이드씨및 던컨·윌슨씨등 4명의 간부와함께 참석, 한국 음식과 오리엔탈·팔레스 쇼단의 쇼를 즐겼다.

변의섭 번영회총무와 원재훈 회원이 사회를 본 파티에서 함병섭 번영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번영회는 회원 이익만 추구하지 않고, 전교민의 편의를 위해 상도의 확립에도 노력한다. 한인회관이 코리아타운 지역으로 이전되도록 영사관의 협조를 부탁한다"는 요지의 뜻을 밝혔다.

함회장은 이날 "번영회 창설의 주역을 맡았고, 발전에 공이 크다"면서 김춘탁 킹스카메라 사장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지난 여름 한국을 방문, 좋은 인상을 받았다는 잉·호프 의원에 의하면 블루어×베더스트에 있는 어네스트·엣 백화점 지하에150대 차량을 수용하는 주차장이 곧 생겨 이 지역 주차난 해소를 돕는다.

국제결혼 갈망하는 중공 젊은이들
정부서는 구속·학대로 막으려 해

수많은 중공 젊은이들이 외국인과 결혼하여 외국으로 이민갈 꿈을 갖고 있지만 중공정부의 개입으로 많은 좌절을 겪고 있다.

한예로 북경대학에 재학중인 스위소 국적을가진 미국 청년과 사랑에 빠져 결혼한 티안·루오루오양은 지난6월 당국에 결혼신청서를 제출하자 안전원들로부터 매를 맞았고 미국 청년은 CIA 스파이로 몰려 큰 곤욕을 치룬 적이 있다.

루오양의 사례는 심하지않은 편인데 중공 젊은이들이 외국인과 결혼할 뜻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중공당국이 이들을 감금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북평정부는 공식적으로 외국인과의 결혼을 금지시키지 않고 있지만 외국인과의 교제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 이유는 중공의 공산당 지도자들은 국제결혼으로 중공의 위신이 떨어지고 품위가 깎인다고 우려하기 때문인데, 상해에 근거를 둔 어느 신문은 "외국인과 결혼하여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려는, 정신이 썩어빠진 중공의 수많은 젊은 여성들이 병들어 가고 있다."고 독자들에게 경고한 바도 있다.

이와같이 국제결혼을 반대하는 사례는 간혹 외교사절들의 중재를 개입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 한예로 미셀·조베르 프랑스 국제무역상은 프랑스 외교관과 약혼한 중공 여인의 석방을 중공당국에 요청한바 있다. 그러나 중공당국은 이 여인을 교화원감금을 언도했고, 실망한 조베르 국제무역상은 공식일정을 포기한채 지난달 귀국해 버렸다.

중공당국의 이같은 조치는 근본적으로 외국인을 믿지않는 경향에 큰 원인이 있으며, 중공당국의 외국인과 결혼하는 중공인들을 이념적으로 타락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예금구좌에 잘못들어온 돈때문에 신세망처
공짜돈 6만달러 쓰고 철창행

은행에서 예금주의 돈이 몰래 인출되는 착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객도 모르는 돈이 구좌에 불어나는 사례도 있으나 잃는자보다 공짜로 얻는자에게 비통할 일이 생긴다.

필라델피아 근교 헌틴돈 밸리에 사는 21세의 제임스 더피라는 백화점 점원이 6만달러를 횡제한후 곤궁에 빠진것이다.

작년 12월9일 자기 구좌에 갑자기 6만달러가 불어난 것을 발견한 더피군은 앞뒤를 가리지 않고 3개월반 동안에 돈을 뿌려 겨우 38달러를 남겼다. 이 6만달러라는 거금이 솟아난 것은 더피군이 자라드 뱅크에 갖고 있던 은행구좌와 번호가 매우 비슷한 필라델피아 저축기금 재단의 구좌로 들어갈 돈이 잘못 입금됐던 때문. 더피군은 단지 착오로 돈을 쓴 정도가 아니라 착오인줄 알면서 남의 돈을 써 버렸기 때문에 지난주 절도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다. 형량이 곧 선고 되겠지만 최고 7년 징역에 1만 5천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되며 가장 힘든 것은 6만달러를 갚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의 변호사는 더피군이 악의없이 돈을 뿌리며 선심을 쓴것이라고 변명하고 있으나 더피군이 발행한 수표를 보면 플로리다에 5일간 여행하는데 982달러, 78년형 포드차를 사는데 4천4백달러, 화장술학원 수업료로 빚진돈을 갚는데 1천6백달러를 썼다. 그리고 친구들 파티에도 돈을 썼고 가장 큰 목돈은 자기가 묵으며 신세를 지고있는 누님집에 3만3천달러를 현찰로 준 것이다. 그 누님은 이 돈으로 밀린 집세, 개스비등을 내고 리빙룸과 식당에 새 카펫과 가구를 들여 놓았다.

더피군을 변명하는 것만으로는 궁색한 변호사는 지라드 은행측의 허술한 처리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펜실배니아주 민사법정은 그 변명을 채택하지 않았다. 잃어버렸거나 잘못 전달된 남의 재산을 돌려주려고 하지 않은것은 도둑으로 간주하는 주법에 의해 누른 것이다. 검사는 "흔히 줍는 사람이 임자이고 잃는 사람은 울수밖에 없다."는 사고방식들이 있으나 어린아이들에게는 통하지만 법에는 그런 말이 안통한다고 더피군에게 동정을 하면서도 못을 박았다.

더피군의 변호사는 고등법원에 상소를 할 예정이다.

◇주의사항에 옷은 입어도 되고 안입어도 된단다. 단 이 해변마을 주민의 손님에 한해서—누디스트들은 일반인의 손길이 닿지 않는 은밀한 해변을 찾기위해 많은 시간과 정력을 쏟는다.

기쁜 소리
444-4011

고마운 분들

안 상 엽

세상의 모든것들이 사람을 위해 있지, 사람이 그것들을 위해 있지는 않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통해 들려주는 예수의 교훈이요 정신이다.

그렇다고 만일 사람이 자기 욕심만을 위해 살게되면 짐승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짐승중에도 지혜로운 짐승은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같이 움직이면서 한 우리속에서 살아 간다.

그런데 자기 바구니를 채우고도 남의 물건을 넘겨보면서 호기심을 갖고 욕심을 부린다면 그것은 도적의마음이요 범죄성을 띤 인간일 것이다. 남의 밭에 있는 곡식과 열매를 쳐다보면서 탐을 냄이란 "노력없는 곡식"을 얻으려는 욕심쟁이요 도둑일 것이다. 그것은 "스스로 돕는자"가 아니라 오히려 이웃에게 손해를 주면서도 도움을 받겠다는 무가치한 사람이다.

이와는 반대로 사람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한다 해도 이웃을 염려하고 돕고 지키는 고마운분들이 있다. "고마운 분"이란 자기중심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사람이다. 평온하고 기쁜곳이라면 찾아가배불리 먹고 마시면서 웃음을 높이 나누는자가 고마운분은 실상 아니다. 오히려 배고픈 자를 이해하고, 눌리고, 갇히고, 괴롭고, 슬프고 소외된 외로운자들을 찾아 손을 펴기에 힘을 쓰고 마음의 따뜻함을 같이 나누는 자가 올바른 신자요 또한 고마운분이 되는 것이다.

만일 예수가 화려한 궁전에서 왕자로 태어나, 법과 권력이 있는 환경에서 영화를 누리고, 명예로운 장례식으로 그 생을 끝냈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인 인간들에게는 친구요 구주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예수의 탄생은 곧 십자를 동반하고 있다. 그래서 성서는 "섬기는자" 혹은 "고난의 종"으로 표현했고, "잔치집에 가는것보다 초상집을 찾아 가는자가 지혜로운 사람"이요, 복받을 사람으로 가르친다. 총과 칼을쥐고 권력과 명예를 얻으려는 자들은 모여 모사를 꾸미기에여 웃에게 "고마운분들"이 될 수 없다.

"고마운분들"은 남모르는 희생과 괴로움을 그 속에 담고 있는 사람으로 남의 유익과 기쁨과 행복을 북돋아 주는 사람들이다. 만일 부모의 수고가 자식을 길러 자기들의 안일과 욕심을 채우려는 노력이었다면 그 자식에게 "고마운분들"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친구나 이웃이 자기의 명예나 권리를 위해 상을 채리고 웃음을 던진다면 그것은 결국 자기만족을 위해더 많은 희생을 이웃에게 요청하는 잔인한 사건이 될 것이다. 예수가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믿고, 나를 섬기라"고 요청했다면, 세상의 그 어느 사상가나, 정치가나, 권력자보다 더 무서운 역사를 남겼을 것이다.

세상에는 남을 해치고 손해를 주는 사람도 종종 있으나, 그 반면에 이웃을 위한 "고마운분"도 있다. 고마운 사람들은 꼭 가까운 사람만이 아니다. "고마운분들"은 물질로 마음으로 정신과 신앙으로 어떤 희생을 가진 자들이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오늘 이 시간에 나와 우리에게 오는 가장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고마운 사건"인 것이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 최고의 희생을 담당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괴로움을 같이 짊어지는 사람만이(同苦), 기쁨을 같이 맛보는(同樂) 사람인 것이다. 한해를 다 보내면서 "고마운분들"을 생각하고, 특별히 이 "기쁜소리"를 위해 150여회나 지면을 허락해 주신 본지의 여러 "고마운분들"께 진심으로 머리를 숙이며, 축복을 간구한다.

(신일교회 담임목사)

LISBON AUTO COLLISION INC.
●토잉써비스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RUST PROOFING
B)533-8507 533-8508
R)439- 6548
이영두, 이건학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THE KOREA TIMES
한국안내광고

캐나다
외환은행
☎ 364-2890
2 FIRST CANADIAN PLACE SUITE 1140
(KING X YORK)

무지개 칼라- 36 NEAPOLITAN DR. 438-4435
•VIDEO 촬영 •wedding
•commercial •wall decors

60 MINUTE PHOTO LAB
●1시간에 모든 현상이 가능
●교포께 특별히 10% 할인해 드립니다.
●프린트 싸이즈(4×6)품질보장
●KNOB HILL FARM DIXIE MALL ☎: 274-4323
50 BLOOR ST.W. ☎: 967-7121

기 타

번역 통역: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203 TOR. M4A 2R1 ☎: 759-9505(5시이후) 통역은 월요일만합니다

ZAP SUREKILLER ☎: 368-9018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래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HUNTS BAKERY
X-MAS 생일, 단체용 CAKE 주문
☎: 769-4347 (던다스 AND 스카렛)

니폰·비데오 많은 한국테이프가 새로구입
주6일 오픈. 1993 DANFORTH AVE. TOR.
☎: 698-0633 하미구씨

PICTURE FRAME WAREHOUSE
각 종 액 자
82A REXDALE BLVD., REXDALE ☎ 746-2120 조 혜 숙

통닭. 오뎅 한국인의 빈대떡, 통닭 전문: 각종 샌드위치 주문환영 ☎: 537-0432 미스타 리

태 권 도

손영수 태권 합기도장:
2188 BLOOR ST. W. 사범: 손영수
(AT RUNNYMEDE써브웨이) ☎: 763-11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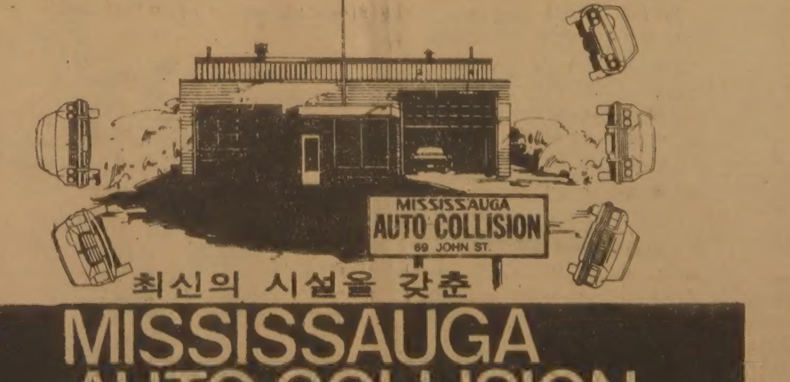
박종수 태권도장(사범 박종수)
719 YONGE ST
☎: 961-7100

임송학 태권도장
교포들에게 반액으로 봉사
1963 WESTON RD. (1층)
☎: 247-7577 (웨스톤×로렌스) 로브로 앞

MARVIN STARR
〈취급종류〉
소형차: ACADIAN, PHOENIX SKY LARK, J2000
중형차: LEMANS, GRAND·PRIX, CENTURY, A6000, FIRE·BIRD RIVIERA
대형차: 스테이션웨곤, PARISIENNE, LESABRE, ELESTRA, PARK·AVENUE, 베트럭, USED·CAR
*Best After Service
*Best Price
264-2311
(PAUL SHIN)
3132 EGLINTON AVE. E.
(Markham × Eglinton)

신 성 우

●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처리
○ 수리중 차 대여
○ 완전한 차체수리
○ 사고차량 Towing Service
○ 페인팅(Oven Bake Finishes)



최신의 시설을 갖춘
MISSISSAUGA AUTO COLLISION
69 John Street, Mississauga, ONT.
Bus.: 275•3131, 3133 Res.: 622-1171
정 창 헌

SAVE! SAVE!
집을 가지신 분들
당신의 히팅을 아껴 보세요.
겨울이 다가 옵니다.
PRE-WINTER SPECIAL
가스 난방 써비스합니다.
※오직 $30.—에 다음 4가지를 해드립니다.
● Vacuum Furnace & Vents
● Oil Furnace Motors
● Adjust Furnace Motors
● Clean Furnace Filter
FOR ONLY $30
연락해서 아끼세요.
☎: 497-1841
MILLER REFRIGEATION
HEATING & AIR CONDITIONING.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0. yr. $8. mo. 구독료 (선금)연 $99. 월$9 영구구독 $500, ISSN03192962, 2nd Class Mail 5248.(416) 533-2361~4

실협뉴스

—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제공 —

실업인협회
20 MOBILE DR.
TOR. ONT.
M4A IH9
☎: 752-7771

정월첫새벽

근 하 신 년

이사 · 임원 일동

이사회 구성완료

그동안 수차례 모임을 가진바 있는 이사선임위원회(위원장 서동준)는 12월20일 그 선임작업을 끝내고, 명단을 발표함으로써 새 이사회 구성을 완료하였다.

이로써 협회의 이사회가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으며, 신년도 제1차 정기 이사회를 오는 82년 1월7일(목)하오6시 인온 더 팍(Inn'on the Park)호텔(1100 Eglinton Ave. E. = Eghinton×Leslie)에서 갖는다.

서동준 위원장에 의하면 이번 이사회 구성인원이증원된 원인은 협회 최대의 과제인 협동조합 설립추진에 있어 보다 많은 회원들의 참여가 요구되므로 이사의 수를 증원하게 되었다고 언급 하였다.

◇이사회 명단

①구 이사(1년조)
김사만, 구연원, 강창흠, 전윤식, 김병선, 문영환, 서동준, 우희두, 이국영, 이병권, 이웅천, 이정수, 장재춘, 전기석, 조정대, 최재오 — 이상16인 —

② 신임이사(2년조)
임철원, 김명정, 함덕상, 김태진, 박경택, 박찬도, 유영갑, 이상철, 고정배, 유영갑(Young), 이춘수, 서준경, 홍사렴, 장추국, 김용규, 장가진, 백경락, 원종필, 조한권, 송재규, 최상수, 이 휘, 박광철, 한천석, 이학현 — 이상25인 —

③ 당연직 이사(집행부 회장단)
차선경, 김이열, 조기연 — 3인 —

— 총44명 — ※ 무순

최초의K.B.A.선전포스터 등장

지난 12월8일 욕(York) 아이스크림의 프랭크 패로우 세일스매네저와 만나 협상한 결과, 새해 1월4일부터 2월말까지 스페샬 지원을 회원들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이는 신 집행부의 K.B.A.회원에 대한 프로모션지원사업의 하나로서 York 아이스크림 1리터짜리를$1.15씩에 공급하게 될것인데, 이것은 홀 리베이트를 받게 되는 것이며, 그 세일가격은 $1.35로서 약39%의 마진이 될 것이라 한다.

욕회사측에서 스페셜 포스터를 제공해 오는데, 이 포스터는 홀 싸이즈의 크기에 최초로 K.B.A. 라는 글자를 삽입하여 제작한다.

협회 차선경 회장은 "신년도부터 실시되는 회원스토어에 대한 프로모션은가능한한 실협의 표지가 들어있는 선전포스터를 필수적으로 사용케할 것이며, 최소한 월 별 2가지 품목이상의 스페셜 지원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빈집털이 도둑성행

요즈음 교포사회의 소식에 의하면, 연말연시 분주한 기간을 틈타, 도둑들이 빈집을 털어가고 있다고 한다. 특별히 스토어를 경영하는 회원들의 빈집을 골라 가면서 침입하여 귀중품및 현금을 털어가는 사례가 빈번하다.

가능한한 집을 비우지 말것이며, 현금이나 보석등 귀중품은 거래은행의 세이프디포짓박스(safe deposit Box)를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현명하며, 항상 예기치 않은 피해를 사전에 미리 예방하는 슬기를 지니도록 각별한 조심을 당부하는 바이다.

〈문예작품공모 입선2등〉

이민, 구멍가게 그리고 조그만「나」

김 영 회 작

대기하고있던 여간수의 안내로 딱딱한 긴의자 하나만이있는 조그만 철창감옥(?)으로 들어갔고, 철컹하며 자물쇠 잠그는 소리를 남기고 그 여자는 사라졌다. 바닥은 차디찬 세멘바닥이었고, 열은 전등불 하나가 천장에 동그라니붙어있는게, 으쓱 추워지며 등에 소름을 끼치게 했다. 주위를 둘러보았다. 옆 의 칸막이안엔 젊은 화장의짙은 여자들이 원숭이 처럼 군데군데 모여서 오히려내 쪽을 이상한 듯 쳐다보고 있는게 아닌가? 난 정신나간 여자가 돼있었다. 감정도, 생각도 없는 그저 머리가 머엉할 뿐이었다. 미쳐 버린다는 말을 아마 이럴 때 내 입장을 두고 한 말인 것같다.

난 심신이 피로하고 지쳐있었다. 푹 쉬고 싶었다. 모든 걸 잊고 포근히 잠을 자고 싶다는 생각 뿐이었다.

「타향살이 몇해던가, 손꼽아 세어보니‥」또다시눈물이 주루루 흘렀다. 참 청승맞고 불쌍한 이민자가 돼버린것 같은 느낌에서였다.

여간수가 샌드위치와 따끈한 차 한잔을 가져왔다. 그제서야 배가 고프다는 걸 알았다그러니까 죄인들 에게 국가에서 공급하는 Free Sandwich를 난 참 맛있게 먹었다고 기억된다.

그럭저럭 피고출두의 시간이 되었나 보다. 역시 같은 여간수의 안내로 이번엔 피고석에 앉게 되었다. 법정은 텅 비어있었고, 얼마전 강도의 재판을 진행했던 그 판사와 나를 체포(?)하러 왔던 사복형사, 그리고 재판의 진행을 녹음하는 법정비서 뿐이었다. 참 우스운 일이었다. 법이라는게 얼마나 무서우면서도 어이없고 우스운 장난인가를 난실감하고 있었다. 사복형사가 판사에게 나를 체포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판사는「다음부턴선한 시민된 입장에서 법정 출두에 협조해 달라」고 애기했다. 난 악이 머리끝까지 올라 있었다.「난 더이상 이일로·법정에 설 수가 없소. 앞으로 또 날 증언대에 서길 원하거든 아예 오늘부터 차라리 감옥에넣어주시오. 난 죽는 일이있어도 다시는 나올 수 없소」

난 때를 부리는 고집장이가 되어 어거지를 쓰고 있는지도 몰랐다. 허지만 나의 태도는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앞으로 혹시 있을지 모르는 실갱이들을 막기 위해선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되었다. 판사는 어이없다는 듯이 안경너머로 날 응시하고 있었다.

한참동안 침묵이 흐른후 판사와 사복형사와 무슨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나즈막히 주고받은 후「재판이 끝났으니 가도 좋다」고 했다. 난 다시 한번 강조했다.「그렇다고 두번 다시 출두명령을 내리진 마시오. 난 나타나지 않을테니까」. 참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아니면 별난 여자 다 봤다는 그런 인상으로 날 쳐다보는 판사와 형사를 뒤로 법정을 나왔다. 영원한 안녕이길 빌며, 강도 만난다는 자체보다 더 지긋 지긋한 곳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 다음날 낯선 여자한테서 전화가 왔다. 어제 재판광경을 지켜본 TORONTO STAR지의 기자인데 나와 만나서 애길 하고 싶다고 했다. 그렇잖아도 화가 치밀고 억울해서 온 신문들에 호소를 해볼까하는 참이었는데 잘 됐다싶어 쾌히 승낙했다. 그 여기자와 만났을때 한가지내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는약속을 받은후 조그만 상점 경영자의 입장에서 강도를 만난후의, 경제적 심리적인 타격과 법정과 경찰측과의 처리등등 많은 부조리들을 내가 경험해서 보고 느낀대로 애기해주었다. 여기자도 동감한다는 태도였고 그다음날 신문한면을 그 문제에 대해서 기사화했고 내가 한 애기 전부를 활자화 해주었다. 그 기사를 읽은 시민들의 반응이 어쨌는지는 듣지 않아서알수가 없었다.

4) 후유증들

예정대로 말썽많고, 신경쓰이던 이 상점을 팔았고, 다시 상점을 샀다. 장사라면 징그러웠지만 아빠를 위해선 부득이한 입장이었다. 나야 그런대로 문젯거리없이 직장을 구할수 있었지만 아빠는 이민초기부터 수년간 다니던 직장을 자진사퇴했으니 다른곳에 다시 말단신입생이 되어서 일을 한다는게 급료문제나 다른 문제들로 보아 쉬운일이 아니었다. 또 몇년간의 상점운영 경험에 비추어 한적한 주택가가아닌 번화한 거리에 있으면 강도만날 가능성이 적고수입면에서도 괜찮다는 결론이어서 아주 신경을 곤두세우고 그간의 경험을 통털어서, 또 조심에 조심을 더해서 구입한 가게였기때문에 매상면에서나 손님들의 드나드는 횟수등이 안심해도 좋을 정도로 괜찮은 장소였다. 결국은 나도 직장을 그만 두고 전적으로 아빠와 둘이서 경영하게 되었다. 그때쯤해선 시동생, 시누이들이 각각 자기나름대로 직장들을 다니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도움을 기대할 수가 없었다.

손님이 심심찮게 들어와서 나 혼자있을 때라도 안심은 되었지만 검은 색안경의 흑인만 보면 그저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내 모습이 굳어지는 것은 나 자신도 정말 어쩔 수 없었다. 날씨가 청명한 날이라도 색안경을 쓴 사람이 들어오면 난 질겁을 하며 쏜살같이 Counter밖으로 뛰쳐나왔다. 들어왔던 색안경의 손님은 어쩔땐 어리둥절한 모습으로 날 쳐다보며 웬일이냐고 묻는다. 난 무서운 마음을 가라 앉히며「너가 색안경을 썼기 때문에 꼭 강도같이 보여서 내가 무서워서 밖으로 나온 것이다.」고 애기하니 그는 껄껄 웃으며 색안경을 벗는다.「널 놀래줘서 미안하구나. 난 강도가 아니니 염려말아라」한다. 그때서야 난 안심하고 다시 Counter로 가서 물건을팔곤 했다.

어떤 사람 하나는 물건을 가지고 와서 돈지불 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도주인인 내가 돈받을 생각을 안하니까 나더러「너 장사 안할래?」묻는다. 그래서「너가 Sun glass를 벗어야만 내가 안심하고 물건을 팔지 안 벗으면 안 팔란다. 색안경쓴 사람은 미안한애기지만 나에겐 전부 강도로 보이기 때문이다」.역시 어이없이 웃으며 이해를하겠단다. 안경을 벗어 날안심시켜 주었다. 한번은 손님들이 죽 줄을 지어 섰는데 한 젊은 사람이 껌을집는 순간 그의 안 포켙에이상스런 금속성이 내눈에띄었다. 순간 난 그건 틀림없는 권총이구나 생각하고 Counter밖으로 재빨리 나와버렸다. 서있는 사람들 전부가 어리둥절 해가지고 날 주시하고 있을때 쿵쿵거리는 가슴을 억제 하며 그 남자에게 말했다.「미안하게 됐오. 당신의 웃안주머니에 무기같은 이상한 걸 본 순간 난 무서워서더 이상 물건을 팔수가 없어서 그랬오」꾸밈없는 나의 진실이었다.

〈계 속〉

한국관
연중무휴
오전11시 ~ 새벽 1 시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봉사합니다.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성심성의껏, 염가로
단체손님 환영.
결혼피로연등 회의실 60석, 각종회의석 준비,
☎: 531-0277
대표 나옥녀 올림

한국일보
광고 문의처
533-2361

O.K. Auto Body
Call 251-9889
Hee-Sam Kim Res. 242-4551
138 SIXTEENTH ST.
M8V 2K1
WE ACCEPT ALL INSURANCE WORK

정기이사회소집공고

회칙 제15조 1항에 의거 82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공고합니다.

— 아 래 —

일 시: 1982년1월7일 목요일 오후6시

장 소: Inn on the Park Hotel
1100 Eglinton Ave. East.
(Eglinton×Leslie)

안 건: 1. 이사장 선출및 선거관리 위원장, 감사위원장 선출
2. 집행부 조직인준
3. 신년도 사업계획및 예산안
4. 기타사항

1981년 12월21일

온타리오한인
실업인협회
이 사 회

온타리오 한인 실업인협회

1982년도 이사선임 명단공고

1981년 11월26일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본 위원회에 위임된 이사선임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구 이사(1년조)
김 사 만, 구 연 원, 강 창 흠, 전 윤 식, 김 병 선, 문 영 환,
서 동 준, 우 희 두, 이 국 영, 이 병 권, 이 웅 천, 이 정 수,
장 재 춘, 전 기 석, 조 정 대, 최 재 오 —1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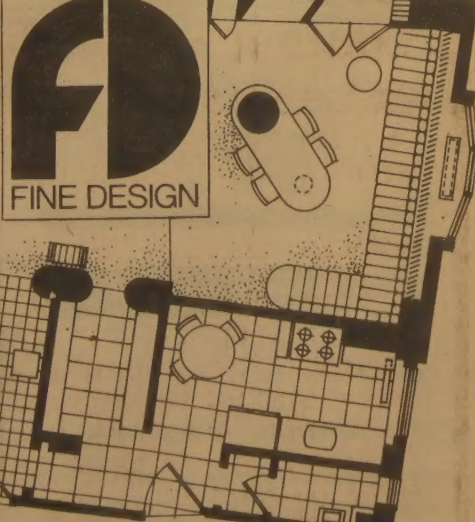
2. 신임이사(2년조)
임 철 원, 김 명 정, 함 덕 상, 김 태 진, 박 경 택, 박 찬 도,
유 영 갑, 이 상 철, 고 정 배, 유 영 갑(Young), 이 춘 수,
서 준 경, 홍 사 렴, 장 추 국, 김 용 규, 장 가 진, 백 경 락,
조 한 권, 송 재 규, 최 상 수, 이 휘, 박 광 철, 한 천 석,
이 학 현 —25명—

3. 당연직 이사(집행부 회장단)
차 선 경, 김 이 열, 조 기 연 —3명—

— 총 44명 — — 무순

1981년 12월21일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이사선임 위원회
위원장 서 동 준

FINE DESIGN

상점 · 음식점 · 사무실 · 교회 · 주택등의 실내 · 외부 디자인및 시공을 담당하며 필요하신 가구의 설계및 제작 또는 선택과 구입을 도와드리며 카펱 · 카텐 벽지 · 페인트등의 색 · 품질 · 선택 · 구입 주문등도 도와드립니다.
676•1173/622•5328 조 덕남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인

출퇴근 하시면서 여아보아 주실분 구구
(스파다이나 블루어 써브웨이 옆)
☎ 921-8102

RESTAURANT동업자 구함
BEER + WINE 라이센스가 있고 새 PLAZA내에 SETUP된 전망이 좋은 고급 식당입니다.
꼭 관심이 있는 분은
281-8218(오후2시~5시 사이만)
로 문의 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HELP WANTED
일본 음식점에 웨이트레스와 키친헬퍼구함.
☎ : 977-9519 195 RICHMOND ST. W.
일본식당마사

닥터 사무실에서 일할분 구함(오후에일할 파타임)
1982년1월부터 시작함.
책임성있고, 참고인 서야함.(이력서를 보내세요)
DR. C. NGAN
2437 FINCH AVE. W. WESTON. ONT. M9M 2E7

접시닦을 학생구함 주3일 근무
☎ : 421-6016

중역간부모집—어느정도 영어에 융통하고 용모 단정한 분. 당회사는 기반이 잡혀있는 무역회사임.
☎ : 962-0019

매매및 양도

이사관계로 급히 매매코저함. 짧은시간의(10 : 00AM~6 : 00PM)GIFT SHOP으로써 은종류, 크리스탈, 밥상보등 여러종류 취급. ☎ : 낮(656-6660), 밤(224-2227)

성능좋은 2 DOOR POP을 급히 구매코자하니 연락바랍니다.
☎ : 239-7267 미세스 신

작은 그로서리 스토아 가정형편상 매매
이층방 포함 렌트 : $650
☎ : 656-7753

도나스및 샌드위치 샾급매
토론토 근교에 위치 뉴 오픈 스토아, 장래성 있는 지역, 비데오 머신으로 렌트카바, 관심있는 분은 연락바람.
☎ : 1-576-1732, 745-3498
미스타. 고

몬트리얼이나 유럽에 있는 빌딩이나 회사를 사는데 투자하시기를 원하시면 연락바랍니다.
4521 PARK AVE. SUITE 320, MONTREAL, P.Q
MONTREAL MANAGEMENT SERVICES Co.
☎ 849-0959, 7374~6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5000다운페이+스탁
☎ 251-1397

사무실·점포 렌트

조용한 사무실 세놓습니다.
(DUPONT & DUFFERIN)
☎ : 533-2364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안내광고 내시는 요령
체크나 모니오더를 동봉하시고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우편접수후 다음날부터 즉시 게재됩니다.
2줄 1칸(50자 이내)
o 3회…$10.00
o 5회…$13.00
보내실곳 : THE KOREA TIMES
(AD Dept.)
1025 Dupont Street,
Toronto, Ontario M6H 1Z7
※크레딧 카드로 신청하시면, 전화접수도 가능
(416) 533-2361

간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 751-9236, 757-2106 홍 진 표

SIGN & GRAPHIC, 건축설계상담시공
바우종합광고회사 637A BLOOR ST. W.
☎ : 535-0647, 465-1722 송 관 현

매매 부동산

복덕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주택전문 ☎ : (B) 752-3111, (R) 298-2546
곽 석 용

미용

스 타 미 용 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킴스 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 : B) 532-7094, R) 248-2437

로 마 노 미 용 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B) 248-2957
(ISLINGTON과 KIPLING사이) (R) 247-6875

소 니 아 미 용 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보석

다이아몬드·스타
공장가격으로 특별우대, 주문에 의해서 보증서 책임
신용본위 ☎ : 537-0432(B), 534-3346(R) MR. LEE

Young'S JEWELLERY ●보석전문가(보석주문, 감정 뉴디자인, 개조, 수리일체) ●도매시세로 최고 품질을 최저시세로 매매(책임보증)☎ B) 284-9325 R) 281-1954

시설및 수리

집수리·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 : 669-5784 미스타 심

TV 출장 수리
☎ : 431-0102 미스타 박

전기시설·보수
CANCO ELECTRIC CO. 각종 냉동기 에어콘
☎ : 270-3118 오현구

KIMBO ELECTRIC CO. :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보수, 가게신설, 용량증설, 전기일 일절 집, 가게, 공장
☎ : (B) 245-5544(PAGING)2790. (R) 255-2161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 : 438-3795 김 영 호

목공소 FineWoodwork
676•1173 769•9468 조 상 민
상점시설및 주택개조·사우나 설치
진열장·카운터·홈빠·책장등 가구제작

식품점

제일식품(구 단풍식품)
●7DAYS OPEN(오전10~오후10시까지)
●배달합니다.
●뒤에 파킹 LOT 마련.
☎ : 532-1054(아리랑식당 옆)

동 양 식 품
일주일 내내 영업. 일요일도 정상영업 합니다.
(화요일만 오후1시에서 8시까지)
●많은 식품을 준비하고 있아오니 계속 이용해 주십시요
주소 : 1662 JANE ST. WESTON, ONT.
☎ : 248-5131 ● 배달도 합니다.

한 국 식 품
본점 : 721 PALMERSTON AVE. 532-2961
영업시간 : 10AM-10PM, 정기휴일 : 화요일
서부 : 1054 ALBION RD. 742-7711
영업시간 : 10AM-10PM, 정기휴일 : 화요일
동부 : 2810 Eglinton Ave. E. 261-6111
월 화 수 : 9AM-10PM, 목 금 토 : 9AM~12PM
일요일 영업 : 11AM~7PM
배달도 가능 합니다.

품질좋고 값싼 **삼복식품** 주7일 영업(오전10시~저녁10시) 금요일은 오전10-밤12시까지 일요일 오후4-저녁9시 ☎ 743-8270

악기점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 : (R) 636-1430, (B) 783-6871
1178 EGLINTON AVE. W. 이 상 철

SOO PIANO SERVICE
조율 수리 SIMP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 : 222-4662 김 수 용

광고는 기업성공의 지름길 입니다.
문의처 ; 533-2361

양장점

샐 터 의 상 실
숙녀복, 파티드레스, 웨딩드레스, 단체주문환영
☎ : 535-4441 606 BLOOR ST. W. 디자이너 MR. 김

현의상실
각종양장 마춤전문 ☎ : 769-1559

약국

SUPER×DRUGS
☎ : 368-2746
조 남 오

돈 밀 약 국
☎ : 429-4117
이 요 한

이삿짐및 운송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라 운 수

인벤토리

INVENTORY
①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②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③ STORE 납세대비 INVENTORY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B) 259-5822, 255-8301 (R) 252-2963 MR. 오

INVENTORY —인벤토리—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에어콘·히팅·냉장고

KIM'S 냉장고, 에어콘
시설 수리일체
☎ 749-3178 김 진 환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판매·수리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환 영

센 츄 리 냉 동 원 종 성, 이 인 식
☎ : 221-5441

Palmer's 시설·판매·수리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 : (B) 746-3840~1, (R) 493-9945 김 봉 균

자동차수리

라지에타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CITY WIDE RADIATOR CO.
☎ : (B) 245-1978, (R) 248-6032 김 용 환

FRED DOMINELLI BP SERVICE
PICK UP & DELIVERY
873 QUEEN ST. W. ☎ : 366-2673, 366-2206

ROGERS GARAGE 변 달 원
자동차 수리 일체 :
20 ROGERS RD ☎ : (R)651-9324 (B) 226-5430

자동차 출장수리(오전및 주말) MR. 박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 : 749-9749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 (BLOOR & 키플링)
☎ : B) 231-6951, R) 742-5408 오 세 호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 595 KEELE ST. TOR. ☎ : 762-3247

FIRST AUTO SERVICE
●메카닉샵 : 튠업, 브레이크, 전기부분
●오토바디 : 토잉써비스, 사고차량 일체수리
1521 QUEEN ST. W. 최이락, 김한호
☎ (B) 532-0200, (R) 533-2157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 : (B) 862-1433, (R) 493-8792 송 참 섭

MASTE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페인팅, 토잉써비스
95 PORTLAND ST., ETOBICOKE.
☎ : 255-2111(B), 828-5001(R)

인쇄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주소록 출판, 도서출판, 기업광고 포스터및 플라이어, 명함, 봉투, 인보이스, 주문서등 인쇄 및 디자인.
고급 4색인쇄. 정밀인쇄. 고급장정.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 : (B) 789-7351, 789-7352
대표 : 이인용

여행사

천 우 여 행 사
720 SPADINA AVE.
928-3335 김현두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536-2155 김창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21A BLOOR ST. W.
535-2377 유지원.

카펫·카텐

카펫 크리닝 : 카펫·소파·체어·자동차시트
☎ : 439-62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M & M 카 펫
카펫, 리노리움, 비닐, 세라믹타일, 벽지, 인서레이션, 무료견적봉사
☎ : 536-7875

럭키 DRAPERY
4141 DIXIE RD. (딕시×버남돌프)
☎ : 625-0698 최 원 보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펫·브라인드
2390 LAKESHORE BLVD. W.
☎ : (B)252-4857 (R)252-6602 유원덕

꽃집

꽃도매상 437 CARLAW AVE. TOR
*각종 CUT FLOWER. 생화. HANGING PLANT. TREE.
*꽃과 화분을 취급하는 스토어
*개업인사. 각종파티. 사무실용. 방문
☎ : 465-8167 (MR. 김, MR. 곽)

정 은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 : 622-8516(B), 279-3719(R) 쉬소피아

크로스웨이(구 클레어리)
꽃 집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남파 김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민트 & 각종플랜트 ●각처수분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 751-5851 이 동 환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875 JANE ST. TOR.
●생화, 조화, PLANTS ● GIFT취급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 주문 배달함.
☎ : B) 769-0609
R) 242-5194 여 정 용

한방원

안 강 용 한 약 건 재 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진풍웅담●녹용●우황청심환●사향●경명주사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보제첩약및 각종병에 대한 처방약
6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465 DUNDAS W.)
☎ : 363-3883, 363-2088 최 호 권

침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상길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922-7090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뜸

서 울 한 의 원
●30여년간 서울에서 한의원 경영
●대한한의사협회장의 한의학발전공로표창장10여회 수상
※진료과목 : 한방내과·신경과·부인과·침구과·산후보약
주소 : 10 Blackfriar Av #216 Weston, Ont. (Kipling×Dixon)
☎ : 247-9347 한의사 : 김 장 석 (황진함)

보 광 한 약 방
30여년의 (부산) 임상경험을 토대로 교민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미력하나마 이바지하기 위해 친근한 상담역이 되고자 하오니 한약및 침구에 대한 격의 없는 상담을 바랍니다.
주소 : 92 Brantwood Drive(스타보로 제너랄 병원근처)
전화 : 439-6717 김 남 집

회계사무소

공인회계사 이 영 세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AUGA 전화 : 273-7300

이경복 회계사무소 766-5639
INCOME TAX & BOOKKEEPING
COMPUTER SYSTEM 3416 Dundas St. W. Suit 206

R.I.A. 김 인 규
ACCOUNTING & TAX 844-0178

YOUNG C. LEE M. B. A. R. I. A. "METRO WIDE"
ACCOUNTING & TAX SERVICES
●8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현CA Office근무중
●BOOK KEEPING & ACCOUNTING
●MANAGEMENT CONSULTING
●INCOME TAX PREPARATION ☎ : 239-6802

사진

KIM'S CAMERA ● 여권사진 즉석 촬영
○각종카메라·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증명사진
619 Bloor St. W. Tor. ☎ : 534-1085 김 춘 환

새한칼라 현상소
●결혼 ●돌사진 ●각종 증명사진 ●회갑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 : 535-7772 630 BLOOR ST. W. TOR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通禁解除 가급적 빨리

정치인不正·權力層형성 不容

全대통령, 國會폐회 리셉션參席환담

全斗煥 대통령은 18일『이번 국회에서 通禁해제건의는 국민에게 희망과 活力을 불어넣어준것』이라고 지적하고『한국적 특수상황을 고려해 정부도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역사적인 通禁해제가 이뤄질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全대통령은 이날 영부인 李順子여사와함께 제108회 정기국회 폐회에 즈음해 汝矣島의사당 로텐더홀에서 열린 리셉션에 참석, 국회의원들과 약30분동안 환담하는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全대통령은 또『정치지도자들의不正은 반드시 없어져야 하며 권력층의 형성은 이를 용납할수없다는 것이 나의확고한信念』이라고 거듭 밝히고『法을위반했을때는 地位高下를막론하고 法의制裁를 받아야하며 이렇게될때만이 국민和合을이루고 共産化를 막을수있으며 경제도 튼튼해진다』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이번 정기국회가 만족스럽게 운영돼 새로운 國會像이 잘 정립 됐다고 생각한다』고 치하하고『앞으로 국회는 국민화합을 바탕으로해 國力신장을위해 창의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對話가 이루어지고 정책이제시돼야 할것이며 상호충분한 대화를통해 정책을 결정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말했다。全대통령은『모든국회의원은 單任정신으로 일해야하며 人氣에迎合하다보면 나라도 망하고 개인도망한다』고 지적하고『특히 국회의원이 인기에 영합하는 것은 선거구민을 속이고 배신하는것으로 현명한국민들도 이를용납치는 않을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리셉션에는 兪泰興대법원장 南悳祐국무총리를 비롯, 정부次官級이상의 인사등 3府요인과 各界대표, 駐韓외교사절등 7백여명이 부부동반으로 참석했다。

◇81年 市道別 땅값상승률 (단위 %)

地目 / 市道別	平均	田	畓	垈	林野
平均	7·51	6·86	7·39	8·[illegible]	5·99
서울特別市	3·56	17·83	19·45	2·7[illegible]	11·96
釜山市	6·81	8·72	11·28	6·61	9·91
大邱市	4·05	8·51	4·12	3·97	0·21
仁川市	11·15	15·02	16·72	10·19	12·69
京畿道	9·33	8·18	8·48	10·16	7·45
江原道	5·91	4·43	3·55	7·24	7·37
忠淸北道	7·42	7·13	6·85	8·63	5·64
忠淸南道	4·85	4·33	3·56	5·60	5·43
全羅北道	7·11	6·22	7·43	8·17	2·33
全羅南道	13·87	11·75	11·54	16·70	10·48
慶尙北道	4·31	3·34	4·53	4·99	2·63
慶尙南道	9·10	6·97	10·10	10·21	4·99
濟州道	6·71	4·36	0	10·33	3·67

땅값 계속安定勢

작년 평균 7·51%上昇

전국 땅값상승률이 지난1년동안(80년10월1~81년10월1일)평균7·51%상승에 그쳐 계속 안정세를 나타냈다。이같은 상승폭은 건설부가 매년 땅값을조사하기시작한 지난75년이래 최저수준이며 거래도 극히 한산했던것으로 밝혀졌다。지난 1년동안의 전국물가상승률이 도매 18·9%, 소비자 19·8%였으므로 81년중의땅값은 계속된 부동산경기침체로 인해 실질가치가 떨어진것으로 평가된다。

19일 건설부가 서울등 6대도시와 44개市、1백32개郡을대상으로 조사한 지난10월1일현재 전국 地價變動率에 따르면 1년전에비해 땅값이 오른것은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일부지역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거의가약·보합세를유지했다。

波汎국민적抗爭 계속

농민도 合勢…農産物 出荷거부

大主教 "바웬사釋放해야 軍政과 대화"

【바르샤바19日AP聯合】폴란드계엄군당국의 계속적인 무력탄압에도 불구하고 실레지아 탄광의 광부들은 광산을 계속 점거하고있고 폴란드농민들은 계엄당국에 저항하여 농산물출하를 거부하고 있는것으로 19일 알려졌다。

검열을 전제로 보도하고있는 바르샤바의 AP통신기사는 아직 레흐·바웬사의 거취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요셉·글렘프 폴란드 대주교는 야루젤스키수상의 면담요청에 대해 바웬사가 참석하지않는한 야루젤스키수상을 만날수없다고 말했다고 전하고있다。

【바르샤바·워싱턴18日AP聯合】16일밤 폴란드 남서부 카토비체의 부예크 탄광에서 발생한 계엄군과의 충돌사고로 광부7명이 사망했다는보도는 폴란드전역에 커다란충격파를던져 수도 바르샤바에서 17일밤 시위자들과 계엄군간에 충돌사고가 발생하는 등 군부통치에 대한 항쟁은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계엄군의 발포로 광부7명이 숨졌다는소식에접한 바르샤바시민들이 17일 초저녁부터 간헐적으로 승리의광장에 집결하기시작해 국가를부르거나 무릎을꿇고 기도를올리자 보안군은 즉각 광장일대를 차단하고 곤봉과최루탄세례로 강제로 해산시키려함으로써 충돌사고가 일어났다。이와함께 수대의 앰뷸런스가 광장을떠나는것이 목격됐다。

炭鑛충돌서 이틀새 66명死亡

【빈(오스트리아)19日UPI聯合】폴란드 계엄군은 노동자들의 파업과 저항이 계속되고있는것으로 알려진 카토비체성에서 지난16~17일 이틀사이에 10명의광부를 때려죽이고 다른56명을 사살한것으로 폴란드자유노조가 여행객들을 통해 서방측에 보낸 보도로 19일 밝혀졌다。

알베르트·브랜드와 베트·보즈라고 신원을밝힌 2명의 네덜란드 트럭운전사는 대폴란드원조물자를 싣고 지난17일 폴란드남부의 카토비체성에 도착, 일단의 자유노조간부를 만나보고 18일동서독국경지대의 헬름슈테트에 돌아온후 기자회견을통해 폴란드계엄군의 노동자사살 내용을 전했다。

이 두 운전사는 그들이 카토비체성에 당시 자유노조간부라고 신원을 밝힌 3명의 노동자가 접근, 지난16일 채광작업을 거부, 파업중인 노동자가운데 10명이 맞아죽고 이어 17일 연좌농성중이던 56명이 사살된것으로 전했다고 밝혔다。

두 운전사의 이같은 소식은 카토비체성에서 있은 유혈충돌에서 7명이 사망했다고 밝힌 폴란드 당국의 공식발표와는 모순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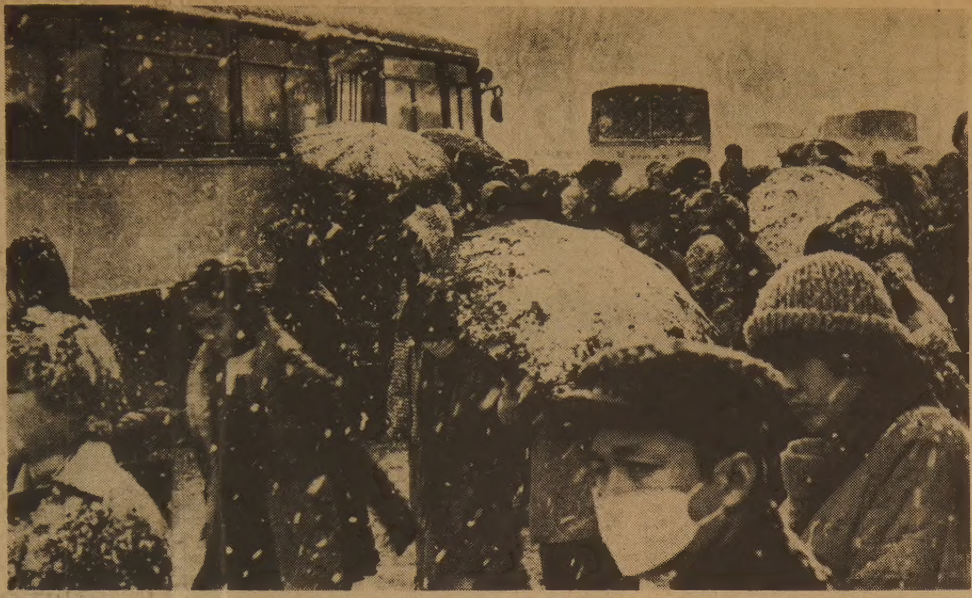
또한 적십자당국도 카토비체성에서 당국의 공식발표보다 더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밝혔다。

離任 멕시코大使에 全대통령, 勳章수여

全斗煥 대통령은 19일 상오 청와대에서 프란시스코·하비에르·알레호·로페스 駐韓멕시코대사(일본常駐)로부터 離任예방을 받고 修交勳章光化章을 주었다。

이자리에는 盧信永외무、金鍾煥총무처장관이 배석했다。한편 대통령영부인 李順子여사는 같은 시간에 알레호 대사부인을 접견하고 환담했다。

생명의 말씀
CITY-TV : 채 널 79
케이블 7
일요일 8 : 30~9AM
MTV : 채 널 47
케이블 4
목요일 12 : 30~1PM



◇버스도 엉금엉금 함박눈이 펑펑 쏟아진 19일 서울시내에서는 눈이 얼어붙는 바람에 차들이 기어다녀 곳곳에서 교통지옥이 빚어졌다。정류소마다 귀가인파가 몰려 버스를 기다리느라 혼잡했다。【서울光化門에서】

호남·중부 大雪펑펑

뒤따라 寒波…23일까지

金浦공항등 한때 폐쇄

서울을 포함한 중부내륙지역과 일부 해안에 큰눈이 내렸다。19일아침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은 이날 하오 5시 현재 17·5cm가 쌓여 지난 69년2월1일의 적설량 28·6cm와 81년1월1일의 19·2cm에이어 지난12년이래 3번째의 적설량인데 눈이 계속내리고있어 이날하오 늦게쯤에는 20cm를 넘어설것같다。서울에 하루동안 가장 많이 눈이오기는 지난1922년 3월24일의 31cm。

서울17·光州2·5cm 中部·嶺西에 주의보

이날 경기·중부·서해안 지방에 집중적으로 내린 눈은 하오5시현재 仁川9·5cm、水原5·5cm、全州7·5cm의 적설량을 보이며 대설로 변했다。

이 눈으로 金浦공항이 한때 폐쇄됐으며 일부지역의 고속버스、연안여객선등의 운행이 지연되거나 중단됐다。

한편 치안본부는 교통경찰비상근무령을 내리고 설화예방에 만전을 기하라고 긴급지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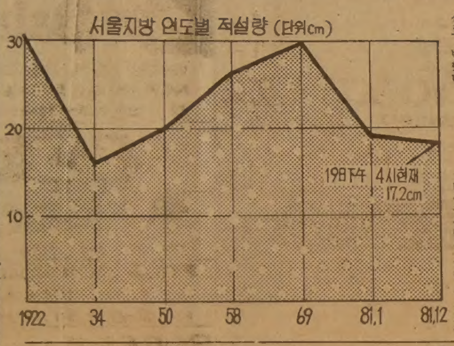
중앙관상대는 이날 낮12시를기해 서울 京畿 江原도의 영서지방、忠淸 湖南내륙지방에 예상적설량 10~20cm의 대설주의보를 내렸다。

관상대는 발해만서쪽에 중심을 두고 우리나라서쪽 상층까지 형성된 차가운 저기압의 영향으로 20일아침까지 계속 눈이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관상대는 이 저기압이 대륙성고기압에밀려 서서히 물러가고 있기때문에 전국적으로 기온이 내려가면서 눈오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20일 아침최저기온은 영하8~영하3도。추위는 22일까지 계속되겠다는 관상대의 예보다。

관상대는 이에앞서 19일상오8시를 기해 서해 남부및 남해 서부해상과 울릉도근해에 폭풍주의보를 발표했다。예상풍속은 10~13m、예상파고는 3m。



비닐하우스 農家에 雪禍예방토록 당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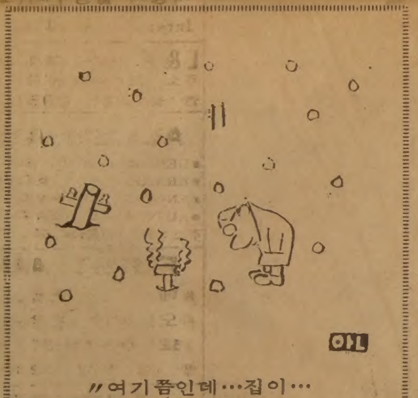
한편 農水産部는 19일 전국의 비닐하우스농가에 설해예방을 지시 ▲비닐하우스 지붕위에 쌓인눈을 빨리 쓸어내고 ▲짚섬을 두껍게 덮어 비닐하우스 보온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19일하오5시 현재 각지방의 적설량은 다음과 같다。

(단위 cm)

▲서울=17·5 ▲仁川=9·5 ▲水原=5·5 ▲春川=3·1 ▲光州=2·5 ▲木浦=3·6 ▲大田=5·5 ▲淸州=2·7 ▲瑞山=3·5 ▲大關嶺=3·8 ▲全州=7·5 ▲秋風嶺=2·1

社會漫評



〃여기쯤인데…집이…

7艦隊 구축함 韓半島에 急派

北傀軍事훈련 對備

【東京19日=宋孝彬특파원】요꼬스까(橫須賀)에 기항중인 미7함대의구축함이 19일 한반도해역에 긴급출동했다。

긴급출동한 미7함대의 전함은 구축함 타워즈(3천70톤)와 프리게이트함 로크우드(3천11톤)로 북괴가 휴전선근처에서 대대적인 군사훈련을 벌이고있음에 대비하여 긴장이 조성되고있는 휴전선근처의 동해안에 출동한것같다고 19일 외교소식통이 밝혔다。

미7함대의 함정이 연말휴가와 경비를위해 지난17·18일 모항인 요꼬스까지에 귀항하자마자 급히 다시 한반도해역에 출동하게된것은 극히 이례적인 것이라고 이소식통은 말했다。

地平線

조직된 근로자는 단체행동권을 갖는다。그중 가장 강경한 것이 파업이지만, 그 형태는 여러가지라고 이른다。이탈리아式이라면 출근은 하되 일을 않거나 게을리하는 방식。이에대하여 폴란드式파업은 숫제 공장을 점거한다。이렇게 폴란드式으로 점거한 공장들을 계엄군이 탱크를 앞세워 습격, 유혈사태를 빚고 있다는 외신이 아침신문마다 섬찍하다。▼폴란드式이라면 폴란드式우스개(폴리시·조크)란 것도 있다。농담으로 공산체제를 꼬집는 것이다。自由勞組 바르샤바본부에 걸렸던 만화의 표어도 그 전통을 잇고 있었다。이르되『만국의 노동자여, 나를 용서하라』마르크스가 쓴「공산당선언」의 맺음말「단결하라」를 살짝 바꿔치기한 것。自由勞組가 생기기 전에도 폴란드式우스개는 서방세계의 많은 사람을 웃겼고, 특히 미국사람들이 즐겨 읊긴다고 해서, 폴란드정부가 항의하는등 외교문제로 번졌던게 한두해 전이다。▼이렇게 폴란드式우스개가 번지는 까닭은 자유로운 비판이 봉쇄된데 있다。그러니 그것은 폴란드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공산체제 사회에 일반적인 것이다。실제로 소련에는 폴란드보다 못지않은 걸작우스개가 많다。러시아 출신의 풍자작가 에밀·드라이처가 작년에 러시아●우스개를 모아 펴낸 책『금지된 웃음』은 폴란드사태와 관련하여서도 시사적인 것들을 싣고 있다。예컨대。▼어떤 사람이 묻는다。『붉은 군대는 왜그토록 오래 체코에 머물고 있을까?』『붉은 군대를 초청한 사람을 찾고있다네』67년의 체코침공을 비꼰 이 우스개는 소련군이 폴란드에 개입할때의 실상이 어떤것일지를 보여준다。또 한가지。미국과 소련의 우주선 아폴로와 소유즈의 도킹이 성공한뒤, 소련 우주인들 몸소만난 브레즈네프는 미국이 우주경쟁에서 한발짝 앞서 있음을 지적했다。『그래서 黨정치국은 미국을 앞질러 자네들을 태양에 착륙시키기로 결정했네』▼『하지만, 저희들은 착륙순간 산채로 타 없어질텐데요』우주인들의 말을 듣고도 브레즈네프는 자신만만하다。『黨이 그만한 것도 모를 줄 아나。염려말게。黨은 자네들이 한밤중에 착륙하도록 배려했으니…』이 우스개는 공산당의「무식」이 아니라,「억지」를 탓하고 있다。아쉽다고 생각하면, 눈을딱감고 일을 저지른다는것이다。그 속성대로 폴란드에도 한밤중에 소련군이 이미「착륙」해있을지 모른다。그러나 자유세계는 그를 막을 방도가 없다。폴란드사태를 보는 안타까움은 그런데도 있다。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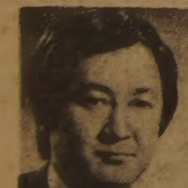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 동 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서 울
여 행 사
IATA
교포특별우대
수속에서 출발
관광, 도착까지
●국내·국제
항공표 일체
●이민·방문
초청 안내
631A BLOOR
ST. W.
535-6004,
8801
293-9970,
5823
최 동 주

이대환 不動産



주택과 사업체에 관한
일체의 문의나 거래는

◎특쉬는 비지네스(주5일)
TAKE OUT 카프테리아 SHOP(아침7~저녁5시)
주매상 : $5,500 아스킹 : $18,950 네트 : 년 $120,000
렌트 : $1,000, 리스5년+5년 다운페이 : $150,000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좋은 비지네스

●도나스 샾
①주매상 $12,000. 렌트 $1,200. 리스9년(옵션가능). 현금 $250,000Down. 아스킹 $385,000
②주매상 $8,500. 렌트 $2,900. 리스9년+5년. 다운페이 $150,000. 아스킹 $295,000
③주매상 $6,000. 렌트 $2,650. 아스킹 $190,000(현금[illegible] 기만불 디스 카운트. 리스20년
④주매상 $8,000이상(시외) 렌트 $1,700. 리스 19년. [illegible]금 12만불 다운페이. 아스킹 $25만

●버라이어티
①주매상 $8,500. 리스9년+5년. 렌트 $900. 아스킹 11만5천달러(로타리오 인컴 년1000달러)
~~②주매상 $12,000. 리스9년. 렌트 $1,850. 아스킹 15만9천달러~~ SOLD
③주매상 $7,000. 리스15년. 렌트 $950. 아스킹 7만5천달러(플라자 내)

주소 : 609 BLOOR ST . W
B)535-1251 R)536-4250

사단법인한국노년회
82년 회장단 입후보등록필 공고

아래와 같이 입후보 등록을 필 하였기 이를 공고함.

— 아 래 —

투표용지		
2	1	기 호
조 영 호	박 학 수	회 장
김대보 / 성용창	전승운 / 양혜신	부회장
		기 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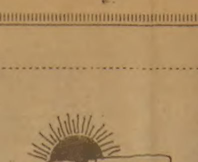
※당일 11시부터 투표지를 배부하오니 차고 없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한국노년회
선거관리위원장 최 언 필

아침에

歷史는 누가 가꾸는가

"당신 한국사람이죠," "네 그렇습니다"



柳炯鎮 〈대한교련會長·교육학박사〉

수많은 사건으로 얼룩졌던 이한해도 저물어간다。한해를 보내고 또 한해를 맞으려는 문턱에서 어쩐지 마음이 착잡하기만 하다。

국제정세를 보더라도 유럽지역에서는 폴란드에 戒嚴이 선포되어 1년8개월동안 勞組를 중심으로 싹터온 自由의 싹이 짓밟히고있고 이스라엘은 골란고원을 합병하여 시리아와 一觸卽發의 위기를 맞고있는등 상서롭지 못한 먹구름이 짙게 덮고있다。

연말까지 꼬리를이은 어수선한 정세속에서 우리자신의 형편을 생각할때 우리는 참 용하게도 많은 어려움을 헤쳐왔고, 내일을위한 터전을 착실하게 다져가고 있음을 알게된다。

국회가 오랫동안의 토론을 거쳐 「公職者倫理法案」을 마련한 것이라든지, 全斗煥 대통령이 국가전반의 청렴도를 측정하고, 公職社會를 우선 정화하며, 국민들의 의식개혁운동을 전개하여 각종 非理와 폐습을 拔本해나갈것등을 골자로하는 淨正활동 5大지침을 제시한 일, 그리고 「올림픽 일등국민」을 겨누고 내무부가 새마을운동 7개년계획을 마련한일등은 바로 밝은 내일을 가꾸어 가기위한 구체적이고도 근본적인 방안으로 생각된다。

역사는 누가 가꾸는가。두말할나위도 없이 그주체는 국민이다。밝은 내일은 위대한 국민만이 가꿀수있다。위대한국민의 準據는 국민의정신에있다。싱싱하고 깨끗하고 활력이넘치는 국민은 젊고 깨끗한 나라,희망에 부푼 역사를 창조해갈수 있지만 시들고 타락하고 기력을 잃은국민은 늙고 병든나라,衰亡의역사를 自招하는 사실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둘때, 지도층에 있는 인사들부터 부패를 추방하고 깨끗한 생활을 솔선수범하며 각계각층이 비위와 부조리에 젖어온 生活弊習의 터럭을 말끔히 씻어버리는 일은 우리의 당면한 當爲가 아닐수 없다。따라서는 모든 공직자는 깨끗하게 직무를 수행할 마음가짐을 새해를 앞두고 다시한번 다짐해야할것이다。특히 올림픽의해를 1차목표점으로하여 정신개혁운동을 펴기로한 일들은 모두가 위대한 국민정신을 생활화·內面化하기 위한 방도로서 우리의 내일을 期約하는 훌륭한 설계라하겠다。

그러나 설계는 어디까지나 설계일뿐 현실 그 자체는 아니다。설계는 반드시 具現됨으로써만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국가가,그리고 통치자가 아무리 강력한 改革에의 의지를 갖고 여러면의 시책을 마련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국민모두에게 전달되어 국민 한사람 한사람에게서 기대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는 물거품이 되고 만다。

우리에게는 밝은 내일을 世界史속에 장식할만한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가까이는 88年에 세계 사람들이 東方의 등불, 아시아의 照明 앞에 모여들어 인류의 축전인 올림픽대회를 치르게 된다。隱者의 나라 大韓帝國이 일제의 침략으로 35년간 암흑의 시대를 살았고 해방의 감격도 잠시뿐 북한 공산집단의 남침으로 국토가 온통 잿더미로 변했던 그 통한과 비운의 가시밭길을 헤쳐온 우리나라가 절망과 시련의 회오리속에서도 어느새 번영의 토대를 튼튼히쌓고, 발전 한국의 장한모습을 과시하며 세계 올림픽대회를 맞아들이리라고 어느누가 꿈엔들 생각이나 하였을 것인가。그러나 우리 국민은 해내고야 말았다。피땀으로 얼룩진 그간의 주름살을 활짝 펴고 떳떳이 세계사적인 대잔치를 기꺼이 맞아들일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조상으로부터 만대에 이르기까지 자랑스럽게 간직할 수 있는 기쁨으로 기억될직한 일이다。

지금도 외국엘 가면『당신 일본사람이죠?』라고 단정해서 말하는 소리를 듣는다。『아니요、한국사람입니다』하고 대답하면 잘 모르겠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 하는것이 보통이다。그러나 앞으로 7년 후에는『당신 한국 사람이지요?』『예、그렇습니다』이런 대화가 아주 자연스레 이루어질 것이다。올림픽을 치른 나라이니 세계 어느 나라 사람인들「코리아」를 모를 사람은 없을것이다。

말 그대로 세계속의 한국으로 우리는 뚜렷하게 자리를 굳히게 된다。이러한 역사의 전환기를 성공적으로 맞이하자면 그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이 걱정이다。물량 위주의 성장과정에서 빚어진 극단의 이기주의와 배금풍조、그리고 가치척도의 혼돈에서 온 도덕적 타락 현상등 더럽혀진 정신풍토를 하루빨리 맑고 깨끗하게 해야한다。정신세계의 오염현상이 청순한 샘물에 의해 깨끗하게 정화되고 곪고 멍든 부스럼이 새살의 소생으로 말끔히 가셔지기 전에는 이같은 역사의 전환기를 목표를 지향한 소중한 기회로 삼을수가없다。實質의 숙상이 없이 형식에 치우치거나 성실의 무게없이 겉치레에 급급하거나 「나」를 확대한 공동체의식없이 자기만을 주장하는 가치관이 있다면 하루속히 바로잡아야한다。속은 텅텅비었는데 겉만 번드르하게 꾸며서 눈을 속이는일이 우리주변에는,아직도 남아있다。포장지는 선진외국의것에 손색이 없는데 그속에 싸여진 내용물은 형편없는 속임수가 들어있는 경우도 적지않다。누가 보는데서는 모든것이 만점인데 그 눈길이 사라지면 금새 엉망이되는 그런 이중구조의 생활태도도 청산되어야 할것같다。

法이 서릿발같다고하여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것은 아니다。法은 변법과 정상을 가르는 최후의 기준이요 그 운용에는 한계가 있는 법이다。法 이전에 모든 생활을 지배하는 기본척도는 윤리의식이다。윤리의식의 內面化없이는 우리들의 여하한 꿈도 제값을 발휘할수가 없다。

윤리의식에는개인적인것、사회적인것、국가적인것이있다。튼튼하고 건전한 심신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건실하게 삶의 터전을 닦아가는 것은 개인윤리에 해당할것이며 조상전래의 相扶相助의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사회를 구축하는것은 社會윤리에 해당한다。그리고 국가의 이익을 위해 즐겁게 참여하고 봉사하는일은 국가윤리에 해당할것이다。

개인의 존재가치를 부정하고는社會와 국가의형성 자체가불가능한것과 똑같이 사회와 국가의 소중함을 인식하지못하고는 개인 그자체도 존속할수가 없다。한인간으로서 행복을추구해야 하는것은 당연한일이나 동시에 국가사회의 발전을위해 헌신 봉사하는 노력도 기울여야만한다。나와더불어 살고있는 이웃을 외면하고는 좋내는 자기의 설자리를 잃게되며 국가의 융성을 기대하지 않고는 자신의 성장도 무위로 끝난다는것을 되새겨야 한다。

한참 불우이웃돕기 운동이 요란할 때는 양로원 고아원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그런대로 끊기지 않았다。그런 운동이 잠잠해지자 어느새 양로원은 문을 닫을 운명에 놓여있고 영아원의 새싹들은 病魔에 시달려 끝내 숨져가고있다。만일 외치고 떠들어대야만 일이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소용없이 본래대로 되돌아간다면 나라를 사랑하는 일도、공중도덕을 지키는 일도、불우 이웃을 돕는 일도 외치고 떠들어대야만 실천으로 옮겨진다는 논법이 성립된다。

모두가 이러한 虛僞와 假面의 너울을 완전히 벗어버렸으면 하는마음이다。작은 일이라도 정성을 다하고 대수롭지않은 일이라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며、길거리에 휴지 한 조각이라도 버리지않고 아무리 만원 버스라도 줄서기를하여 차례차례 타는 습관부터 누구의 간섭이나 法의 으름장이 없이도 몸에 배어들도록 해야 한다。

그러한 작은 일、일상의 생활습관이 어려서부터 몸에배어야 公益을 우선하는 정신이 뿌리를 내리고、「나라의 강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국가발전에 즐겨 참여하는 나라의 일꾼이 사회를 가득히 메우게되는 것이다。

관광 명소의 구릉다리가 부실공사로 무너져서 무참한 인명피해를 가져온 비보도 국민윤리의식의 개혁이 선행되어야만 영원히 없어질거라는 생각이든다。밝은 내일을 가다듬기 위한 국민윤리의식의 개혁、그것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는 이미 충분히 設計된 것으로 안다。이제부터 남은 문제는 국민 각자가 개인、사회、국가를 의식하며 역사의 자랑스런 한 주체자로서 일등국민의 자질을 닦고 생활화해가는 일이 남았을 뿐이다。

"保安軍을 憎惡한다"

波 국민들 데모鎭壓주역…「난폭」의 代名詞

총兵力 7만2천명 탱크·裝甲車 무장

○…폴란드 군사통치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의 연좌파업분쇄에나선 軍부대는 정규군이 아니라 모두가 保安軍이라고 바르샤바에서 런던에 도착한 서방기자들이 18일 전했다。

서방기자들은 이날 폴란드내무성의 명령에따라는 7만2천병력의 保安軍이 매우 난폭하고 폴란드 일반국민들이 경원하는 증오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또 서방군사전문가들은 징집병으로 구성된 32만병력의 폴란드정규군중 많은수가 동포를 향해 발포하는데 나서지 않을것이라고 분석했다。

폴란드保安軍은 탱크와 장갑차를 장비하고있다。

2개日刊紙 허가

○…바르샤바의 눈덮인 거리는 계엄령선포 5일째인18일 군경의 도보및 차량순찰이 市전역을 물샐틈 없이 철저히 감시하는 가운데 살을 에는듯한 한파가 몰아닥쳐꽁꽁 얼어붙었다。

시민들은 계엄당국이 발행을 허가하고있는 트리부나·루두및 쥘리에르츠·볼노치등 2개일간지를 통해 지난 16일 7명이 사망하고 40명의 진압경찰이 부상한 실레지아광산유혈사태의 비보에 접하고 있다。

신문들은 또한 3백여 노동자및 경찰이 충돌과정에서 부상한 향도 그다니스크사태에 관해서도 1면기사로 크게 보도했다。

通禁어김없이 실시

○…시의 수개私營상점들은 매일아침 문을열고있으나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직은 공급이 달리는 형편이다。

시민들의 쇼핑등을위한 시내공공교통사정은 상당히 호전돼 버스및 전차들이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다。

그러나 계엄당국이 선포한 통금은 하오6시부터 익일상오10시까지 어김없이 실시되고있으며 시내번화가를 제외한 일반주거지역은 여전히 무거운 침묵을 유지하고있는등 바르샤바의 차가운분위기는 이곳을 강타하고있는 매서운 추위만큼이나 냉랭함을

4~5명씩도보순찰

○…많은 식품점앞에는 훈제생선·육류·신선한 전포도·홍및 당근등 종전에는 구경하기힘들었던 물품들을 구입하기위해 몰려든 시민들이 장사진을 치고있다。당국은 이같은 이례적인 풍족한 식품공급사정에 대해 식품수송차량들이 바르샤바에 갓도착했다고만전할뿐 공급원등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있다。

헬메트를 착용한 계엄군들은 착검한 자동소총을 들고 4~5명씩 1개조가 돼 거리를 도보순찰하고있으며 교통경찰과 군인들은 시내주요 전략지점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통행인및 차량을 일일이 조사하고 있다。

敎皇연설 3회나

○…폴란드 정부의 계엄령선포로 국내방송이 중단되자 서방의 외국방송들은 對폴란드방송을 강화、필요한 경보등을 폴란드국민에게 제공해주고있다。

폴란드정부의 각색된 공식뉴스보도에 불만을가져온 폴란드국민들은 현재 영국의 BBC방송、자유유럽방송(RFE)、미국의 소리방송(VOA)및 프랑스 국제방송과 바티칸방송등의 對폴란드방송에 귀를기울이고 있다。

최근 폴란드사태와관련 급격히 증가된 외국의對폴란드방송들은 여러가지 방식으로 선전방송을 강화、폴란드 저항세력과함께 자유노조의 입장을 대변해주고 있다。

특히 바티칸방송은 17일 3회에걸쳐 폴란드태생의 로마교황 요한·바오로 2세의 연설을 폴란드국민들에게 방송했다。

西方銀、非常會議 波의 追加借款에

【프랑크푸르트·뉴욕18日UPI·聯=聯合】폴란드에 차관을 제공한 서방은행들은 오는21일 스위스의 취리히에서 비상회의를열고 폴란드가 연체이자지불용으로 3억5천만달러의 긴급추가차관 제공을 다시요청한데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한다고 프랑크푸르트의 금융계소식통들이 18일 밝혔다。

폴란드가 5백1개의 서방은행및 일본은행에 지고있는 부채는 모두 1백60억달러、금년말까지 지불해야할 이자는 5억달러로 추계되고있는데 폴란드의 한들로비 은행(중앙은행)은 지난15일 렉스전문을 23개 서방은행에 보내 3억5천만달러의 특별차관을 요청했었다。

◇波戒嚴선포후 첫여객기 도착 폴란드의 계엄령선포이래 처음으로 17일 바르샤바로부터 여객기가 런던에 도착하자 각 보도기관들이 폴란드에서나오는 필름이나 사진을 얻기위해 몰려들고있다。어떤사람은 폴란드상황에관한 사진을 高價로 사겠다는 피키트(사진)까지 들고 있다。【런던18日UPI電送=聯合】

◇눈보라속 자동차40臺 연쇄충돌 시카고에 눈보라가 몰아친 17일 케네디고속도로에서40대의 자동차가 연쇄충돌、양쪽주행선의 교통을 가로막고있다。이 연쇄충돌사고에서 중상자는 나오지않았으나 이날 하루동안 오헤어 공항으로통하는 케네디고속도로에서는 근 1백건의 교통사고가 있었던것으로 보고됐다。【시카고AP電送=聯合】

配管工위장 아파트侵入

AP서 再構成…도지어將軍 被拉경위

다음은 AP통신이 경찰조사와 나토성명사건 현장주변 이웃과의 인터뷰및 신문보도를 토대로 재구성한 도지어장군 피납 경위이다。

17일 하오5시30분께 도지어준장 아파트의 초인종이울렸다。유니폼을 입은 배관공 4명이 홀에 서 있었다。

도지어 夫妻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이들은 이베로나시 가스 수도당국에서수도관을 점검하러 나왔다고말했다。베로나시라면 셰익스피어희곡에서 비운의 주인공인로미오와 줄리엣의 마을로 잘 알려진 곳이다。

배관공들은 집안에 들어서자 마자 품속에서 권총을 꺼내들었다。그중 1명이 권총의 개머리로 장군의 머리를 내리쳐 실신시키고 부인은 재갈을물려 의자에 쇠사슬로 묶었다。

모두 3명…拳銃개머리판으로쳐 실신
夫人엔 자갈…트렁크에넣은후 트럭에

일당은 도지어장군을 트렁크에넣어 밖에 대기중인푸른색 밴트럭까지 끌고 갔다。이 밴트럭은 불과 수백m도못가서 도지어장군을 다른 차에 옮겨 실었다。

사건을목격한 한여인은 어떤사람이 둘둘만 카페트같은 것을 밴트럭 뒤에서 꺼내 차에 싣는것을 보았다고말했다。한편 도지어부인은 몸을 풀려 안간힘을 쓰던중 1시간이 지나서야 의자를 쓰러뜨리고 이웃사람들이 듣도록 머리를 마루바닥에 부딪기시작했다。

8시20분께 수상하게여긴 이웃사람들이 초인종을눌러댔다。아무런 응답도없었다。그들은 113을 돌려 경찰을 불렀다。그때가 8시30분이었다。경찰은 10분후에 도착했다。경찰은 옥상으로 올라간후 도지어장군집의 테라스로 내려가 유리문을 통해들어갔다。

9시30분、경찰은 밀라노 지역번호판을단 밴트럭이 버려져있는것을 발견하고 이를 추적하기시작했다。

그후 도지어장군 아파트의 전화벨이 울린것은 10시35분이었다。그러나그것은서독에서 복무중인 장군의 딸 체릴 중위(22)의 전화였다。

나토사령부밖에서는 경찰차들이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며 로마를 경유한 좁은길을달렸다。

11시35분께 이탈리아 ANSA통신 밀라노사무실에 이공격이 붉은여단에의한 것이라는 전화가 걸려왔다。

경찰은 18일 일찍부터 밀라노와 베로나의 교통을 통제하고 가택수색을 벌였다。

붉은여단도 하오2시에 이번에는 ANSA통신벨로나사무실로또전화를걸어왔다。전화에서 그들은『우리는나토이의사형집행인 제임즈·도지어를납치했다。그는인민형무소에 수감되어있다』고말했다。【베로나19日AP聯=聯合】

◇도지어將軍

"被拉 美도지어將軍 人民刑務所에 수감"

붉은旅團 ANSA通信에 電話

【로마18日AP·AFP=聯合】나토(北大西洋조약기구)의 남부 유럽 지상군통합사령부의 통신·행정참모차장인 제임즈·도지어(50)美육군준장을 지난17일 납치했던 이탈리아의『붉은 旅團』은 18일 안사(ANSA)통신에 전화를 걸어 도지어장군이 현재『인민형무소』에 수감돼있으며 곧 프롤레타리아법정이 실시하는 재판에 회부될것이라고 알려왔다。

『붉은여단』의 대변인으로 보이는 한 사나이는 이전화를통해 도지어장군을『나토의 사형집행인』이라 부르고『앞으로 이집행인에대한 코뮤니케를 계속 발표할것』이라고 전해왔다。

한편 기오바니·스팟돌리니 이탈리아수상은 이날 이전화내용을 보고받고 경찰및 군보안대의 책임자들과 2시간의 숙의를 마치고 맥스웰·라브 이탈리아주재 美대사에게 이탈리아정부는 미국인으로서는 처음『붉은여단』에 납치된 도지어장군을 구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것이라고 다짐했다。

나토는 곧 성명을 내고 도지어장군이 비밀서류를 갖고 납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美、對이戰略협정 履行중지

레이건、골란高原合併 報復조치로

【워싱턴18日AP·UPI=聯合】레이건 美대통령은 18일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골란고원합병조치에대한 보복으로 3주전 체결된 새로운 美·이스라엘 전략협력협정의 이행을 중지시키고 이스라엘로부터 약간의 군사물자를 구입하려던 계획을 연기시켰다고 美국무성이 발표했다。

린·피셔 국무성대변인은『폴란드위기가 고조되고있는 시점에서 이스라엘이 미국과의 사전협의나 통고없이 이같은 조치를 취한것에 미국이 크게 실망했다』고 말하고『이에따라 레이건 대통령은 지난11월30일 조인된 美·이 전략협정의 이행을 위한 어떠한 논의도 현단계에서 진행시키지말도록 국무·국방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짐바브웨 爆發사고

집권黨舍 大破 1百56명 死傷

【솔즈버리(짐바브웨)18日AP·AFP=聯合】짐바브웨 수도 솔즈버리에있는 집권 짐바브웨·아프리카민족동맹당(자누黨) 당사에서 18일 정오께 강력한 폭발사건이 발생、적어도 6명이 사망하고 1백50명의 부상자를 내는한편 5층당사건물이 크게 부서졌다고 짐바브웨 경찰당국이 말했다。

알렌·브렌트 경찰대변인은 현재 부상자수가 1백20~1백50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중 적어도 20명은 중상이라고밝혔는데 폭발당시로버트·무가베수상은 당사안에 있지않아 위기를 모면했다。자누당의 대부분의 관리들은 점심식사를 위해 바깥에 나가있어 피해를 입지않았으며 국가정치위원인 메이어·우림보씨가 부상을 당했다고전했다。

大企業·은행國有化 佛下院、2개월만에

【파리18日聯=聯合】프랑스국민의회(下院)는 18일 산업국유화에 관한 2개월간의 격론끝에 社會黨정부의 주요기업및 은행국유화법안을 압도적 표차로 가결했다。

社會黨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회는 마지막인 제3讀會에서 36개 민간은행 5개대기업및 2개 주요투자회사들의 國有化法案을 贊3백31 反1백53으로 통과시켰다。

임시國會 來3월께

李鍾贊 運營委長

19일李鍾贊 국회운영위원장은『임시국회는 특별한 안건이 없는한 3월께 소집할생각』이라고 말하고『그러나 各常任委활동은 1월중순부터 再開、1월말까지 계속하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못하고 계류된 52개안건을 심사처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메아리

주부들의 얼굴이 요즘 한결 밝은것 같다。싸값으로 장바구니를 채워주는 풍성한 어시장때문이다。어부들의 노고가 식탁에서 돋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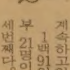
풍랑과 싸우는 어부들은 만선의 꿈을 따라 북상하곤 북괴가 쳐놓은「납치의 그물」과도 싸워야한다。이 그물은 해적의 촉수나 다를바없다。

부자세습체제를 굳히려는 북한집단의 정신병리적인 증상은 갈수록 심해진다。요즘도 전쟁수출과 외교관 밀수로 세계의 공분을 사는가 하면 휴전선에선 툭하면 총질을 한다。

우리 어로를 방해하고 어선납북을 서슴지 않으며 바다의 평화를 어지럽힌다。어선납치、경비정 공격등의 도발행위는 지난 20년동안 27차례나 있었다。휴전이후 북으로 끌려간채 못돌아온 어부 4백여명의 안부는 알길조차 없이 캄캄하다。

이런 해상폭력은 바로 해적행위다。현대국제법은 다른 선박에대해 비합법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일을 해적으로 본다。우리 어선에 대한 북괴의 폭력행위는 대남적화라는 침략성과도 연결된다。항로를 잃은 어선이라도 끌고가면 으레 장기억류의 사슬로 묶어 놓는다。북괴는 지난봄

惡夢 191일



일본어선을 나포했다가 5일만에 풀어주었다。소련은 우리 어선을 11일만에 돌려준 일도 있다。한데 납북어부에 대해서만은 예외다。속셈은 뻔히 들여다보인다。장기억류로 북괴는「세뇌」라는 만행을 일삼는다。이사실은 그동안 귀환어부들의 증언으로 한결같이 드러났다。

개별조사、사상학습、담화사업、노래공부、학습여행、회견연습등으로 대남공작용 세뇌작업을 벌인다。이런 어릿광대같은놀음으로 우리 자유의지가 쉽게꺾이리란 어림없는 오판을 계속하고있음에 틀림없다。

1백91일만에 제1공영호어부 21명이 돌아왔다。금년들어 세번째다。남진호는 2백54일만에、제2태창호는 2백44일만에 귀환했다。

돌아온 어부들이 안도와 가족재회의 감격스런 눈물을 흘리는것을 보며 만선의 꿈이 한창일 어장을 다시 생각하게된다。

이 황당어장을 두고 납북어부들은 생이별과 삶의 걱정에 시달린 지옥의 세월을 살아야했다。악몽을 털친 납북어부들의 무사귀환에 축복을 보내며 우리는 북괴의「비인도」에 또한번 경계심을 가다듬어야겠다。

성남동창회

금년 저희 성남 동문회에서는 신년을 맞이하여 다음과 같이 전동문들과 함께 할 자리를 마련하였읍니다.

일 시 : 1982년1월9일(토) 오후8시

장 소 : 8 BLINES CRES. RD. SCAR.

전 화 : 439－5977(최상규씨댁)

회 비 : 없음. 많은 상품 준비됐음.

연락처 : 서 강 철(789－5093)
조 창 균(233－2195)

성남동창회 회장
서 강 철

알 림

와이즈맨즈클럽 정기총회

와이즈멘과 메넷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해의 일들을 마감하고 새로운 일들이 새해에는 더욱 규모있게 진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기총회를 가지고져하니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읍니다.

— 아 래 —

일 시 : 1982년 1월9일(토) 오후7시
장 소 : Saiwoo 레스토랑
130 DUNDAS ST. W. TOR. (977－4988)

토의안건 : 81년 결산, 82년 예산및 사업계획, 임원개선, 양로원 건립위원회 결산, 기타사항

코리안 와이즈맨즈클럽회장
한인양노원건립위원회 위원장
차 선 겸

목사님 청빙공고

교회 : 연합한인 펜티코스탈교회
(The United Korean Pentecostal Church)

본 교회는 Pentecostal Assemblies of Canada Western Ontanio District 가입 교회서 성인이 약105여명 학생여 50여명 정도 회집하여 본교회를 인도해주실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자격

①정규신학대학을 졸업하시고 안수받으신분.
②40세~50세전후
③목회경험 3년이상
④영어로 설교하실수 있는분.
⑤운전이 가능한분.
⑥펜티코스탈 교단에 속하였거나 앞으로 인정을 받으실수 있는분.

구비서류

①영어와 한글 자필이력서 각1통
②명암판 사진2매
③설교녹음 카셋트 약30분 이내의 설교2개

서류보내실곳

연합한인 펜티코스탈교회(The United Korean Pentecostal Church)

주소

300 QUEEN'S DRIVE TOR.ONT.
CANADA M6L 1M5.

전화 : 416－226－2583
416－223－1914
심 상 대

週末 폭설에 交通「녹다운」

"歸家길이 千里같다" 氷板輪禍 속출…7명 숨져

중앙관상대의 예보도없이 주말을 기습한 큰 눈으로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역 곳곳에서 교통이 두절되고 마비되는 큰 혼잡을 빚었다。이날 눈은 영남、제주지방을 제외한 전국에 걸쳐 최고 17·1㎝ (하오 4시 현재·서울)가 내렸는데 지하철 공사등으로 교통이 혼잡했던 서울지방의 경우 아침과 저녁 러시아워때 모든 차량이 거북이 운행을 하고 접촉사고가 대량 발생하는등 교통지옥을 연출했으며 南山、北岳스카이웨이등 5곳의 교통이 막히는가하면 중부지방곳곳에서도 폭설피해가 많았다。이날 전국의 국민학교에서는 일제히 겨울방학에 들어가 꼬마들은 눈사람을 만드는등 한껏 동심에젖기도했다。이날 눈으로 金浦공항이 한때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으며、철도와 고속버스등이 비상사태속에서 운행됐다。

全경찰에 非常令…서울은 온종일 내려

19일 상오 9시40분께부터 내린눈은 하오까지 계속、스노우타이어와 체인을준비하지못한 차량들은 서행밖에할수없어 그렇지않아도 소통이원활치못한 도심의 교통체증현상을 더욱 부채질했다。특히 주말을맞아 하오1시께부터 퇴근을 서두른 시민들이 지하철과 버스정류장으로 몰려 혼잡을 이뤘고 서울시와 경찰은 제설작업과 교통정리에 안간힘을 썼으나 쏟아지는 대설에는 손을쓸수없었다。

이날 퇴근하는 시민들은 평소보다 1~2시간씩 길에서 시간을보내 귀가길의짜증을내고 애를태웠으며 지하철공사가 진행중인 西大門로터리에서 佛光洞에이르는 길은 철판위에 눈이쌓여 미끄러움이심해 각종차량은 일차선또는 2차선만의 좁은 임시차선을 빠져나가지못하고 한데엉켜붙어 더욱 혼잡을이루었다。

鐵道·高速버스등 스케쥴 엉망 택시는 아예 대낮부터 車庫行

또 하오에도 계속 눈이내리자 영업용택시들이 아예차고로 돌아가 택시를잡으려는 시민들이 차도 중간까지 몰려나와 귀가전쟁을 벌였는데 일부 얌체택시들은 평소요금의 몇배를요구、승객들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이때문에 퇴근시민들이 지하철쪽으로몰려 평소보다 몇배나 차타기가 어려웠다。

이날 회사원 崔榮浩씨(29·경기光明市鐵山1洞광복아파트)는 집앞종점에서 光化門까지 좌석직행버스로 평소 30분걸리던 출근시간이 2시간이나 소요됐다고 한숨을쉬었다。

또 南山1호터널의경우 이곳을 빠져나가는데 2시간이상이 걸렸으며 東馬場터미널에서는 春川、江陵등지의 상행차선이 예정보다 1시간씩 연착하는바람에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서울을 빠져나가려는승객도2천~3천명으로 평소의 절반으로 줄었다。

이날하오2시 東大門區新設洞 J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리려던 金모씨(28)는 신부가 1시간30분이나 지각하는바람에 3시30분에야 뒤늦게 결혼식을 올리기도했다。

이날 서울시는 본청에 제설작업 지휘본부를 설치하고 동부건설사업소등 4개건설사업소작업원 3백40명과 제설차 8대 그레이더 4대 덤프트럭52대등을 동원 3·1고가도로진입로와 무악재등 주요고개、간선도로에 염화칼슘 1천부대를 살포하는등 제설작업에 나섰다。

제설작업 지휘본부는 또 17개구청별로 청소원을동원、8천여명의 제설작업원을 동원、각구단위로 주요도로등 차량이 많은 도로에 제설작업을 벌이도록 긴급지시했다。

이와함께 서울시경은 19일 낮12시 산하 전경찰에 교통비상근무령을 내리고 동원이 가능한 4천5백명의 경찰관과 모범운전사등 보조요원을 최대한동원、대설로인한 교통소통정리에 나서도록했다。

시경은 각구청과협조、1백12개소에 설해예상지점과 교통취약지점에 경찰관을 배치하고 시내운행차량은 스노우타이어나 체인을감은 차량만 운행시키기로했다。

이날 하오3시현재▲南山순환도로▲북악스카이웨이▲삼청터널입구▲인왕스카이웨이▲타워호텔→남산팔각정의 남산순환도로등 5개지역의 비탈길에대해 차량통행을 금지했다。

한편 金浦공항은 상오10시부터 정오까지 2시간 동안 시정이 3백m 이하로 떨어져 한때 항공기이착륙이 두절됐으며 일본항공(JAL)4편이 이에따라 이날 결항됐고 대한항공(KAL)、NWA도 30분~1시간씩 이륙이 늦어졌다。

국내선의경우 하오부터 부산、濟州행은 이륙하고있으나 江南고속버스터미널은 이날하오2시부터 장거리의 경우 고속버스 운행을중단했으며 平澤、安城등지 단거리지역에는 상행선이 도착하지못해 30분~1시간 간격으로 배차했다。

이때문에 터미널에는 1만2천여명의 승객이 터미널을 빠져나가지 못했다。터미널측은 구내방송을 통해 예매표를 환불하겠다고알리고있으나 교통이막혀 이곳까지를 엄두가나지않는 승객들의 문의전화만 빗발쳤다。

터미널측은 20일 운행이재개되면 19일의승차표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는한편 19일에 이어 20일에도 버스가 다니지 못할경우 환불키로했다。

氷板 버스굴러 승객48명 다쳐 完州助村面서

【全州=聯】19일상오8시50분께 전북 完州郡助村面花田里앞 삼례대교입구 비탈길에서 전주 전일여객소속 전북5사1413호 시내버스(운전사 김오만·41)가 8m 아래 논바닥으로 굴러떨어져 박순례양(18·三禮여고3년)등 승객4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날 사고는 전주에서 승객50여명을 태우고 三禮로가던 시내버스가 마주오던 전북7아2292호 타이탄트럭(운전사 이상용·38)을피하기 위해 멈추는 순간 빙판길을 미끄러지면서일어났다。

忠州경찰 警備과장 지프굴러 숨져

【忠州=聯】19일하오1시20분께 충북中原郡嚴政面신충리앞 국도에서 충주경찰서소속 충북1가1529호 지프(운전사 정경훈·21)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논바닥에 굴러 이차에 타고있던 충주경찰서 경비과장 李容植경감(50)이 그자리에서 숨졌다。

이날사고는 지프가 앞에 정차중인 화물트럭을 피하려고 핸들을 갑자기 꺾다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빚어졌다。

이경감은 이날 주덕파출소등 3개파출소의 연말근무태세를 점검하고 본서로 돌아오다 순직했다。

트럭굴러 3명燒死 京釜고속도

【大邱=聯】19일 상오3시40분께 慶州市光明洞앞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에서 경북7라6856호 타이탄트럭이 전복되면서 불이나 트럭에 타고있던 김무열씨(41·安東郡吉安面)등 3명이불에타 숨졌다。

이날사고는 永川방면에서 이사짐을싣고 경주로가던 트럭이 눈이내려 빙판이된 고속도로를 과속으로달리다 앞서가던 번호미상의 버스를들이받고 전복해 일어났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는한편 2명의 신원을 수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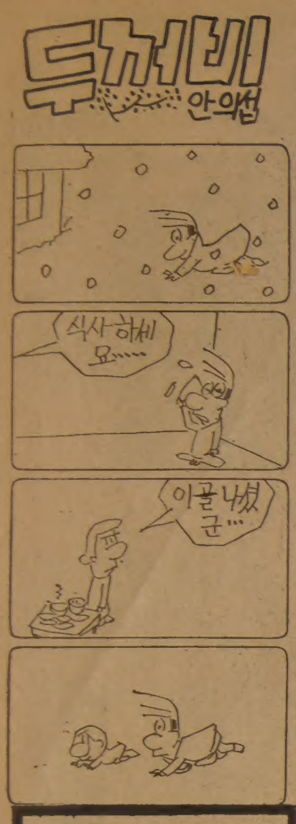
高速道서 버스墜落

【原州=聯】19일낮12시10분께 강원 橫城郡隅川面牛項里 영동고속도로 (신갈기점1백4㎞)에서 경기6바2322호 고속버스(운전사 金봉식·42)가 눈길을 달리다가 우항교난간을 들이받고 5m 남짓 떨어진 개천으로 굴러 떨어져 승객 강형운씨(57·강원高城郡土城面龍岩2里)와 金상옥여인(63·강원溟州郡城山面於屹里527)등 3명이 숨지고 李강열씨(50·서울銅雀區上道洞809)등 15명이 중경상을 입고 原州기독병원에 입원가료중이다。

이날사고는 승객40명을 태우고 江陵을 떠나 서울로가던 사고버스가 70㎞정도가 쌓인 눈길을 달리다가 미끄러지면서 우항교오른쪽 난간을 받은후 다시 왼쪽난간을 받고 떨어져 일어났다。

고속버스가 굴러떨어진 개천바닥은 수심이 얕아 인명피해는 적었으나 사고버스는 크게 부서졌다。

◇거북이는 차라리 빨라 갑자기 내린 대설(大雪)때문에 발이 붙잡힌 서울도심의 차량행렬。차량마다 거북이 걸음으로 서울의 도심기능이 단번에 마비됐다。



天帝淵다리붕괴 와이어바만든 서울業者 수배

「下請사장」·現場소장등 셋令狀

死亡者 1人 천만원·三星、유자녀 學費책임지기로

【濟州=聯】속보=제주도천제연폭포현수교 붕괴사고를 수사중인 제주지검 趙昔濟검사는 19일 이다리 공사를 맡았던 삼성종합건설 현장소장 吳成寅씨(56)와 이공사를 하청받은 富鋼산업대표 金承澤씨(61) 감리책임자인 동명기술공단 부사장 朴基淵씨(52)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또 부강산업이 문제의 불량 와이어바를 서울 경신로프에 제작도급을 주어 만들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경신로프대표 S씨와 제작책임자K씨의신병을확보하기위해 서울지검에 협조를 의뢰했다。

삼성종합건설 吳씨는 문제의 와이어바를 부강산업으로부터 검사하지않고받아 시공하게했고、부강산업대표 金씨는 다른업체에 도급준 와이어바가 불량제품인데도 검사를 하지않고 인수해사용한 혐의이다。

또 朴씨는 삼성종합건설로부터 설계감리책임자로 선임받고도 불량품등이 사용되는것을 감리하지않아 대형사고를 일으켜 많은 인명및 재산피해를 내게한 혐의이다。

한편 유가족측과 시공회사인 三星종합건설측은 이날상오9시 사고수습대책본부에서 회합을 갖고 사망자에게는 산재보험보상금과는 별도로 1인당 1천만원의 보상금과 함께 자녀들이 중고교를 졸업할때까지 三星측이 학비를 전액책임진다는데 합의했다。

SUN-LIFE
생명보험. 각종보험
B) 922-3111
R) 439-8885
MRS. 김신명

퇴폐쇼…술집4곳 立件

梨泰院일대 外國人전용假裝…쇼걸4명 即審에

속보=서울 龍山경찰서는 19일 쇼걸을 동원、손님들앞에서 음란쇼를 공연해온 서울 龍山區 梨泰院洞 일대의 퇴폐쇼공연 유흥업소(한국일보19일자 머리기사)에 대한 일제단속에 나서 V클럽등 4개업소를 공연음란혐의로 입건하고 이들 업소에서 자극적인 춤을 춘 金모양(16)등 4명을 즉심에넘겼다。

경찰에 의하면 梨泰院과 漢南洞일대의 이들 업소들은 무허가이면서도 외국인상대의 전용업소를 가장、내국인을 상대로 불법영업을하면서 손님을끌기위해 쇼걸등을동원、음란한 춤을 추게했다는것。

경찰은 미성년자들로 이들 업소에 제한없이 출입하고있다는 주민들의 신고로 18일하오 단속에 나섰는데 오는 1월중순까지 집중단속을 계속하기로 했다。

奎章閣도서 볼수있다

서울大 21만여권 내일부터 一般공개

서울대는 21일부터 규장각(奎章閣)도서 21만여권을 일반에 공개한다。

서울대는 국보급이 태반인 이규장각 도서를 지난40년간에걸쳐 계속 정리를해왔는데 작업이 끝남에따라 이를 일반에 공개키로 한것이다。

이에 앞서 서울대 규장각 도서관리실(실장 鄭鎬暄교수)은 19일 도서11만4천여권이 수록된「규장각 도서한국본종합목록」을 간행했으며 이번에 마무리된 한국본외에도 중국본등 귀중한자료에대한 정리사업을 앞으로10년간에걸쳐 계속하기로했다。

핸드백싣고 始動꺼졌다 밀어라 뺑소니

18일 하오8시30분께 서울 鍾路區弘智洞 경복궁정문앞에서 택시를탔던 崔泰順씨(62·여·鍾路區三淸洞62의26)가 현금12만여원과 1백여만원이 예금된 저축예금통장이든 핸드백을 택시운전사에게 빼앗겼다。

崔씨에 의하면 新盤浦에 가기위해 택시를탔는데 택시를타자마자 운전사가 시동이꺼졌다며 차를 밀어달라고 부탁、崔씨가 핸드백을 차에놓고 내린순간 운전사는 차를몰고 그대로 달아났다는것。

경찰은 번호를 알수없는 녹색택시와 35세가량의 운전사를 수배했다。

有價증권 2억 僞造

회사專務등 넷 拘束

【釜山=聯】釜山시경수사과는 19일 2억원대유가증권위조단을 적발、두목격 자금책인「부국회사」전무 尹淳道씨(44·釜山市東萊區巨堤洞114)와 행동책 崔雲哲(34·釜山市東萊區社稷洞45)、인쇄책 朴鍾根(33·大邱市壽城區新川洞1116)金成寬씨(38·釜山市東萊區釜谷洞123)등 4명을 유가증권위조및 동행사、사기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備山씨(40·서울江東區千戶洞)를 같은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오프세트인쇄기등 위조기구 일체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에따르면 이들은 지난 9월 釜山市東萊區釜谷洞주택가에 6평짜리사무실을 전세내 수동오프세트인쇄기 2대와 숫자표시기등 약속어음위조에필요한 기구46점을 설치한뒤 지난 4월 경남기업(대표 沈기순)이 발행한 액면가 2천만원짜리 약속어음 1장을구입、이와똑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4장(액면가 8천만원)을만들어 사채시장에서 姜모씨(59)에게 3푼으로 할인、5천6백만원을 받아낸것을 비롯、액면가 2억원에달하는 유가증권 15장을 위조、착복했다는것。

西江大學 불법示威 학생3명 2년宣告

서울형사지법 尹汝憲판사는 19일 西江大 시위사건관련、구속기소된 金鍾慶(23·사학과4년)李至鎬(22·경제과4년)南慶爾피고인(22·″)등 3명에 대한 집회및 시위에관한 법률위반사건 선고공판에서 3명모두에게 징역2년을 선고했다。

金피고인등은 지난10월7일낮12시께 西江大 교내에서 반정부 유인물4백여장을 돌리며 시위를 선동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모두 징역5년씩을 구형받았었다。

아기둘 또숨져 大田피얼즈 嬰兒院

【大田=聯】홍역으로 大田乙支병원에 입원、가료중이던 大田피얼즈영아원 영아 2명이 또 숨졌다。

생후5개월된 李혜경양은 18일밤에、같은나이의 金성순양은 19일새벽에 각각 숨졌다。

이로써 지난 10월21일부터 19일까지 홍역으로 숨진 피얼즈영아원 영아는 모두 15명으로 늘어났다。

高校신입생 2천5백명 陸軍、장학생選拔

내년부터 卒業뒤 下士官복무

육군은 내년부터 학업성적이 우수하나 학자금조달이 어려운 고교생을위해 대폭적인 군장학제도를 실시키로했다。

이에따라 내년도 신학기부터 전국고교신입생가운데 2천5백명(인문계 1천5백명·기술계 1천명)을 선발하여 고교 3년동안 입학금과 수업료、육성회비등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키로 했다。

이제도는 학업성적이 우수하나 가정형편이 어려운학생을 돕고 우수한 자질을 가진 학생은 졸업후 군의간부요원인 하사관으로 임관시켜 일정기간 복무케하는 제도로서 인문고교출신은 4년동안、기술고교출신은 5년동안 기능과 적성에맞는 분야에 보직되어 복무하게 된다。

신나는 겨울방학

初中高 함박눈맞으며

전국대부분의 초중고교가 18일에 이어 19일 방학식을 갖고 일제히 겨울방학에 들어갔다。

방학에 들어간 학생들은 교실을 청소하고 대방학을 위한 책과 성적표를 받아들고 교문을 나서면서 때마침 내린 함박눈을 맞으며 마냥즐거워 했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학생들에게『방학기간 동안 계획을 잘세워 값진방학이 되도록하고 항상건강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초중고교의 겨울방학은 지역에 따라 37~50일간。대부분의 학교는 내년1월31~2월9일 사이에 개학한다。

진짜 일본음식
스시, 스끼야끼, 뎀부라등등
MASA
JAPANESE RESTAURANT
195 RICHMOND ST. W. (at Simcoe)
TORONTO
977-9519

Pendex Business Machines Ltd.
1436 QUEEN ST. W. (& LANSDOWNE) TORONTO
Tel. 532-0111 Res. 259-5820
5주년 기념 세일
⊙전자 CASH REGISTER
⊙각종 전기전자 계산기
⊙각종타자기
⊙금고, 책상, 케비넷
김 성 수
교포경력(TORONTO 15년 경력)
분납가능

Grant Brown
새차및 81년도 데모카
특별세일(매출)
GMAC 이자율 14.2%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RABBIT • CONVERTIBLE • DIESEL • JETTA • SCIROCCO
AUDI 4000 • AUDI 5000 • TURBO • VANAGON • WINDOW VAN
BUS • CAMPMOBILE
ALL ROADS LEAD TO
Don Valley
VOLKSWAGEN LTD + AUDI
AUDI
1695 EGLINTON AVE. EAST
TORONTO • ONTARIO
TEL. 751-3131
CATCH A RABBIT

가구장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 환영.
영업시간 : 매일 오전11시~새벽2시
금, 토 : 오후8시30분~새벽2시
목, 금, 토, 일 : 오후8시30분~새벽1시
가수 : 박 소 영 출연
5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MODERN FURNITURE
ecosys
왜 에코시스 가구가 인기 있을까요?
◆그것은 최고급회사 제품들로서 물건이 특이하고
◆일반 가구점에서 볼수없는 차원높은 가구들이고
◆양심적으로 거래하며
◆사신후에 문제점을 책임지고
◆교포들 에게는 특별염가로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2300 YONGE ST. TOR. (In Yonge-Eglinton Centre)
TEL. 486-0397 김만구

KAWAI 피아노
●KAWAI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큰 회사 중의 하나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일본 정부에서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읍니다.
●HILLCREST MALL ☎ : 883-9407
●MARKHAM PLACE ☎ : 881-8211
대표 : 윤호섭
세일즈 매니저 : 알렌

CHINA HOUSE
CANTONESE & MANDARIN CUISINE
Wilson Eglinton Keele Bayview CHINA HOUSE Bathurst Bloor
TWO BANQUET ROOMS
LOCAL DELIVERY AFTER 4.30 PM
AMPLE PARKING
781-9122
925 EGLINTON W.

本社선정 10大뉴스를 중심으로 본 1981年

激動의 365日…또 한해가 저문다

國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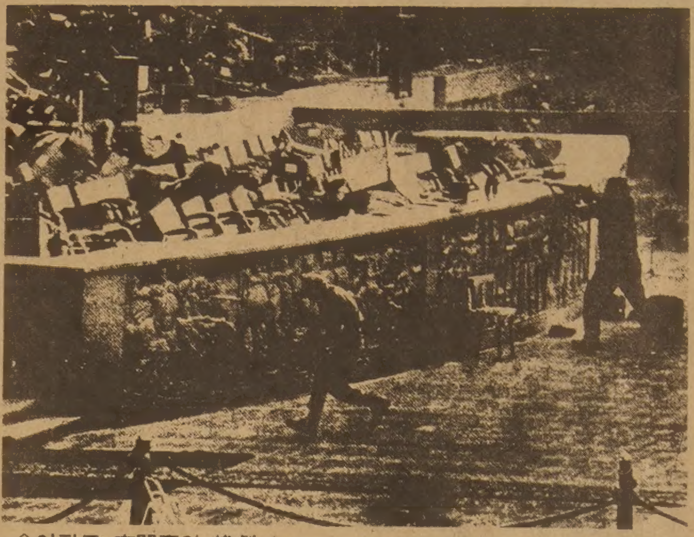
뉴스發生順

이란抑留 美인질석방

1월20일 하오(한국시간 21일새벽) 이란의 미국인 인질 52명이 4백44일간의 억류생활에서 풀려났다.

79년 11월4일 팔레비前이란왕의 송환을 요구하는 과격파학생들이 테헤란美대사관을점거하면서 카터 대통령은 무력구출작전, 미국내 이란재산동결등 경제보복조치등을 시도해봤지만 끝내는 지도력 결핍이라는 인상을 심고 레이건과의 대결에서 [illegible]다.

인질석방은 결국 돈으로 해결됐다. 이란은 미국은행에 동결된 이란재산 79억달러를 돌려받기로 합의하고 인질들을 내주었다.



◇이집트 査閱臺의 惨劇 10월6일 對이스라엘 승전기념 군사퍼레이드를 참관하던 사다트이집트대통령은 대열서 뛰쳐나온 과격파 회교도 암살단의 총격에 숨졌다. 때마침 에어쇼를 구경하던 사열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佛미테랑社會政權

5월 프랑스의 프랑스와·미테랑社會黨首는 공화민주연합소속 현직대통령 지스카르를 물리치고 21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각국이 보수주의로 돌아가고있던 시기에 23년에걸친 프랑스의 보수통치시대가 막을내리고 4명의 공산당각료를 포함한 左派정권이 수립된것이다.

미테랑 대통령은 취임후 反蘇노선을 분명히하면서 공약대로 과감한 대기업 國有化조치와 사회보장정책 강화등 국내개혁에 역점을 두고있다.

미테랑의 이같은 變革의지는 아직까지는 국민들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고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칫 악화일로의 인플레와 실업문제, 물가등을 해결하지못할경우 보수세력의 반격을 맞게될 가능성도 있다.

콜럼비아、宇宙왕복

콜럼비아 1호가 첫 비상하던 4월12일 밤9시(한국시간)는 새로운 우주여행시대의 막을여는 날이었다.

우주왕복선 콜럼비아 1호는 로켓트·비행기·인공위성의 기능을 하나로 한 과학이 이뤄낸 온갖 잇점의 산물. 임무를 마친후 기체가 완벽한상태로 귀환, 재사용한 기록을 세웠다. 존·영과 로버트·크리픈은 54시간21분간 우주체공을 한뒤 화물칸의 개폐등 실험을 마치고 무사귀환했다.

콜럼비아 1호는 11월13일 0시10분 제2차 우주여행길에 나서 2일간 궤도를 36회 선회했다. 이때「우주손」로보트팔의 작동실험을 했다. 콜럼비아의 두차례에 걸친 우주여행은 인류에게 꿈과 낭만을 주었으나 한편으로는 우주전쟁시대의 돌입을 예고했다.

레이건大統領被擊

3월30일하오2시25분(한국시간31일상오4시25분) 워싱턴 힐튼호텔문을 나서던 레이건의 피격소식은 세계를 경악과 분노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다행히 사건은 현장에서 체포된 존·힝클리(25)의 배후없는 단독범행으로 밝혀졌고 응급수술을 마친 레이건 대통령이 곧바로 병실서 정상업무에 임함으로써 영도력의 공백을 없애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는 안정을 되찾았다.

한편 피격후 레이건 대통령이 보인 고령답지않은 士氣와 초인적인 의지는 국민들의 신임을 두텁게 했다.

미국여론은 이사건에 이어 대통령 경호문제, 미국사회에 만연한 폭력과 총기소유문제등에 초점을 맞추고 自省의 기회를 갖기도했다.

이란首腦 연쇄爆死

6월30일 이란집권 회교공화당(IRP)당사를 날려버린 폭발사고로 바니사드르의 최대의 정적이자 골수회교혁명세력 베헤슈티 IRP당수겸 大法院長을비롯, 정부각료와 국회의원등 모두 72명이 목숨을 잃었다.

베헤슈티는 79년1월 회교혁명성공이후 최고지도자 호메이니옹의 오른팔로서 사실상 이란의 제2인자였다.

IRP당사폭파후 두달만인 8월30일 수상관저에서 또 폭탄이 터져 요담중이던 라자이 대통령과 바호나르 수상이 죽었다. 9월5일에는 고두시 혁명검찰총장도 검찰청본부건물에서 터진 폭탄으로 목숨을 잃었다. 이란정부는 좌익 무자헤딘·할크당원과 親바니사드르인사에 대한 대대적인 피의 숙청을 벌였다.

中共、鄧·胡체제확립

毛澤東통치시대는 華國鋒의 퇴장으로 사실상 그 막을 내렸다. 6월29일 중국공산당제11기중앙위원회 6차총회(6中全會)는 당주석 華國鋒을 부주석으로 격하시키고 부주석 胡耀邦을 주석으로 선출했다. 이는 鄧小平이 명실상부하게 실권을 장악, 「毛澤東→鄧小平」체제의 평화적 교체를 나타내는것. 胡耀邦은 鄧小平의 오른팔이다. 鄧은 당군사위원회 주석직을 맡아 군의 최고통수권자가 됐다.

胡耀邦은 주석취임후 첫시정연설에서「마르크스주의는 불변의 교리가 아니다」라고 강조, 중공이 마르크스―레닌―毛澤東의 수정노선을 적극도입하고있음을 시사했다.

胡주석은 10월10일 중국통일문제에 관한 對臺灣제의에서 蔣經國총통을 무조건 초청했다.

教皇、回教徒에被擊

5월13일 하오5시19분 바티칸市 베드로광장에서 일반신도를 접견중이던 로마교황요한·바오로2세가 한 괴한에게 저격된 사건은 전세계에 테러에 대한 공포와분노를 불러일으켰다. 터키출신 회교광신도인 범인 아그자는 범행동기나 배후세력에 관해 굳게 입을 다물고있으나 수사결과 그의 범행은 기독교세계를 저주하는 광신적 정신상태에서 빚어진것으로 추측되고있다.

요한·바오로2세는 피격후 3주간의 병원생활을 마치고 건강을 되찾아가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피격후유증으로 인해 退位할 가능성이 있다는보도가 나오는등 과거와 같은 활발한활동을 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폴란드 戒嚴統治로

12월12일 자정을 기해 폴란드전역에 계엄령이 선포되고 21명으로 구성된 구국군사평의회가 全權을 장악, 폴란드는 군부의 무력통치아래 들어갔다.

폴란드사태는 사태발전에 따라 東西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東歐권의 현상변혁을 초래할 소지가 많아 국내문제의 차원을 넘어 세계문제가 됐다.

개혁의지를 가진 소수집권층에 의해 추진되다가 소련탱크에 짓밟혔던 체코자유화운동과는 달리 폴란드 자유화는 1천만 자유노조회원이라는 폭넓은 하부조직을 가지고있고 1년반이상을 버티어온 저력을 가지고 있다.

레이건、核協商제의

레이건美대통령은 11월18일「소련이 유럽을 겨냥한 SS-20등 중거리미사일을 해체할경우 미국은 퍼싱Ⅱ 및 크루즈미사일의 유럽배치를 취소할것」이라고 밝히고 소련에게 새로운 軍縮협상참여를 촉구했다.

「제로옵션(零의선택)」이라 불리는 이 제안은 갈수록 드세지는 유럽의 反核평화시위를 진정시키고 만약 소련이 이를 거부할때는 군비증강의 명분을 찾기위한 레이건의 對蘇 선제카드였다.

11월30일 시작된 제네바 美·蘇戰域核감축회담을 앞두고 미국 核정책의 윤곽과 기본원칙을 밝힌 제의는 레이건등장이후 처음으로 美·蘇간의 협상가능성을 제시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사다트被擊死亡

10월6일 사열을 받던 차량에서 뛰어내린 회교광신 이집트장병들의 총탄세례에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의 10년 풍운은 끝났다.

그가 죽자 아슬아슬하게 유지돼오던 중동의 평화가 당장위태로와졌다.

미국은 이스라엘、사우디와 더불어 미국의 맹방이집트를 잃어 버리지 않을까 우려, 군투입을 위험한 이국경에 조기경보기를 파견감시하고 사다트후계자 무바라크를 강력히 지지하고 나왔다.

그의 암살은 사다트의 탄압정책에 불만을 품은 국내의 회교과격파의 소행으로 판명이 났다. 사다트를 계승한 무바라크가 사다트노선을 추종하겠다고 선언, 불안은 다소 가라앉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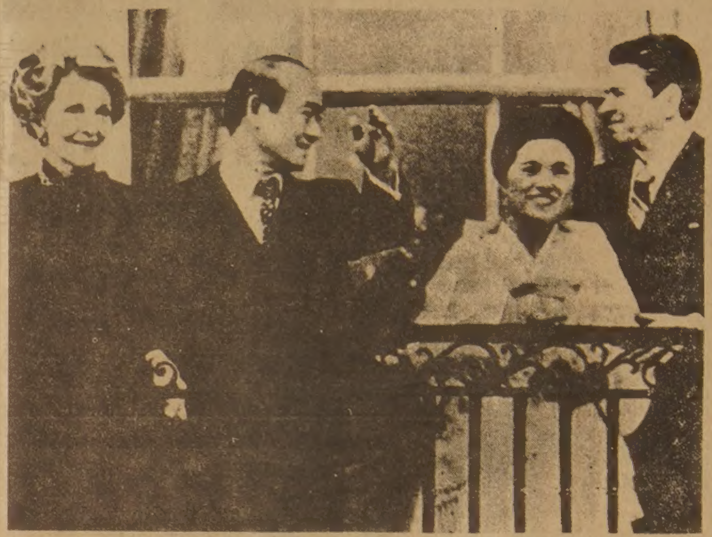
國內

뉴스發生順

政黨창당·選擧·國會개원

제5공화국의 새 정치를 이끌어갈 정당들이 1월15일부터 창당대회를 갖고 정식 出帆했다. 民正黨을 필두로 民韓黨 국민당이 創黨되면서 民政 新政 民社등 群小정당들도 雨後竹筍처럼 創立하여 중앙선관위에 17개의 정당이 신고되는등 소위 多黨시대를 연출했다. 그러나 이 多黨시대도 3·25總選을 계기로 民正 民韓 국민의 3黨시대로 정리됐다. 예측을 불허하던 總選은 92개지역구와 전국구를 모두 합쳐 民正 1백52, 民韓 82, 국민당 25석으로 나타났다.

初選의원이 80%를 넘는 새 기록을 남긴 제11대국회는 4월11일開院, 새 정치의 廣場으로 출발하여 임시국회, 정기국회를 거치면서 과거와는 다른 스타일의 국회를 선보였다.



◇韓·美頂上의微笑 全斗煥 대통령과 레이건 美 대통령간의 韓美 頂上회담은 그동안 서먹서먹 했던 양국간의 血盟관계를 재확인하는 계기가됐다. 全대통령내외가 2월2일 레이건 대통령내외와 함께 頂上회담이 끝난뒤 白堊館 발코니에서 밝은표정을 지으며 友誼를 다짐하고 있다.

제12代대통령 취임

3월3일 全斗煥대통령이 제12代대통령에 취임했다. 全대통령의 12代대통령취임은 제5공화국의 출범을 內外에 공식적으로 선언한것이며 10·26사태이후의 過渡期를 완전 마무리한 것이다.

또 維新헌법에의한 제4공화국시대에 終止符를 찍고 民主·福祉·正義사회로 특징지어 지는 새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轉換期的성격을 안고있다.

全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전쟁·貧困·정치적탄압과 權力濫用으로부터의 해방등 3가지해방을 제창, 국내외로부터 共感을 받았다. 이는 제5공화국의 進路와 방향을 선언한것으로도 평가되고 있다. 특히 정치적 탄압과 권력남용으로부터의 해방은 숱한 정치적고통을경험해온 국민들로부터 큰호응을 받았다.

全대통령訪美·巡訪

全斗煥 대통령은 1월28일부터 2월7일까지 미국방문, 6월25일부터 7월9일까지 아세안5개국巡訪을 통해 頂上외교의막을열었다. 특히 全대통령의 訪美는 年初에 快擧를 안겨다준 빅·뉴스로 기록되고 있다.

全대통령은 訪美기간중 2월2일 레이건 美대통령과 頂上회담을 갖고 미국과의 血盟관계를 재확인하는 한편 駐韓美軍 철수를 白紙化, 韓半島에서의 전쟁억제와 함께 안정을 가져오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다. 이는 또한 國內상황을 안정시키는데도 큰 기여를했다.

訪美에 이은 아세안巡訪은 아세안 국가들과의 새로운 협력시대, 太平洋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外交史的의미를 지니고 있다.

言論基本法발효

언론기본법이 올 1월부터 시행, 言論史에 새 章을 기록했다. 언론의 公的책임에 비중을 둔 이 法은 지난해 12월26일 立法회의를 통과, 施行令이 公布된 1월29일부터 공식 발효됐다. 이에따라 言論仲裁委가 3월31일발족했고 이어 언론연구원등 언론관계기관이 설립돼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이 法이 발효되면서 언론보도에 의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 언론仲裁委에 첫仲裁신청이 들어온것은 5월 7일이었고 5월20일에는 허가없이 [illegible] 사람이 검찰에 구속돼 이 法의 벌칙조항이 처음으로 적용되기도했다.

그러나 이 法은 국회에서 與野간에 爭點이 돼 民韓黨은 이法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놓고있다.

政府기구 縮小개편

정부수립이후 최대규모의 기구축소작업으로 기록되고 있다. 행정개혁위원회와 국무총리기획조정실, 국가안보회의사무국, 경제과학심의회의 사무국이 폐지되고 경제기획원의 경제협력기능이 재무부로 移管됐으며 2院15部4處1委員會의 중앙행정기관 下部조직이 12개의 차관보, 10개의 室, 1백60개의 局, 1백52개의 擔當官, 9백63개의 課로 축소됐다.

8월25일부터 10월15일까지 사이에 진행된 정부기구축소개편은 중앙행정기관뿐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까지 미쳐 중앙과 地方을 합쳐 7명의 長·次官級과 1급 37명, 2·3급 1백62명, 4급 3백95명등 모두 6백1명의 上位職이 감축됐다.

이는 4급이상 전체국가공무원 5천37명의 11.9%에 해당되는 것이다.

朴首警司令官 해직

국방부는 8월5일 군인의 본분을 망각하고 이권청탁을 한 이유로 수도경비사령관 朴世直소장을 해임, 예편시켰다고 발표했다.

朴소장은 陸士12기출신으로 동기생중에서도 진급이 빨라 수경사령관의 요직을 맡게 된 것인데, 갑작스런 朴소장의 해임은 국민들을 놀라게했다.

국방부발표에 의하면 朴소장은 육사동기생인 李熙煥씨(재미동포)의 부탁을 받고 장관·청장·국영기업체장등에 李씨의 사업을 도와주도록 청탁했고, 모국책은행장에게는 李씨에게 50만달러를 융자해주도록 요청했다는 것.

全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웠던 朴소장의 해임은 제5공화국이 내세우는 깨끗한 정부에 부응하는 조치로 평가되었다.

慶山列車충돌慘事

5월14일 하오4시1분께 경부선 慶山 梅湖洞2구앞 경부선 梅湖제1건널목에서 부산발 서울행 제116특급열차가 역시 부산발 東大邱행 제302보통열차에 들이받히면서 급행부분 3량이 탈선전복하면서 54명이 사망하고 2백50여명이 부상하는 대참사를 빚었다.

사고는 제116특급열차가 慶山역에서 제302보통열차를 앞질러 달리다가 梅湖 제1건널목에서 철길에 끼인 90cc오토바이를 치자, 기관사 文[illegible]씨(54)가 이를 확인하려고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열차를 후진시키다 때마침 뒤따르던 보통열차에 의해 받힌것.

[illegible] 철도청장이 책임을 지고 사임했으며 기관사등 5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朱교사、潤相군殺害

潤相군유괴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12월2일 潤相군이 다니던 京西中체육교사 朱永炯(28)이 지난해 10월12일 潤相군(당시京西중1)을 유괴살해한뒤 北漢江변에 암장한 사실을 밝혀냈다.

朱교사는 노름으로 진 빚을 갚기위해 潤相군을 유괴살해하면서 자신이 재직했던 여자중학교 제자 2명을 농락하고 이들을 다시 潤相군유괴에 끌어들이는등 상상을 초월한 범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은 땅에 떨어진 師道를 실감케했을뿐아니라 10대여중생들의 엉뚱한 행동으로 어른들을 놀라게했다.

이 사건은 또 발생 1년18일만에 사건을 해결, 河형사사건으로 실추된 경찰의 공신력을 회복시켰다.

河刑事竊取사건

元曉路 갑부보살로 알려진 尹[illegible]씨(72)가 8월4일 서울元曉路1가128의14 자택에서 가정부·양녀등과 함께 피살된채로 발견됐다. 경찰은 10억대의 재산을 소유한 尹노파의 조카며느리 高淑鍾씨(47)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 자백을 받은뒤 우여곡절끝에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10월14일 尹노파이름으로된 통장을 가진 사람이 [illegible] 지점에 개인계좌를 내려다 검거됐고 예금통장은 기상천외로 尹보살피살사건을 현장에서 수사했던 龍山署 河英雄형사가 현장에서 훔쳤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사건은 현경찰의 위신을 추락시켰고 河형사는 구속, 龍山署수사과장등 3명이 파면됐다.

88올림픽 서울誘致

바덴바덴의 함성이 아직도 우리귀에 생생하다.

9월30일 밤 제84차 [illegible] 위원회(IOC)총회서 사마란치 IOC위원장이「서울52표、나고야27표」로 88년 하계올림픽 서울개최를 공식선언하자 TV중계를 지켜보던 국민들은 환희에 휩싸였다. 한국은 개발도상국으로서는 멕시코에 이어 두번째로 올림픽개최권을 획득, 선진대열에 뛰어올랐다.

88년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기위해 이미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SLOOC)가 구성되어 金溶植위원장을 중심으로 일에 착수했다. 한국스포츠는 올림픽유치의 여세를 몰아 뉴델리 아시아경기연맹(AGF)총회서 86년 제10회 아시안게임 개최권도 획득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금년 크리스마스및 새해에는 한국일보 1년 구독권($99)을 만들어 선물 하십시요.

이것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을 것입니다.

부모, 형제에게… 또는 친지에게…… 그리고 멀리 있는 애인에게는 더욱 좋습니다.

한국일보는 오직 교민을 위해 오늘도, 내일도 쉬지않고 봉사하고 있읍니다.

한국일보·광고부

533·2361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 Downtown Office : (416) 537-6685
  8AM~6.30PM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 Willowdale Office : (416) 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 에서 Bayview 거의 다 가서임)
* 평일 오후3시및 토요일에 오시는 분은 미리 전화 주십시오. ☎ : (416) 222-9480

서울식품

1. 싱싱한 민어회감 있읍니다.
1. 한국에서 직 수입하므로 싼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주소 :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

謹賀新年

지난해 동안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리오며, 부디 여러분과 온가정이 즐거운 성탄 맞이하시고, 보다 밝고행복된 새해 되시길 하나님께 기도드리 옵니다.

황용현 배

TOM HWANG REAL ESTATE LTD.
REALTOR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ONT.
TEL. (416) 449-8644, 8645(B), 286-1548(R) M3B 1Z3

각종 가죽옷 도산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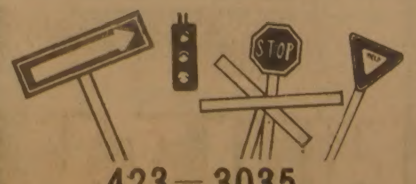
PERFECT LEATHER GOODS

온타리오주 내에서 가장 큰 가죽제품 스토어

●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음

192 SPADINA AVE. TOR.
☎ : 368-4215. 368-0114

운전교습



423-3035
(오 행 근)

激動의 365日… 또 한해가 저문다

한국일보 특집판

'81 話題의 人物

國外

◇쿠데타失敗…射殺된 만주르 5월30일 새벽, 일단의 북공반란군은 치타공을 방문중인 지아우르·라만 방글라데시 대통령의 숙소를 기습, 잠옷바람의 라만 대통령을 사살하고 쿠데타를 기도했다. 이 쿠데타의 주동자는 그의 절친한 친구이자 라이벌이었던 치타공 수비대사령관 무하마드·아불·만주르소장이었다. 그러나 만주르 소장은 기대했던 군부와 국민들의 지지를 얻지못하자 3만달러의 현상금이 걸린채 도주하다 버마국경에서 잡혀 분노한 정부군에의해 3일만에 사살됐다.

◇女裝으로亡命한 바니·사드르 이란 최초의 民選대통령 (80년1월당선) 바니사드르 (48)는 회교과격파와 정면대결, 회교성직자들은 그를 서구제국주의의앞잡이 美CIA의 협자로 몰아붙였다. 해임된후 1개월여동안잠적, 흥미를 모았던 바니사드르는 눈썹과 수염을깎고 여자로위장, 이란을빠져 나감으로써 화제를 뿌렸다.

◇美 17세新星 브루크·실즈 미국의 17세도 안된 고교여학생인 브루크·실즈를놓고 미시사주간지 타임 (81년 2월 9일자)은 「80년대의 얼굴」, 월간지 라이프 (81년12월호)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커버스토리를 통해 예찬했다. 그밖에 작년의경우 실즈를 표지에 올린 잡지는 미국에서만 30여개. 키 1m79cm로 「끝없는 사랑」이란 영화로 한국에도 이미 선을보였다. 패션계에서도 하루 출연료 1만달러 (약 6백60만원)를 홋가하는 톱 모델이자 CF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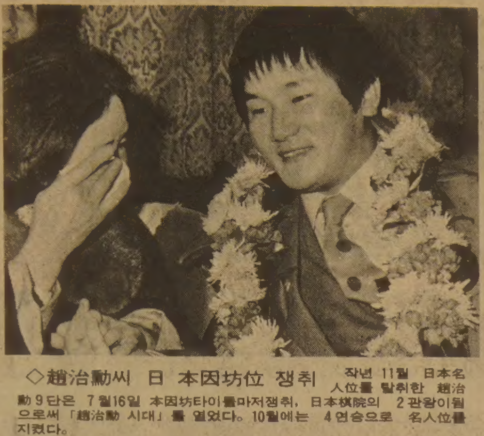
◇黨보다 사랑을擇한 리·슈앙孃 한여인의 사랑이 10억인구의 정치대국인 中共을 한때 외교적 궁지로까지 몰고갔다. 지난9월 中共은 上海에 살고있는 리·슈앙을 혼전동거혐의로 체포하고 그녀의 애인 프랑스외교관 에마뉘엘·벨프로와씨를 국외추방했다. 미술학도인 리·슈앙은 「黨과 사랑」에 방황하다 결국 사랑을 택해 2년간의 노동재교육 실형을 선고받았다.

◇英SDP첫議員 셜리女史 셜리·윌리엄즈여사 (51)는 지난11월26일 리버풀 보궐선거에서 승리, 영국 사회민주당(SDP) 창립 8개월만에 SDP출신 첫 하원의원 당선자가 되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정치경제학을 전공한 윌리엄즈여사는 한때 여배우를 지망했을정도로 才色을 겸비한 女政客. 마거리트·대처수상을 이어 제2의 영국여수상 후보로 지목되고 있다.

◇스페인極右派 테레로·몰리나 테레로·몰리나 (49)는 프랑코 군사독재체제의 복귀를 노리는 스페인 極右派 민병대의 중령. 올 2월23일 국회의사당을 무력점거, 각료와 국회의원을 인질로삼고 군사정부 수립을 위한 쿠데타를 기도했으나 카를로스국왕의 신속한 대처로 17시간만에 불발로 끝났다. 그는 광신적 민족주의자요 스페인 민주화를 거부하는 골수 프랑코주의자.

◇傭兵의 전설적英雄 마이클·호어 11월27일 불발로 끝났던 인도양상의 세이셸공화국 정권전복기도 쿠데타는 44명의 백인용병에 의한 「請負쿠데타」, 「개들의 전쟁」이었다. 논픽션작가 포사이스의 「개들의 전쟁」의 주인공인 이 백인용병 지도자는 北아일랜드 출신의 영국인 마이클·호어.

國內



◇趙治勳씨 日 本因坊位 쟁취 작년 11월 日本名人位를 탈취한 趙治勳9단은 7월16일 本因坊타이틀마저쟁취, 日本棋院의 2관왕이됨으로써 「趙治勳 시대」를 열었다. 10월에는 4연승으로 名人位를 지켰다.

◇朴喜範씨 夫婦동반 자살 ◇충남대 총장을 지낸 朴喜範씨 (59·啓明大교수·경제학박사)와 내과의사인 부인 蔡洙喜씨 (53·조폐공사慶山조폐창의무실장)가 지난 9월24일 大邱市壽城區晩村1洞 625의2 자택에서 동반자살을 했다.

◇梁亭道군 心臟수술 성공 외딴 섬마을의 소년 梁亭道군 (11·경남 統營郡 龍南面 於義里·於義국교5년)에겐 금년은 다시태어난 해였다. 심방중격결손증(心房中隔缺損症)이란 중병으로 생명이 꺼져가던 亭道군은 한국일보의 캠페인(5월23일자 사회면보도)으로 각계의 성금과 漢陽大 병원측에서 지난 6월4일 무료수술을 해줘 건강을 되찾았다. 부모들은 亭道군의 생일을 병원에서 퇴원한 7월4일로 바꾸기로 했다.

◇세계 計算의女王 李春德양 李春德양 (20)의 계산능력은 컴퓨터보다빨라 神技에 가까울정도. 李양은 11월23일 東京에서 열린 세계계산기능경기대회에서 암산등 6개전종목을 휩쓸어 세계계산왕이 됐다. 국민학교4학년때부터 주산을 배워 발군의 성적을 보여온 李양은 成大회계학과재학중.

◇돗자리事件의 林在正의원 정기국회를 보름앞둔 9월4일 이른바 돗자리사건을 폭로, 民正黨의 黨職개편과 국회의 要職개편등 일대 突風을 불러일으켰다. 林在正의원은 사회정의의 구현이라는 명분속에 동료의원의 廣德을 요구했지만 국민들에게는 깊은 충격파를 불러일으켰다.

◇黃善愛양 배드민턴 世界頂上에 81년 세계여자배드민턴계에 혜성처럼등장한 黃善愛. 70여년 전통의 全英선수권 대회를 비롯 타이페이, 日本, 스웨덴오픈대회서 잇따라 우승, 세계최강의실력을 인정받게되었다. 黃은 월드게임서 실패했으나 82년에 분발을 다짐하고 있다.

◇한국文學證人 朴鍾和씨 별세 韓國 現代文學의 증인이었던 月灘 朴鍾和선생이 1월13일 종로구 平倉洞 자택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0세. 서울태생인 月灘은 「多情佛心」「錦衫의피」「女人天下」등 무게있는 역사소설을 수십편이나 남겼다.

國際發明展 참가단 歸國

金메달 3개획득…發明한국 과시

수출假契約체결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열린 제10회 제네바 국제발명·신기술전시회에 참가, 금메달 3개를 비롯, 8개의 각종 메달을 획득해 발명한국을 세계에 과시한 한국 참가단 일행 8명이 18일하오3시30분 金浦공항착 KE편으로 개선했다.

이들 발명가들은 지난11월26일부터 12월 6일까지 열린 이 전시회에 카메라입체촬영렌즈등 11점의 발명품을 출품, 이중 8점이 미국·프랑스·독일등 28개국에서 출품된 1천여점의 각종 최신발명품들을 누르고 금3, 은3, 동메달 2개등 모두 8개의 메달을 획득한것이다.

특히 申錫均씨(52·발명가)가 출품한 카메라입체촬영렌즈는 금메달과 동시에 제네바주정부로부터 특별상까지 받았다.

이밖에 元仁浩씨(48)·裵益桂씨(42)등이 태양열등을 이용한 건조장치와 절첩식 과일상자로 각각 금상을 수상했다.

이날 공항에는 李正五과기처장관을 비롯, 李相奎특허청장등 관계인사와 친지들이 나와 이들의 장한개선을 환영했다.

申씨등 참가단일행은 이날 공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유럽각지의 언론들이 우리나라의 수상발명품들에 대한 특집을 다투어 보도해 한국전시관은 전시기간중 연일 성황을 이루었고 프랑스, 스웨덴, 스위스등 유럽각국의 바이어들로부터 상담(商談)이 쇄도, 이미 8백24만9천달러 상당의 수출 가계약을 맺는 성과까지 올렸다고 전했다.

이날 개선한 발명가들은 한결같이 현재 우리의 수출상품중 95%이상이 외국발명품을 모방했거나 이에 의존한 것이므로 「수출입국」을 위해서도 독창적인 상품및 기술개발이 선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대회 수상자및 발명품은 다음과 같다.

◇金상 ▲申錫均 카메라입체촬영렌즈 ▲元仁浩 태양열및 집중장치를 이용한 발전을 겸할수있는 건조장치 ▲裵益桂 절첩식 과일상자 ◇銀상 ▲申錫均 카세트덴드레스테이프 ▲元仁浩 다목적폰 ▲劉南鎬(46·남진산업대표) 봉포집게 완구 ◇銅상 ▲薛萬澤(44·동양특수자전거대표) 자전거의 추진및 변속장치 ▲韓明燮(56·단국대 공대학장) 전기시대의 時·分표시방법 ▲鄭善永 위생편리

신뢰받는 教職者像 정립다짐

柳敎聯會長 春川敎大 방문서

【春川=聯】柳炯鎭대한교련회장은 18일 교권확립을 위해 교직자의 사명과 책임에 상응하는 권익을 신장하고 스승으로서 존경받는 사회풍토를 조성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柳회장은 이날 초도순시차 江原도교육회에 들러 李商薰도교육회장(春川敎大학장)으로부터 교육현황을 보고받고 이같이 밝히고 국회돗자리사건, 宋교사의 澗相군살해사건등 모든 교직자들이 시련을 겪어야만했던 한해였다고 전제, 다가오는 새해에는 모든 교직자들이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신뢰받는 교직자상을 정립시키기 위해 교육능력을 증강하고 교직단체의 조직을 강화, 운영의 실화를 기하는등 대외적으로 내지위향상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멧돼지떼 作物피해

【東華=聯】강원도高城과襄陽郡관내 산간지방 농민들은 19일 멧돼지의 농작물피해를 막기위해 산림청의 야생조류 포획허가를 적설기인 내년2월말까지 연장해주고 허가대상도 확대해줄것을 당국에 건의했다.

2~3년째 크게 불어난 멧돼지에 의해 막심한 농작물피해를 입은 이곳 주민들은 산림청의 포획 허가기간(8월~12월)이 짧은데다 가 소수의 엽사에 한해 포획허가가 나와 효과적인 포획이 어렵다고 지적, 적설기에 보다 많은 엽사로 하여금 멧돼지를 잡을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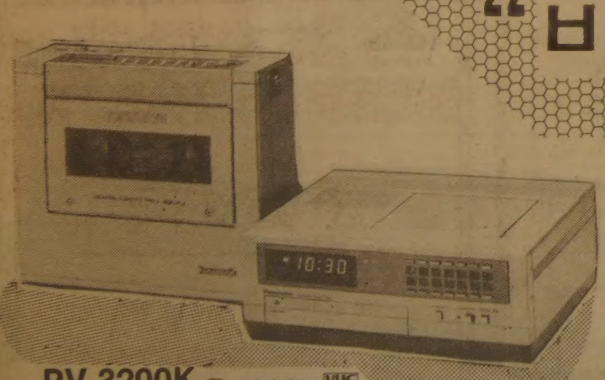
◆소리없는 종―워싱턴주 케네위크의 한쇼핑센터안에 설치된 자선남비. 종을치면 시끄러우니까 종소리를 적은 패말을 흔들고 있는 구세군 아가씨.

블론디 딘·영作 本社特約·連載漫畫

"칼날 세울거 있으십니까, 아주머니?" "없어요"
"가위나 톱은요?" "없는데요"
"날을 세우고 싶은게 틀림없이 있을텐데요?"
"저 양반을 데려다 정신좀차리게 할수있을까요?"
—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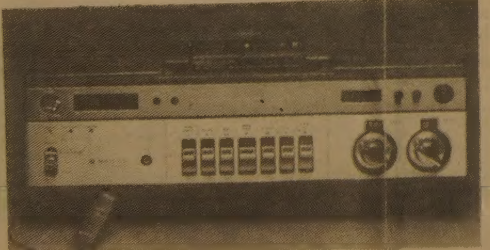
조규혁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상점보험
●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비데오 테프 세일"



PV-3200K Omnivision VHS
2-4-6 Hour Home/Portable Video Cassette Recorder with 24-Hour Tuner/Timer and Add-on Recording
Panasonic

SANYO
Makes Life's Good Things ... Better
Video Cassette Record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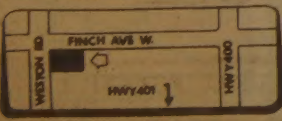


VTC9100 Video Cassette Recorder
Sanyo makes video recording or playback easy and inexpensive. Built in TV tuner lets you watch one program while recording another or allows unattended recording up to 24 hours in advance. Remote Pause Control for instant editing • Lighted Channel indicators • Easy TV hook-up • One touch Recording or Playback • Up to 3 hours Recording or Playback* • Memory Rewind • Automatic Shut Off.
*Note: L-830 tape not recommended for use with VTC9100
$ 799.00

Panasonic

PK-700AK
Compact Color Video Sound Camera with Electronic Viewfinder and 6:1 Motorized 1-Speed Zoom Lens
• Extendible Boom Mike
• 3 Position Color Temp. Switch.
• ± Iris Control
• Stand By Swit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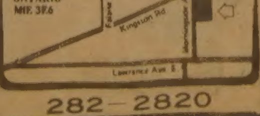
WEST지점
전 광 재
3467 WESTON RD. FINCH



745-5555

아카데미 T.V.&STEREO CO.

EAST지점.
김 정 운, 전 병 걸
255 MORNINGSIDE AVE.



282-2820

激動의 365日 또 한해가 저문다

한국일보 특집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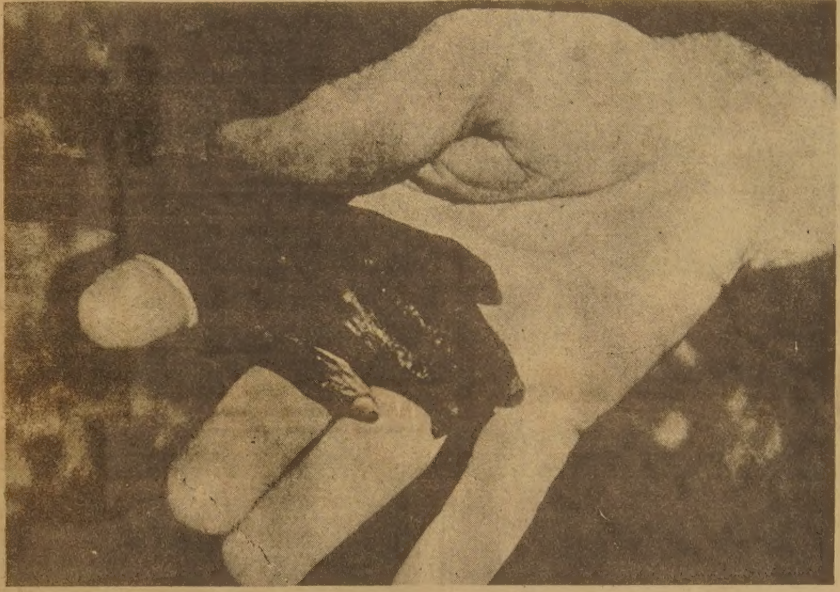
81년의 世界

國際

◇英찰즈皇太子…세기의 結婚
세기의 결혼식을 올린 영국의 찰즈황태자와 다이애너양이 버킹검궁전의 발코니서 하객들의 축하속에키스를 나누고있다。【7·29】

◇狙擊순간의 敎皇 요한·바오로2세
성베드로광장서 저격당하는 순간의 교황 요한·바오로2세。왼쪽(O표속)에 범인의 권총이 보인다。【5·14】

◇釋放人質…그리던 家族품에
美앤드루 공군기지에 도착한 이란의 석방인질 찰즈·존스를 가족들이 기쁨에겨워 부둥켜안고있다。【1·27】



◇굶주림으로 앙상한 어린이손
1981년도 세계보도사진 수상作「우간다의 가뭄흉년」。라이프誌 사진기자 마이크·웰즈는 굶주림으로 앙상한 어린이의 손을 어루만지는 손길을 예리하게 포착했다。

◇레이건 美大統領 피격
워싱턴의 힐튼호텔에서연설을 마치고 나오던 레이건 美 대통령이 좌측흉부에 존·힝클리의 총격을받은 순간과 그직전。【3·30】

◇西獨大學生들의 나체데모
서독의 마브르크 대학생들은 정부의 보조금이 삭감되자 이에 항의, 나체시위를 벌였다。【5·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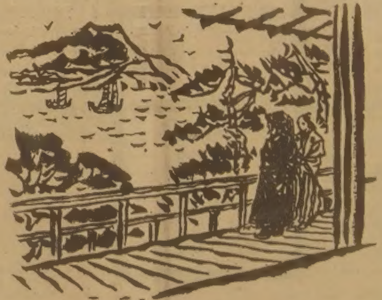
◇英國의 反核데모隊
制限核전쟁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죽음의 모습으로 분장한 영국의 反核데모대가 유럽핵배치반대 시위를 벌이고있다。【10월】

流星의 賦

<265>

李炳注 作
李友範 畵

感傷異國月 ㉛



가마가리(蒲刈)에서 순풍을 얻어 출발, 도모노우라에 도착한 것은 7월18일。

이곳은 비후주(備後州)에 속한다。 일본의 관례(慣例)로서 연도의 태수(太守)는 사신들을 대접하게 돼 있다고 해서 이곳에서도 하루를 묵기로 했다。 객사(客舍)는 복선사(福禪寺)。 절은 해안을 낀 산 아래에 있었다。 건물의 규모가 웅장하고 장식은 화려했다。 선착장(船着場)에서 객사에 이르는 길은 10리 가까이 되었는데 노면에 자리를 깔아 티끌 하나가 없었다。 오보(五步)마다에 장대를 꼽아 장대마다에 대등(大燈)을 걸어 밤인데도 낮처럼 밝았다。

기와 지붕의 집들이 즐비한데 비단 옷을 입은 구경꾼들이 길가에 넘쳐 있었다。 장사치、유람객、창녀들이 붐벼 보기만으로도 풍요한 곳으로 알았다。

높고 수려한 산들이 삼방(三方)에서 에워 싸 만(灣)을 이루었는데 산 뿌리가 바다에 잠긴 언저리엔 돌을 깎아 제방을 만들었다。 그 제방의 정연한은 두부를 잘라 놓은 것 같았다。 송(松)、삼(杉)、귤(橘)、유(柚) 등 갖가지 수목이 울창하게 그림자를 해면에 드리웠는데 그 경색도 또한 볼만 했다。

동쪽에 홀연히 서있는 괴암(怪岩)이 있었다。 그 괴암을 뚫어 길을 내고 돌을 쌓아 축대를 만들고 이에 절을 세웠는데 그 이름은 원법사(圓法寺)。 계남은 여기서 시(詩) 한 수를 얻었다。

『층헌여비상(層軒如飛翔) 백벽조운표(白壁照雲表) 여인망지탄(旅人望之歎) 불비신선거(不非神仙居)』

평측(平仄)에 관심을 두지 않은 즉흥의 절귀였는데 읊는 소리를 들은 히라또 쇼오스께(平戶庄助)가 그것을 글로 써서 달라고 졸랐다。

계남이 하는수 없이 휘호하여 그에게 주었다。 히라또뿐만이 아니라 왜인들은 조선 사신들의 휘호를 얻으려고 안간 힘을 쓰는 것이다。

계남의 거처는 정부사가 차지한 복선사 서쪽에 있는 별관이었다。 별관도 본관과 다름없이 규모가 당당하고 조도와 가구는 사치스러웠다。 보다도 거기서의 조망은 실로 절가(絶佳)라고 할밖에 없었다。

그 조망을 즐기고 있는데 통사 히라또가 옆에와 서서 물었다。

『조선에도 이만한 경치가 있읍니까?』

『있고 말고』

하고 계남은 어릴적 김달손에게 인도되어 경포대를 거쳐 내금강、외금강을 구경한 기억을 되살렸다。 강릉으로 율곡을 찾아갔을 때의 일이다。

『조선에도 경승지가 많소。 특히 금강산은 중국사람으로 하여금 원생조선국(願生朝鮮國)하여 일견금강산(一見金剛山)했으면 하는 시를 읊게 한곳이오。 나는 이 경치가 우리나라의 경치보다 낫다고 해서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곳마다에 있는 이취(異趣)에 감동하고 있는 것이오』

하고 금강산 자랑을 계속했다。

그 이튿날은 히메지(姬路)에 이르렀다。 히메지에서 볼만한 것은 성(城)이었다。 백악(白堊)의 고루를 높이 싸고 성의 둘레는 수십리라고 했으니 장관이었다。 촌리(村里)를 관찰하니 그 풍성하기가 이때까지 본 어느 지방보다도 월등했다。 이곳의 객사도 훌륭했고 대접 또한 융숭을 극했다。 그러나 계남의 마음은 밝지 않았다。 사향(思鄕) 간절한 바가 있었기 때문이다。

종교서관
535-1920
●기독교및 일반서적
일반서적
다량입하
월~토 : 오전10 : 30~오후7시
714 BLOOR ST. W.

TELEFUNKEN

⊙HR5500 RECEIVER
2X60 WATTS RMS
POWER BANDWIDTH
5-50,000H
⊙DIRECT DRIVE
TURNTABLE
⊙HICOM CASSTE
DECK
⊙2X90 WATTS 3WAY
SPEAKERS

SPECIAL SALE
특별할인

FEATURES :
BRAUN P-1 TURNTABLE : Quartz Lock Direct Drive Fully Automatic, With Low Mass Tone Arm and Brauh Magnetic Cartridge
BRAUN T-1 TUNER : Digital Quartz Lock With 9 Presets, Pll Mosfet Front end, AM-FM-LW.
BRAUN AMPLIFIER : Low Distortion DC. Amplifier. 55 Watts Per Channel. Led Output Levels.
BRAUN C-1 CASSETTE DECK : 3 Motor, All Solenoid, With Convenient Motorized Cassette Drawer. Metal Tape Capability
BRAUN L-1030/4TC : 3 way Speakers With 110 Watts Handling Capacity.

Pure design, Pure Sound… Pure Braun
BRAUN
※81년도 유럽 전기제품 디자인상 수상

WEST지점
전 광 재
3467 WESTON RD. FINCH
FINCH AVE W. WESTON RD HWY401 HWY400
745-5555

아카데미 T.V.& STEREO CO.

EAST지점,
김 정 운, 전 병 걸
255 MORNINGSIDE AVE.
SCARBOROUGH, ONTARIO M1E 3E6
282-2820

한국일보 (특집판)

激動의 365日…또 한해가 저문다

國內 사진으로 본

◇訪美끝내고 歸國한 全대통령 내외

全斗煥 대통령내외는 전국민의 관심과 기대속에 10泊11일간의 미국방문을 마치고 2월7일 귀국했다。 全대통령의 訪美는 駐韓美지상군철수 白紙化로 韓半島에 안정을 가져오는 기틀을 마련했고 교민들에게는 母國과의 一切感을 심어주는 계기가 됐다。 미국공식방문을 끝내고 귀국, 서울시청옆에서 환호하는 시민들에게 답례하는 全대통령내외。

◇尹노살 사건의 高여인과 河형사

尹보살살인혐의로잡혀 현장검증에서 범행을 재연하고있는 高여인과 사건담당 河형사。 河형사도 尹보살의 예금[illegible] 쳐 역시 쇠고랑을찼다。(10·16)

◇"큰절받으세요."

大邱 東部경찰서는 경찰의날 기념식전에서 서장을비롯한 4백80여명의 경찰관들이 지방유지·시민등 하객들에게 큰절을해 화제가됐다。(10·21)

◇聖女테레사 訪韓

「버림받은 이들의 어머니」로 79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테레사수녀가 우리나라를방문했다。(5·3)

◇피·눈물로 범벅된母子

보통급행열차가 특급열차를 추돌, 승객50여명이 숨지고 2백60여명이 중경상을 입는 대참사를 빚었다。 사진은 사고직후 열차밖으로 튕겨나온 모자의 처참했던 모습이다. 그후 부모자는 건강을 되찾았다。

◇거리질서캠페인 여중생 轢死

정비불량 관광전세버스가 인도로 뛰어들어 등교길 거리질서캠페인을 벌이던 서울여중생들을 덮쳐 2명이 죽고 7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진은 서울 西大門區 弘濟洞 서울여상앞 인도참사현장。(5·25)

◇돌아온 6대獨子 공개수사 8일만에 되찾은 [illegible]錫군을 아버지가 안고 기뻐하고있다。(6·19)

◇獸心의 스승…潤相 유괴범

제자를 유괴살해후 불륜의 관계를 맺은 여고생제자들을 시켜 수사를 교묘하게 혼란시키다 1년18일만에 검거된 체육교사朱永炯(28)과 李모양(17)、高모양(17)。

◇2백만弗이 白紙로

[illegible] 사건、외환은행 의정부 [illegible] 표정을 짓고있다。(1·28)

교 회 안 내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가나안교회	이정준	주일오후 1:30	1428 Royal York Rd. (at Eglinton Av W.)	244-2301 742-7010
갈보리교회	안병한	주일오전 7:30 오후 2:00 영어설교 오후 1:00 금요저녁 9:00	3817 Lawrence Ave.E.	755-7979 431-3635
고신장로교회	최사철	오후예배 1:00 성경공부 2:30	148 Thornridge Dr Thornhill	241-4546
대한교회	강근환	주일오후 1:30	3819 Bloor St.W.	741-5411
순복음교회	이필주	주일오후 2:00 금요기도회8:00	1 King St. Weston	881-7162 247-9577
동부한인장로	홍순관	대예배 오전11시 영어예배 12:30분	251 Christie St	530-1142 530-1143
딕시한인장로	차주성	주일새벽6:30 주일낮 12:00 주일오후 2:00	3065 Cawthra Rd. 미시사가	279-4356 279-6388
런던제일교회	장희선	주일낮 11시 주일찬양예배7시 수요예배 8시 주일새벽기도회6시	135 Briscoe st. E.	686-6302 전화선교 439-6331
런던한인교회	신용규	주일대예배11:00 주일저녁예배7:30 금요기도 밤10시	530 Topping Lane London	473-5257 686-0274
성도교회	김용진, 정춘수	주일오후1시30분	87 Elmhurst Dr.	745-7370
반석교회	양세주	주일오후 1:30 성경공부 2:40 토요기도 밤7시	2840 Weston Rd. at Albion	746-5010
벧엘교회	최상봉	수요저녁7:00 주일오후 1시	395 Old Yonge St.	496-2967 221-1382
빌라델비아 장로	김경진	주일오후1:30 금요오후7:00	7 Gretna Ave. (Victoria Pk. & Lawrence)	281-5706
새예루살렘교회	김승한	주일오후 2시 중고등 영어 오후1시 수요새벽5시30분 금요저녁7시30분	5 Grenoble Dr. Don mills	429-1430 429-2685
새한장로교회	김철호	주일오후 2:00 토요오전 7:00	105 Wilson Ave.	482-4577 633-8132
서머나감리교회	박준하 김옥희	주일오후 2:00 수요예배 7:30	675 Sheppard Av.E.	751-3611 752-9860
선교교회	안상엽	주일낮 1:00 저녁 7:00	1 Greenland Rd. (Donm ills)	444-8002 444-4011 (기쁜소리)
대한수도원	조권사	철야기도 금 밤11시 토요집회 오후2시 평일기도 오후2시 또는 수시	100 Lawlor Ave. Tor.	698-5363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성산교회	계화삼	주일오후 1:30 4:00 수요오후 7:30	65 Mayall Ave. Downsview	977-5202
순복음카나다	조이식	주일오후 2:00 금요오후 8:00	1030 Albion Rd.	745-3884 743-4813
에덴침례교회	정태진	주일오후 2:00	1272 Weston Rd.	242-4964
영락교회	김재광	주일오후 1:30 수요서녁 7:30 금요저녁10:30	126 O'conner Dr. at Pape Ave.	423-9880 423-8400 (복음의 다이알)
오순절장로교회	장세택	주일오전11:00 금요오후 8:00 주일 오후 4:00	754 Indian Rd.	762-1495
임마누엘교회	조창환	수요저녁7:30 일요오후2:30	63 Dunblaine	488-4141
요한웨슬레 감리교회	여용순	주일오후 1:30 금요예배 7:30	2385 Warden Ave.	444-8343 497-7122
제일장로교회	김용출	주일오후 1:30 금요오후 7:30	963 Pharmacy Ave.	755-9766 755-1528
제7일안식일	박형종	금요오후 7:30 토요오전 9:30 11:00	255 Finch Ave. W.	630-4284
중앙장로교회	정관일	주일오후 1:00 성경공부 2:20 금요오후 8:00	502 Bathurst	전화설교 961-8361
천주교회	고종욱	주일오후 1:00 토요오후 5:30	83 Power St. Tor.	863-0415
침례교회	홍신웅	주일오후 2:00 금요오후8:00	720 Ossington Ave.	531-7604
충현교회	박경남	주일오후 2:00 주일오후 4:30 금요집회 밤8시	240 Manor Rd.	281-7772 245-1687
키치너·워터루 한인교회		주일오후 1:30	54 Queen St.N. Kitchener	(519) 579-1819
펜티코스탈교회	심상대	주일오후 1:00 (영어예배) 주일오후 2:00 (대예배)	300 Queen's Dr.Tor.	223-1914
한인장로교회	박희민	주일오전11:00 수요오후 7:30	1183 Davenport Rd.	535-6844 532-2121
해밀턴연합	김낙중	성경공부 2:30 예배 3:00 주일학교 3:00	1570 Main. W. Hamilton	627-4328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시편23편)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 사향·녹용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
지, 명함, 주보, 광고
담풀엘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 인

출퇴근 하시면서 여아보아 주실분 급구
(스파다이나 블루어 써브웨이 옆)
☎ : 921-8102

RESTAURANT동업자 구함
BEER + WINE 라이센스가 있고 새 PLAZA내에
SETUP된 전망이 좋은 고급 식당입니다.
꼭 관심이 있는 분은
281-8218(오후2시~5시 사이만)
로 문의 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HELP WANTED
일본 음식점에 웨이트레스와 키친헬퍼구함.
☎ : 977-9519 195 RICHMOND ST. W.
일본식당마사

닥터 사무실에서 일할분 구함(오후에일할 파타임)
1982년1월부터 시작함.
책임성있고, 참고인 서야함. (이력서를 보내세요)
DR. C. NGAN
2437 FINCH AVE. W. WESTON. ONT. M9M 2E7

접시닦을 학생구함 주3일 근무
☎ : 421-6016

중역간부모집—어느정도 영어에 융통하고 용모
단정한 분. 당회사는 기반이 잡혀있는 무역회사임.
☎ : 962-0019

매매및 양도

이사관계로 급히 매매코저함. 짧은시간외(10 : 00AM~6 : 00PM)GIFT SHOP으로써 온종류, 크리스탈, 밥상보등 여러종류 취급. ☎ : 낮(656-6660), 밤(224-2227)

도나스및 샌드위치 샵급매
토론토 근교에 위치 뉴 오픈 스토아, 장래성 있는
지역, 비데오 머신으로 렌트카바, 관심있는 분은
연락바람.
☎ : 1-576-1732, 745-3498
미스타. 고

성능좋은 2 DOOR POP을 급히 구매코자하니
연락바랍니다.
☎ : 239-7267 미세스 신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5000다운페이+스탁
☎ : 251-1397

작은 그로서리 스토아 가정형편상 매매
이층방 포함 렌트 : $650
☎ : 656-7753

밀크스토아 급매(오타와)
주매상 : $5700
◎스토아 매니저나 후렌챠이즈 구함(토론토지구)
☎ : 624-5817

몬트리얼이나 유럽에 있는 빌딩이나 회사를 사는데
투자하시기를 원하시면 연락바랍니다.
4521 PARK AVE. SUITE 320, MONTREAL, P.Q
MONTREAL MANAGEMENT SERVICES Co.
☎ : 849-0959, 7374~6

안내광고를 원하십니까?
● 줄1칸 …… 3회 ………… $10.00
● 줄1칸 …… 5회 ………… $13.00
● 줄1칸 …… 10회 ………… $26.00
50자 이내로 내용을 적으시고 아래주소로 보내주시면, 우편 도착 다음날부터 게재해 드립니다.
THE KOREA TIMES
1025 DUPONT STREET,
TORONTO, ONT.
M6H 1Z7
※안내광고는 선불을 원칙으로 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사 진

새한칼라 현상소
●결혼 ●돌사진 ●각종 증명사진 ●회갑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 : 535-7772 630 BLOOR ST. W. TOR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 촬영
○각종카메라·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증명사진
619 Bloor St. W. Tor. ☎ : 534-1085 김 춘 학

무지개 칼라— 36 NEAPOLITAN DR.
438-4435
•VIDEO 촬영 •wedding
•commercial •wall decors

60 MINUTE PHOTO LAB
●1시간에 모든 현상이 가능
●교포께 특별히 10% 할인해 드립니다.
●프린트 싸이즈(4×6)품질보장
●KNOB HILL FARM DIXIE MALL ☎ : 274-4323
50 BLOOR ST. W. ☎ : 967-7121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 751-9236, 757-2106 홍 진 표

SIGN & GRAPHIC, 건축설계상담시공
바우종합광고회사 637A BLOOR ST. W.
☎ : 535-0647, 465-1722 송 관 현

미 용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킴스 미용실
☎ : B) 532-7094, R) 248-2437
(코리아 하우스 뒤)

매매 부동산

복덕방 ROYAL TRUST CO., (로얄 트러스트)
주택전문 ☎ : (B) 752-3111, (R) 298-2546
곽 석 용

보 석

다이아몬드·스타
공장가격으로 특별우대, 주문에 의해서 보증서 책임
신용본위 ☎ : 537-0432(B), 534-3346(R) MR. LEE

Young's JEWELLERY ●보석전문가(보석주문, 감정및디자인, 개조, 수리일체) ●도매시세로 최고 품질을 최저시세로 매매(책임보증)B) 284-9325 R) 281-1954

시설및 수리

집수리·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 : 669-5784 미스타 심

TV 출장 수리
☎ : 431-0102 미스타 박

KIMBO ELECTRIC CO. :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보수, 가게신설, 용량증설, 전기일 일절 집, 가게, 공장
☎ : (B) 245-5544(PAGING)2790, (R) 255-2161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 : 438-3795 김 영 호

목공소 FineWoodwork
676-1173 769-9468 조 상 민
상점시설및 주택개조·사우나 설치
진열장·카운터·홈빠·책장등 가구제작

악 기 점

SOO PIANO SERVICE
조율 수리 SIMP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 : 222-4662 김 수 홍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 : (R) 636-1430, (B) 783-6871
1178 EGLINTON AVE. W. 이 상 철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페인팅, 토잉써비스
95 PORTLAND ST. ETOBICOKE,
☎ : 255-2111(B), 828-5001(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 (BLOOR & 키플링)
☎ : B) 231-6951, R) 742-5408 오 세 호

ROGERS GARAGE 번 달 원
자동차 수리 일체).
20 ROGERS RD. ☎ : 651-9324(B) 226-5430(R)

이삿짐및 운송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라 운 수

인벤토리

INVENTORY —인벤토리—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에어콘·히팅·냉장고

Palmer's 시설·판매·수리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 : (B) 746-3840~1, (R) 493-9945 김 봉 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판매·수리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환 영

센추리냉동 원 종 성, 이 인 식
☎ : 221-5441

KIM'S 냉장고, 에어콘
시설 수리일체
☎ : 749-3178 김 진 환

사무실·점포 렌트

조용한 사무실 세놓습니다.
(DUPONT & DUFFERIN)
☎ : 533-2364

여 행 사

천우여행사
720 SPADINA AVE.
928-3335 김현두

신세계여행사
712 BLOOR ST. W.
536-2155 김창범

서울여행사
631A BLOOR ST. W.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일여행사
621A BLOOR ST. W.
535-2377 유지원

양 장 점

샐터의 상실
숙녀복, 파티드레스, 웨딩드레스, 단체주문환영
☎ : 535-4441 806 BLOOR ST. W. 디자이너 MR. 김

현의상실
각종양장 마춤전문 ☎ : 769-1559

카펫·카텐

카펫 크리닝 : 카펫·소파·체어·자동차시트
☎ : 439-62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럭키 DRAPERY
4141 DIXIE RD. (딕시×버남돌프)
☎ : 625-0698 최 원 보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펫·브라인드
2390 LAKESHORE BLVD. W.
☎ : (B)252-4857 (R)252-6602 유원덕

꽃 집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 751-5851 이 동 환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875 JANE ST. TOR.
*생화, 조화, PLANTS * GIFT취급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 주문 배달함.
☎ : B) 769-0609
R) 242-5194 여 정 용

크로스웨이(구 클레어리)
꽃 집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남파·김

정 쓴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꽃도매상 437 CARLAW AVE. TOR
*각종 CUT FLOWER. 생화. HANGING PLANT. TREE.
*꽃과 화분을 취급하는 스토어
*개업인사. 각종파티. 사무실용. 방문
☎ : 465-8167 (MR. 김, MR. 곽)

한 방 원

침 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안강용한약건재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진품웅담●녹용●우황청심환●사향●경면주사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보제첩약및 각종병에 대한 처방약
6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 (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465 DUNDAS W.)
☎ : 363-3883, 363-2088 최 호 권

서울한의원
●30여년간 서울에서 한의원 경영
●대한한의사협회장외 한의학발전공로표창장10여회 수상
●진료과목 : 한방내과·신경과·부인과·침구과·산후보약
주소 : 10 Blackfriar Av #216 Weston, Ont. (Kipling×Dixon)
☎ : 247-9347 한의사 : 김 장 석 (왕진함)

회계사무소

공인회계사 이 명 세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AUGA 전화 : 273-7300

R.I.A. 김 인 규
ACCOUNTING & TAX 844-0178

태 권 도

손명수 태권합기도장 :
2186 BLOOR ST. W. (사범 : 손명수)
(AT RUNNYMEDE써브웨이) ☎ : 763-1155

박홍수 태권도장(사범 박홍수)
719 YONGE ST
☎ : 961-7100

임송학 태권도장
교포들에게 반액으로 봉사
1963 WESTON RD. (1층)
☎ : 247-7577 (웨스톤×로렌스) 로브로 앞

기 타

니폰·비데오 많은 한국테이프가 새로구입
주6일 오픈, 1993 DANFORTH AVE. TOR.
☎ : 698-0633 히마구찌

PICTURE FRAME WAREHOUSE
각 종 액 자
82A REXDALE BLVD., REXDALE ☎ : 746-2120 조 혜숙

통닭. 오뎅 한국인의 빈대떡, 통닭 전문 :
각종 샌드위치 주문환영
☎ : 537-0432 미스타 리

ZAP SUREKILLER 368-9018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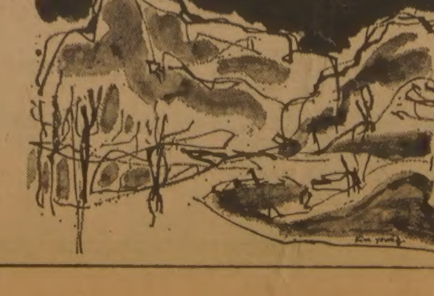
HUNTS BAKERY
X-MAS 생일, 단체용 CAKE 주문 케잌
☎ : 769-4347 (던다스 AND 스카랫)

광고접수 안내
「한국일보'안내광고」는 이민생활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 월~금
(오전 9시 ~오후 5시 30분)
※매주 목요일 3시까지 접수된 안내광고는 다음주 월요일부터 게재됩니다
CALL 533-2361
한국일보사 광고부

중앙 AUTO SERVICE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TOR.
☎ : 532-3946 길창세

바다에 플룻을 <9>

梁順錫 作
金鈴 畵



휴게소 광장으로부터 우리가 타고 왔던 버스가 발차하려 하고 있음을 알리는 마이크 소리가 울려왔다.

그를 따라 일어서려던 내 어깨에 걸쳐있던 그의 코트가 식당 바닥에 흘러 떨어졌다. 죽어가는 아내를 가진 남자의 코트를 걸치고 추위를 피하려는 내 자신에 대한 뜻하지 않은 연민이 나를 자극했다. 그가 내 곁으로 다가와 코트를 주워 다시 내 어깨를 덮으려 했을 때 나는 가볍게 거절했다.

『괜찮아요. 이젠 춥지 않아요』

그는 코트를 팔에 걸쳤다. 식당 밖으로 나오자 우리 두 사람 때문에 아직 떠나지 못하고 있는 버스의 차창으로 승객들의 얼굴이 일제히 우리를 향해 있었다.

『자, 뛸까요?』

그가 내게 손을 내밀었다.

『가스실을 향해서요?』

내민 그의 손을 잡으며 내가 말했다. 그리고 손잡은 우리는 버스를 향해서 있는 힘을 다해 달렸다.

안내양의 재촉하는 손짓을 받으며 버스로 돌아오자 차는 서서히 언덕을 내려서기 시작했다. 산굽이를 짜아내린 위태로운 길이었다.

『안전벨트를 매요』

그가 내 안전 벨트를 찾아주며 위험을 경계하듯 말했다. 세상을 죽음의 가스실로 보는 사람이 안전벨트를 챙기다니.

안전벨트를 죄는 내 시야에 안개를 뚫고 바다가 언뜻 비쳤다.

『바다가 보여요』

그가 웃었다.

『바다가 보였어요』

나는 반복하였다.

『바다는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는 것은 사람뿐인가요?』

죽어가는 사람을 질투하던 마음은 이제 바다를 두려워하게 되었다. 아무것도 알 수 없는 한 남자로 인하여 바다로 향했던 마음을 떠날 [illegible] 함께 그에게 솔고서 이제 바다가 가까와지는 시간에 나는 언제나처럼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지상에 내려앉고 있었다. 저 땅에 내려서서는 어찌할 것인가.

『플룻을 가져 오셨읍니까?』

그가 나의 미망을 헤치고 물었다. 플룻? 아름다운 이름, 아름다운 악기. 왜 플룻을 말할 때면 화강언니를 떠올리는 것일까.

『멜레라는 이름 대신 플룻이라고 불러야 겠다. 얼마나 예쁜 이름이야』

그녀는 나를 그렇게 불렀다.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가져오셨읍니까? 플룻』

『왜 그러세요』

『바다에서 플룻을 연주해 보십시오』

다니.

『여기서부터는 내리막길입니다. 바다는 저 닿지 않는 곳에 있는듯 하지만 지상에 내려서야만 갈 수 있읍니다. 왜 바다로 가고 싶어 합니까? 그것은 바다가 지상의 끝에 있기 때문이지요. 이 버스를 타고 여행을 해보면 바다는 언제나 지상의 먼 끝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땅을 딛지 않고는 바다로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른편을 봐요. 해발 600m, 해발 500m, 점점 지상에 가까와지고 있읍니다』

버스는 과연 산을 굽이굽이 돌아 내려가고 있었다. 100m 간격으로 해발고도를 알려주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다. 곧 바다에 닿으리라. 그러나 나는 왜 바다를 향해 떠났는가? 도시를 떠날 때와는 달리 한 남자를 만나 그 남자에게 구속되었다. 바다에서 위무받으리라

축
성 탄
謹賀新年

기쁜성탄과 새해를 맞아
여러분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기를 바랍니다。

외환은행가족일동

교민여러분을 위한

영 업 안 내

장 미 적 금

- 베이비적금, 모국방문적금, 결혼적금, 사업자금 마련등 푼돈으로 목돈을 마련하는 한국식 적금방법입니다.
- 은행에 나오시기 힘드실때에는 postdate체크를 보내주시면매월 자동 불입시켜드리고
- 원하시면 언제든지 대출로 받으실수 있읍니다.

장미적금 월부금표

계약기간 / 계약고	6개월	1년	1년반	2년
500	81.44	39.68	25.84	18.92
1,000	162.88	79.36	51.68	37.84
1,500	244.32	119.04	77.52	56.76
2,000	325.76	158.72	103.36	75.68
3,000	488.64	238.08	155.04	113.52
5,000	814.40	396.80	258.40	189.20
10,000	1,628.80	793.60	516.80	378.40
30,000	4,886.40	2,380.80	1,550.40	1,135.20
50,000	8,144.00	3,968.00	2,584.00	1,892.00

※500불 이상은 500불을 기준으로한 배수임.

전화 : 364—2890

DAILY INTEREST SAVING예금

- 하루만 예금하셔도 높은금리를 드립니다.
- 월말에는 이자가 자동지급되며 이자를 적금으로도 불입시켜드립니다(정기예금도 가능).
- 현금리는 12.75% 입니다. (81. 12. 21현재)

BLOOR지점
(629 BLOOR ST. W.)
82년3월개점

외 환 송 금 안 내

- 추심등 복잡한 절차없이 즉시 찾으실수 있고
- 바쁘실땐 certified cheque을 우송하셔도 송금해드립니다.
- 저희은행 구좌가 있으신분은 개인수표로도 처리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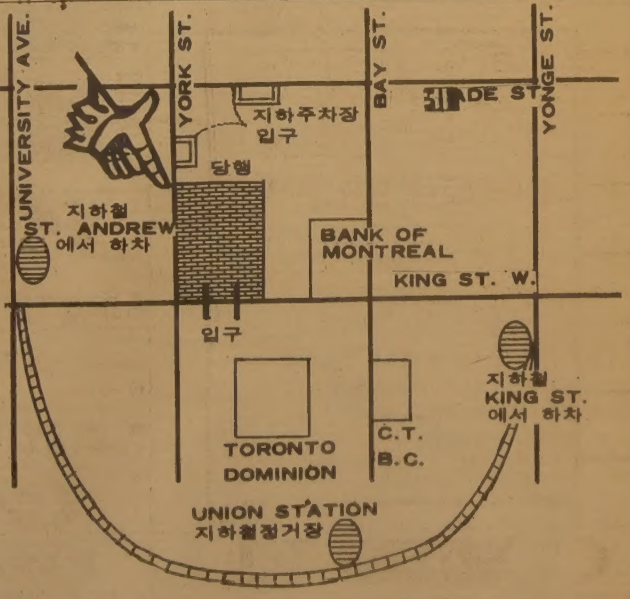
대 출 안 내

- 작은 가계에서 사업자금까지 캐나다 은행보다 낮은금리로 대출해드립니다.
- 융자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십시오.

수출입업무

- 수출입관련 모든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본점이용교통안내



※캐나다 은행들이 취급하는 모든업무를 보다 더 신속·정확하고 친절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캐나다 외환은행
KOREA EXCHANGE BANK OF CANADA

EXCHANGE TOWER 2 FIRST CANADIAN PLACE, SUITE 1140 P.O. Box 402 TORONTO Ontario M5X 1E3

신장개업

— 교민에게 희소식, 곧 신장개업 —

하르빈 한약상사

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제가 오랜 한의사 경험을 토대로 교민여러분께 봉사하는 기회를 갖게되었읍니다.
각종 한약재, 침술등 자신을 갖고 여러분을 모시고자 하오니, 일차 내방하여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서 춘 봉 올림

— 만주 하르빈 한의대학졸업(1958년도)
— 중국의과 대학 졸업(1954년도)
— 침술학을 20년 연구(하르빈)
— 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 만주 하르빈 한의대학 교수역임(20년간)
— 5개국어 능통(중국어 · 일어 · 몽고어 · 소련어 · 한국어)

※한약재 : 인삼 · 녹용 · 사향 · 경명주사등

※오랜경험으로 침술(반신불구, 신경통등)

— 중공에서 직수입
— 정확한 진단과 처방

장소 : 643A BLOOR ST. W
(신용조합 옆)

전화 : B) 530－1868
R) 743－0752